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5

第24卷 第1號 通卷 26號

走馬牙疳床方其效如神用白礬枯黃丹飛京
存性核燒共末付之又白礬置五倍子內煨過
 未付

口瘡赴宴散傳上又黃連細末蜜水調傳或加

腦麝鵬砂正傳○吳茱萸末醋調貼兩脚心引熱

就下又硫黃末水調貼手心脚心效即洗去○

黃丹蜜水調蒸一炊久刷瘡得效○頰瘡及鵝

口瘡白楊木燒漚傳○鵝口瘡者白屑滿口及

兩脇者也用髮纏指頭蘸井華水拭口令淨又

用濃煎粟米汁以綿纏筋頭拭之煨過黃丹糝

之立效瀉心湯連翹洗心散得效

木舌者心脾積熱熱氣上衝令舌腫漸漸脹大

塞滿口中也不急治必害人治同重舌用紫雪

○百草霜芒硝滑石末酒付

重舌心脾有熱血氣盛附舌根重生一物同形

短小也著頰裏及上腭曰重腭著斷上曰重斷

皆當刺血又舌下紫脉出惡血真蒲黃竹漚調

付○百草霜和鹽傳腦子亦可○或馬牙硝燄

硝竹漚浸黃柏并可傳之餘見舌門得效方

好膽礬研細付正傳

好膽礬研細付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年 10月 7日 創立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HITA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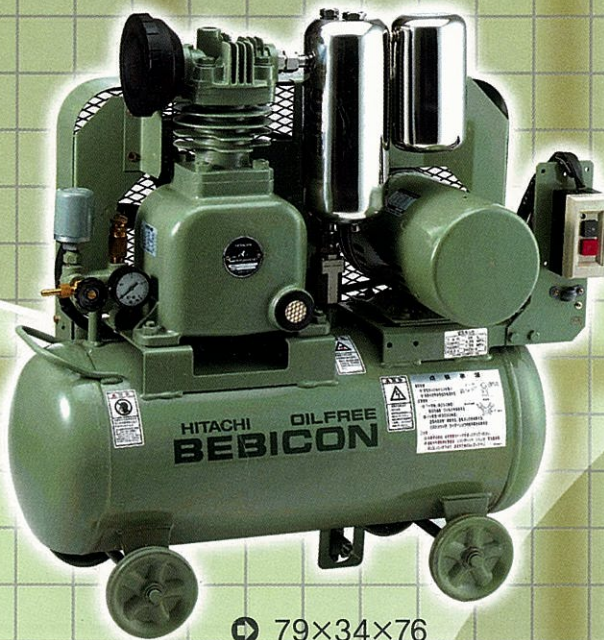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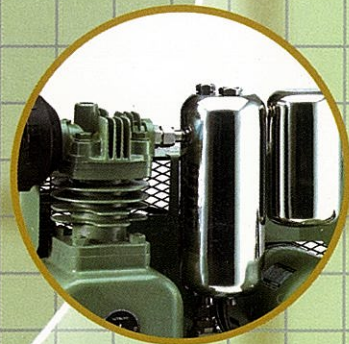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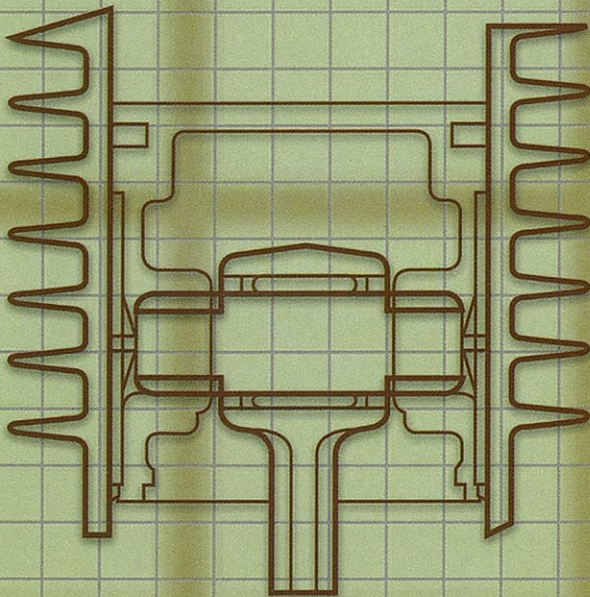
Dental Compressor

**Compact Power Pack for
oil-free, dry and clean air!**

최고의 성능을 자부하는 히타치 콤프레사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100여년 전통의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1.5마력 치과전용
히타치 콤프레사는 이미 국내에서 수십여년간
입증된 제품으로 오랫동안 사용 할수록 품질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어의 완벽한 제습상태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드라이어의 고장으로 인하여
콤프레사가 고장나는 경우는 발생 하지 않습니다.



79×34×76

1단	1.1Kw	단상
최고압력	0.93	MPa
경행정수	60mm×50mm×1	
회전속도	980	min ⁻¹
토출공기량	75	L/min
V	110	220
HZ	60	60
min ⁻¹	1730	1730
A	10.5	5.2
ST.A	63	32



아리아덴 (Aria Den)

TEL : 031-716-9023 FAX : 031-717-8546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5

第24卷 第1號 通卷 26號

走馬牙疳床方其效如神用白礬枯黃丹飛京
聚連核燒共末付之又白礬置五倍子內煨過
末付
口瘡赴宴散傳上又黃連細末蜜水調傳或加
腦麝鵬砂正傳○吳茱萸末醋調貼兩脚心引熱
就下又硫黃末水調貼手心脚心效即洗去○
黃丹蜜水調蒸一炊久刷瘡方得效○顏瘡及鵝
口瘡白楊木燒漚傳○鵝口瘡者白屑滿口及
兩脇者也用髮纏指頭蘸井華水拭口令淨又
用濃煎粟米汁以綿纏筋頭拭之煨過黃丹終
之立效瀉心湯連翹洗心散方得效
木舌者心脾積熱熱氣上衝令舌腫漸漸脹大
塞滿口中也不急治必害人治同重舌用紫雪
○百草霜芒硝滑石右末酒付
重舌心脾有熱血氣盛附舌根重生一物同形
短小也著頰裏及上腭曰重腭著斷上曰重斷
皆當刺血又舌下紫脉出惡血真蒲黃竹漚調
付○百草霜和鹽傳腦子亦可○或馬牙硝酸
硝竹漚浸黃栢并可傳之餘見舌門得效方○
好膽礬研細付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年 10月 7日 創立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24권 제1호 통권 26호 2005

目 次

▶ 卷頭言	邊榮男 (6)
▶ 의료분야의 도입과 관련하여	임경빈 (7)
▶ 佛牙舍利(Tooth Relic)-文獻을 통해 본 齒牙形態學的 접근	신덕재 (15)
▶ 우리나라 근대 간행물에서 보이는 ‘치과’ : 1894~1950.....	조영수 (23)
[提 言]	
▶ 남북구강의학 용어에 관한 제언.....	이병태 (12)
[資 料]	
▶ “6·25 전후의 치과계”	(53)
▶ 우표를 통해서 보는 Dentistry(2)	김재성 (69)
▶ 學會活動	(85)
▶ 會員動靜.....	(86)
▶ 任員名單.....	(87)
▶ 投稿規程.....	(88)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24., No. 1. Series 26. 2005

Contents

- President addressByun Young Nam (6)
- On the Opning of medical care market.....Imm Kyung Bin (7)
- Current Commentary on Korean Dental Terminolog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Lee Byung Tae (12)
- Tooth Relic - The Approach of the Buddha's Dental Morphologic
Aspect through the Legend and the Record.....Shin Duk Jae (15)
- 'Dentistry' seen on the Periodical in Korea:1894~1950..... Cho Young Soo (23)
- "Dental Society around the Korean war" (53)
- Dental Postage Stamps of the World(2).....Jae SounG Gim (69)
- KAHD Activities.....(85)
- Members News.....(86)
- A list of KADH Officers.....(87)
- Rules of Contribution(88)

齒科界 혼란은 도덕적 가치관의 확립으로

大韓齒科醫史學會

會長 邊 榮 男

지금 치과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얽히고 설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4, 4+2 學制의 混在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나뉘어져 학사, 석사로 갈라지는 등 가닥을 잡을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렇다고 良質의 치과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도 없이 오히려 수련의가 줄어들 전망이니 치과의사의 質 저하가 걱정되기도 한다.



의료광고의 대폭 허용과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혼란, 개원의들간의 환자유치 경쟁 등 누구인가 통제하고, 제재할 능력은 不在한 채 혼란만 가증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각자가 반성하고 자제하며 자발적인 자정 능력을 갖추거나 협회의 자율징계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 각자의 도덕적, 윤리적 감각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치과의사학이나 윤리학 강의 등을 도외시하고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치과의사가 된 후 보수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행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에서는 3학년 구강악안면외과학 임상강의에 구강악안면외과의 역사, 의료윤리 등에 시간을 할애 하여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강당을 개보수하여 전 학년 통합강의로 치과의사학이나 윤리학 등을 개설하겠다고 정필훈 학장이 치과대학 동창회 총회 석상에서 그 뜻을 밝혔으니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사건도 도리켜 보면 지나친 성취의욕과 도덕적, 윤리적 기본자세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일로 생각된다.

기초치의학이나 임상치의학의 경우도 이런 근본적 선비정신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존경받는 齒科醫師가 되기 위한 도덕적 가치관의 확립이 절실하다.

회무를 맡은지 어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나름대로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 했으나 남겨 놓은 것이 별로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학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의료분야의 시장주의 도입과 관련하여

임 경 빈*

1. 서 론

최근 이 사회에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문제가 거론되면서, 인술이란 개념도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게 된다.

물론 이 문제가 대두된 배경이 세계적인 추세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인술이란 개념의 변화와 연관짓는 것 자체가 성급하고 시기상조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의료분야의 시장경제원리도입을 둘러싼 찬·반의 논란이 이미 대두된 이상 그 솔직한 이유와 원인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의술이 오로지 신(神)만이 창조해낼 수 있다는 생명을 실험·과학을 통하여, 혹은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능력하에 생물학적으로 정면에서 다루려는 특수술식인지라, 일찍이 일정부분 신성성과 도가적 차원의 인(仁)을 수반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의술에는 비종교적·비영리적·비정치적인 길을 걷도록 사회적 요청이 따르고 있었다.

재론의 여지없이 생명의 존엄성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되므로, 사회구성원 건강의 중요성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던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인류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의술은 어느

새 공공성을 띠우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 대상이었다.

그런 때문인지 의술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대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생님'에 준하는 호칭으로 불렸고, 고소득층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덕목이 존재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부르주아'계층이 형성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들이 얹히다 보니 그 실상여부를 떠나 어느새 이 나라에서 의사들의 보편적 생활 수준이 그들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정당한 보상의 결과인지, 신성한 인술의 가면을 쓰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산술의 결과인지가 인구에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인심이 각박해지고, 보는이의 시각다양성에 따른 차이가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어느 틈에 순전히 타의에 의해 인술을 베푸는 생명의 은인과 인술의 가면을 쓴 알뜰한 장사꾼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미묘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로부터 인술속에 산술이 감추어져 있는지, 본질을 벗어난 탐색의 눈초리마저 따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아무튼 이 사회의 현실 인심이 이와 같다면 의사들은 몸가짐에 각별히 유의해야 했다. 하나, 둘 의사들의 일탈행태가 드러날때마다 전체가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되는 때문이었다.

*치과의사학회 명예회장, 신라치과의원 원장

그러다가 국민개보험제-마이카시대 도래 등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으로 증가되는 시기까지라는 전제하에-가 도입되었다. 여기에 이른바 ‘의·약 분업파동’이 겹쳤다. 이에 따른 병·의원의 도산을 증가추세를 막고자, 의사들의 처방이행을 확립하고자, 환자의 불이익을 줄여주고자 의사들은 반대하였다. 하지만 의사들은 어의없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싸움을 마다않는 이익추구집단으로 부각되어 버렸다.

차제에 의사들의 직업의식을 자극하면 그들간의 경쟁에 불이 붙어 병을 치료하는 기술의 극대화가 추구되며,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물론 양질의 고급의료공급이라는 일석삼조의 기대가 영리병원설립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부른 한가지 이유는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튼 비영리병원이든 영리병원이든 두 병·의원은 모두 의료기관이다. 때문에 이제 의료란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2. 의료의 본질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의료란 의약품, 기자재, 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의술의 3대 요소가 결합되어 개개인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여 재활을 돕고 건강을 증진시켜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일련의 시도이다.

서양의료를 중심으로 이 3대요소중 의약품과 기자재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때문에 이 두 요소는 마땅히 상품성을 지닐 수 밖에 없고 지녀야만 한다.

그러나 의술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다. 대체로 30여년에 걸쳐 연마와 터득이란 과정을 요하며, 아직까지는 인술로 자리매김되어 공공성을 띠우고 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의료는 의술과 달리 이미 명백한 상품성과 공익성의 결합체이다.

하지만 의료에서 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사회는 의료의 공익성 즉 인술의 구사측면을 요구하며, 강조하는 바람에 분명히 간직되어 있음에도 의료의 상품성 측면의 중요성은 늘 간과되기 일쑤였다.

특히 위독한 환자의 절박한 상황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급한대로 의료의 치료기능측면에 우선 관심을 가지도록 만든다. 그 때문에 먼저 환자의 생사여부에, 그 다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환자의 입, 퇴원비, 그리고 모든 생명을 구해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의술의 한계 등에만 대단한 과심이 집중된다.

그러다 보니 의술이 제공될 공간이나, 의술이 육성, 보호될 환경조성문제등은 오히려 진료현장에서조차 아예 고려밖의 대상처럼 취급되기 일쑤였다. 때문에 입퇴원 수칙까지 제정되어야 했다.

이같은 상황이 의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심히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동안, 결국 의료란 그저 상당한 수준의 봉사과 희생이 수반되는 분야라는 멋대로의 인식을 많은 사람들의 뇌리속에 자리잡게 만든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는 청진기, 온도기, 혈압계, 주사기, 헤드 미러의 시대도 아니며, 더구나 모든 나라가 저렴하지만 양질의 고급의료공급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마침내 ‘의료의 딜레마’가 찾아왔다. 인술은 개개인의 열정과 도덕성에 입각한 봉사정신에 의거할 수 있겠지만 의료는 다르기 때문에 마주치게 되는 난관이다.

그렇다 해서 의료분야에 상업주의가 스며들어 실존주의에 입각 의료의 상품성과 댓가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인술은 의료를 떠나게 되는게 시간문제일 뿐이다.

둘이켜 볼 때 인류 문화의 발전과정은 인류의 욕구가 충족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 예로 인류의 수명장수욕은 마침내 장기이식술의 놀라움을 깨닫고 확인했다. 장기 이식술의 발전, 만연은 장기기증을 넘어 장기매매로 이어지고 장기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장기

공급과 장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 사이에서 상업성 의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게 될는지 예측이 쉽지 않다. (마치 전장 등에서 대량 발생시 환자구호수칙에 입각하듯 환자를 분류하게 되지 않을까?)

3. 한국의 의료전달 체계

한국의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인의 공급원은 주로 입학정원제의 대학이다. <그 밖에, 복지부가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외국인 의사로서 국내활동이 허용된 경우, 면허취소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입학한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후 국민개보험제도에 3원-1차, 2차 3차 의료기관-제로 나뉘어 의료분야를 이끌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기관은 아직까지 모두가 사회로부터 공익성을 요구받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까?

대학에 입학한 후 학업이 끝나기까지 남성의 경우 징집이 보류된다.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면 군의관으로 임관된다. 자금 조달이 가능해 의원을 개설할 때 신고제여서 허가제 보다는 용이하다. 비영리기관이라 영업세로부터 자유롭다.

그밖에 사회부터 막연한 선망의 대상직종이며, 전문 지식인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동료 의사들로부터 약간의 의료비절감이 고작이다.

이들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첨병역할을 하지만 자신은 물론 종사원의 의료보험료까지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므로 자비로 국방에 임하던 옛날이 나라의 병역제도를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원대한 꿈을 안고 적지않은 자본을 들여 공부하고 의원을 개설하고 나면, 그 때부터 의원의 운영, 자신의 생계, 자녀의 교육에서부터 품위유지, 자신의 노후대책까지 몽땅 의원의 수입에 의존해

야 한다. 더구나 당국으로부터의 비영리적 공익성 기관임으로 해서 갖가지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면 힘들여 개원하는 순수 민간의료진은 얼마나 갑갑할까?

그 위에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만만치 않은 조세부담이 따른다.(단 외국으로부터 의료기자재 도입시 실수요자로서의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나이트 작금의 의사들이 가슴아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이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다.

그런데 고소득층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물려받은 재산없는 이 나라 남자의 경우, 오로지 한우물을 파면서 두더지같은 오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이 뒷 길러 시집, 장가 보내고 외국 몇 번 다녀왔고, 4,50평형 아파트 하나에, 별고장없이 굴러다니는 중형차 한 대, 전업주부인 부인과 둘이서 굶지않고 살아갈 것 같은 큰 빚 없는 여생, 하지만 무엇에 쫓기는지 모처럼 찾아나선 고도 경주도 주마처럼 하루에 휘익 돌아보고 그쳐야 한다.

그래도 이정도면 성공사례에 속한다. 새내기 의사들에겐 꿈일 뿐이며, 나이 50이 지나면서 입학 동기중 벌써 유명을 달리한 경우, 애초에 다른 분야로 뛰쳐나간 경우, 몸져 누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은 경우, 한눈팔다 실패한 경우, 원인모르게 현장을 떠난 경우, 사기당한 경우, 이민간 경우 등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동기가 약 23%이다. 여기에 약 5% 내외의 공직에 몸담은 경우까지 합치면 이들이 대학입학 정원의 약 28%가 된다.

그러니까 나이 50대 이후 나머지 72%정도가 이 나라의 민간의료진으로써 의료공급원인 셈이다. 이 비율을 전 진료현장으로 확대한다면 이 나라 의료공급원이 대략 80%가 순수 민간 의료진에 떠 맡겨져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입학정원의 70%수준은 도태율을 감안할 때 하여 후일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80-90%에 해당

된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의료공급은 거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실상이 고스란히 들어난다. 이는 곧 이 나라 복지정책의 한 축인 의료의 역할이 제도와 규제에 의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체제하에서 규제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의료보건정책이 건강하려면 의료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한 무엇보다 먼저 공공의료공급비율의 확대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4. 영리병 · 의원 설립허가와 의료분야의 국제경쟁력.

의료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란 매우 매력적인 바람직스러운 목표이다.

국내로는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국외로는 노벨의학상을 비롯 각종 종합 의학학술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역원정진료효과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유학생이 밀려들며 국내석학들의 각국으로부터 초빙특강 등으로 지속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비용의 자급수준을 능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부에 일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내심 탐을 내는 목표이다. 하지만 그 목표달성이 쉽지 않아 쉽게 발설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목표를 위해 도전해볼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의료인들이 눈에 뜨인다.

우선 한국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분야대학에 진학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고유 문자를 창안한 바 있는 조상의 후예들이다. 은근과 끈기를 지니고 있다. 서양의학의 전래 100여년만에 오늘

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을 아우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구비된 바 이므로 육성, 배출기간과 배출후 의료인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하에 지원, 육성한다면 종래와 같이 방치나 규제속에 각개약진하던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야의 발전은 의학과 의술의 유기적인 협력에서 비롯되는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의료분야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면 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활용 및 의약품과 기자재의 원활한 공급방안이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짜임새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분야가 각개약진하면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보이는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육성배출된 후 이민등으로 빠져나가는 5% 정도의 고급인력을 붙잡는 것도 인력확보와 교육비의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이다. 이렇게 작아보이는 부분부터 챙기며, 우선 공공의료진의 확대방안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하겠다. 그래서 공공의료진의 공급비율이 적어도 입학정원의 50-55%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의료복지 위한 정책상 제도와 규제를 풀더라도 의료공백이란 상황은 초래되지 않아야 하는 때문이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영리병원설립이 허가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속성상 민간의료진중 유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일수록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이 예상되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건강보험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제고시키기로 했다. 때문에 공공의료진의 활약이 없이는 국내 의료공급환경이 종전보다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의미한다. 의료비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 같다. 여기에 인기과를 선호하는 '의료편향성'도 나타나고 있어 '절름발이 의료'의 기미가 엿보

인다. 이같은 상태에서 의료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가 도모되기는 어려울는지 모른다.

따라서 의료분야의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란 지나간 옛노래일뿐 21세기 반석위에 올라선 한국의 실정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아무래도 결코 쉬운 예상들이다.

특히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의료분야 개개인의 각개약진에 따른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찾는 것보다는 의료인의 육성, 배출과 유능한 공공의료의 확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짜임새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방안에서 찾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평범하지만 진리에 가깝지 않은가?

5. 결 론

이제는 이 나라의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인 지망생들과 그들 자녀들의 교육문제등 노후까지를 국가가 보장하는 적절하고 기술적인 배려가 도저히 따라줄 수는 없는 문제인지 해당분야의 정책 담당자들은 심사숙고해야할 때에 이른 것 같다. 위의 내용에 준하는 배려가 따라준다면 많은 지망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공공의료진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공공의료진이야말로 의료분야에 상업주의가 도입되었을 때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그것대로 흔들리지 않고, 보장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 분명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소득 1만 수천불시대, 경제 양극화 추세,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추세속에 이러한 버팀목도 없이 덜컥 의료분야에 상업주의가 도입되면, 그래서 의료분야의 경쟁력을 유발, 국제경쟁력까지 강화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건강보험제도하에 힘겹게 유지되던 의료의 공익성마저 부분적이나마 빛을 바래기 시작하면, 이나라 의료분야가 점차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는지 예측조차 어렵다.

하얀 도포를 입고 그래도 히포크라테스의정신

을 구현해 보려는 공익성이 간직된 작금의 의사들 시대보다 무지개빛 도포를 입고 생명을 담모로 첨단기술을 구사할 상업성의사들 시대에 외국으로부터 물려들 환자들과 국내부유층 환자들의 안도하는 긴 숨소리에 비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러나 갈곳이 줄어드는 저소득 계층 국내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때문이다. 특히 상업주의가 스며든 교회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여러 가지 상념이 밀려왔다 쓸려나간다.

물론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원정진료로 인한 연간 1-3조원 가량이라는 국부의 유출 방지, 의료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목표 달성이 이 시점에서 영리병원 설립허가와 민간의료보험도입이란 방식이 아니라는 달리 도리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찾아내야 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위한 또다른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국내 영리병원설립허가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내 의료인들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의료발전이 뒤따르고 나아가 의료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촉매가 되리라는 견해는 의료분야에서 각개약진에 의한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곧 의료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견해와 당장 맞서고 말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확한 현실 파악의 토대위에 의료의 공익성과 상업성의 비중을 적절히 배합하여 조율육성을 도모할 때 비로소 저렴하고도 양질의 의료공급될 수 있고, 지구상에서 의료선진국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남북치의학 용어에 관한 제언

이 병 태*

대한치과의사학회가 주최한 중국구강의학계 방문이 1990년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있었다.

이것이 한국치의학계와 중국구강의학계와의 첫 공식 접촉으로 기록된 행사이다.¹⁾²⁾

당시 학회 내외에서는 우리 한국은 중국(中華人民共和國)과 국가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내 일부 관광회사에서는 중국관광단을 모집했고, 일반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홍콩을 경유해 중국을 다녀오고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회장은 베이징(北京)을 경유해서 평양 통천 금강산을 방문했다.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199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치과대학이나 그 대학원에서 공산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료제도를 강의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필자는 대한치과의사학회 주최 중국구강의학계 방문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의료제도, 의료인들의 사회적 지위 특히 치과의사들의 학문적 수준에 관심을 가졌다.

중국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고 유일한 국립치과대학인 北京口腔醫學院(북경구강의학원)을 비롯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구강의사들의 학술과 임상수준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중국 방문을 시작하고 15년을 지나오면서 중국 동포치과의사들의 변화도 직접 보았다.

중국동포(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한다.) 치과

의사들과는 한국어로써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구강과학(stomatology)이라던가 치의학(dentistry)의 전문성을 토론하거나 지식 및 임상적 견해를 말하며 듣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한국 치의학계에서 통용되는 '치아'를 중국 동포 치과의사들은 '이발'이라고 쓰고 있음을 발견한 1990년, 필자는 문화와 학문의 상호단절에 충격을 받았다. 이 '이발'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용어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한 것은 2003년 평양에서였다.

평양 양각도호텔 서점에서 구입한 사전^{3,4,5)}으로 직접 확인했지만 치의학용어가 적지않게 한글로 되어 있다. 이런 사정은 전문서적과 교과서⁶⁾에서 볼 수 있다. 북측이 모든 분야의 용어에 관한 한글화 작업은 1950년 분단 이후에 곧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사회주의 국가이다. 그 의료제도 교육제도 등에 따라 구강의학 교육과 그 과정은 의과대학에서 한다. 한국에서처럼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지도 않고 또, 치과의사를 배출하지 않는다.

북한의 구강의학용어를 보면, 영어권 용어는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 러시아(구소련)식 발음을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

중국은 인구 세계제1위가 말하듯 그들에게는 소수이지만 세계 선진 각국에 산재한 유학인들이 있고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改革開放)정책으로 모든 분야가 발달을 이룩하고 구강의학관

*이병태치과의원 원장, 본 학회 명예회장

런 출판물이나 치과재료 생산도 높은 수준으로 점차 진입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2003년부터 13차에 걸친 방북(訪北) 일정을 통해 북측의 참사 안내원 지도원 등 각계인사와 의사 구강의사 간호사 보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 기회를 통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적지않은 현황을 새로 알 수 있었다.

북한 구강의사들은 국제공용어인 영어용어를 거의 알아 듣지 못하고 한국 치과의사들이 일상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술토론이나 강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수년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1년간 연구받은 연변조선족자치주 박모 구강의사와 강북삼성병원에서 3주간 연수받은 윤모 구강의사가 영어용어 해독에 당황했고 경우에 따라 지식과 술식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 적절한 예이다.

필자는 2005년 하반기부터 매월 한두차례씩 방북해 북측 구강의사와 함께 환자를 보면서 임상에서 사용되는 기구 재료 등에 관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구강의학 교육을 한글로만 교육했기 때문이다.

국가적 필요에 따라 유럽지역 등에 구강의사를 보내 내식보철(implant prosthesis) 또는 도재전문가(ceramist)도 확보하고 있으나 이것이 북한내 전국적이지는 못하다. 극히 일부에서 영어용어가 통하지만 대부분의 구강의사들과는 영어용어가 통하지 않는다.

현재 북측에서 사용하는 순 한글용어 몇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갈구리 clasp
- ② 끈은손잡이 straight handpiece
- ③ 교합기웃팔 upper member
- ④ 구강얼굴외과 dentofacial surgery
- ⑤ 굵은손잡이 contra angle handpiece

- ⑥ 거꿀원형뿔개 inverted cone bur
- ⑦ 끼우개 inlay
- ⑧ 다리이 bridge
- ⑨ 덧틀이 overdenture
- ⑩ 뿔개 bur
- ⑪ 령도이발 zero degree teeth
- ⑫ 엄이 ivory
- ⑭ 이몸염 gingivitis
- ⑬ 원형뿔개 round bur
- ⑮ 이삭기 dental carier
- ⑯ 이속 dental pulp
- ⑰ 치수덮기 pulp capping

inlay를 끼우개, overdenture를 덧틀이, dental caries를 이삭기(치아우식증)라 하여 얼핏 어색한 느낌을 준다. 억지로 만든 용어처럼 들렸으나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 용어들은 엉뚱해보이지만 순수 한글을 맞대인 용어들이다. 한국에서는 inlay를 별다른 용어를 채택하지 않고 그냥 inlay라고 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국에선 감체(嵌體)라고 쓴다. 필자는 이 감체¹⁰⁾를 채택¹¹⁾하기로 하였다.

ivory를 상아(象牙)로만 알고 있던 필자의 눈에 ‘엄이’라는 단어가 뜨었다. 이 글을 쓰고 또 자료⁷⁾를 정리하던 중 사전^{3,8)}을 보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 대학 졸업후, 평생 사전편찬 작업에 몰두해왔던 이력이 있건만 ‘엄이(北)’ 또는 ‘엄니(南)’을 알고서 천학(淺學)에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만일 남과 북의 치과의사가 만나 색(color)에 관해 대화하거나 토론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로가 각각 상아와 엄이로만 알고 있었다면 토론이 가능했을까.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결국은 서로 이해하는 선에 도달하겠지만, 남에서는 엄이를 모르고 북에서는 아이버리(ory)를 모르므로 답답한 순간이 있게 될 것이다.

periodontitis의 경우, 북측에서는 치근막염⁹⁾으로 하였으나 최근 의학사전에서는 치주염³⁾으로

바꾸어 올려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 한글용어도 한국이나 일본 용어로 동화하거나 학문적 개방으로 진입한 것으로 일단은 보인다.

중국에서는 치주염을 아주염(牙周炎)이라 하므로 인접국가간 접촉과 교류는 치의학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내 번역 출판물에 생각없이 쓰여지는 용어 중 순화대상이 많아서 번역출판 관계자들은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남측치과의사회나 단체에서 북측구강의사를 초청해도 그들은 올 수 없고, 상호간 상대지역을 여행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며 군사적인 면을 가만할 때 그 교류는 '하늘에 뜬 구름잡기'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극히 제한적이며 소수이나마 이따금 방북하는 남측치과의사들이 있어 마치 에베레스트 등정소식처럼 또는 남극과 북극 탐험성공뉴스처럼 간간히 북측의 소식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최근 남북치의학교류협력위원회(南北齒醫學交流協力委員會)가 북측강원도고성군온정리에 있는 온정인민병원에 치과진료소를 개설하고 월 2회씩 방문진료 및 임상술식전파에 성공적으로 뜻밖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매월 남측 치과의사들과 기사 그리고 기공사가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의 방북허가를 받아 인도주의적 치의학을 교류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대아산(주)가 진료팀의 숙박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을 포함하는 한민족 치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북치과의사들이 공동으로 발전하려면 우선 서로 사용하는 말을 잘 알면서 원활한 임상지식 교환과 학술교류를 이룩하기 위해 국제공용어인 영어용어를 공유할 일이 지름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구강보건증진(口腔保健增進)과 임상진료, 학술과 치과기자재 산업분야, 제

도 개선과 발달 등을 꾀하려면 우선은 서로가 상대가 사용하는 용어를 숙지하는 일은 기본이고 첫 발돋움인 것을 현단계에서는 강조한다. 이는 자주 마نان서 신뢰를 쌓고 임상술 함께 하며, 마치 Na^+ 와 Cl^- 이 세포막을 오가면서 균형을 이루고 변화에 대처하듯 자연스럽게 성사되어야 한다. 때로는 인위적으로 이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학자들은 한글/조선어 치의학용어를 택하는 데는 과감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신중해야 하며, 지나치게 어색해도 안되며 동떨어진 듯 해서도 안될 것이니 무한정 난해해도 안될 것이어서 오로지 다듬는 일과 고르고 고르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날말은 꾸밈새없이 정갈스럽고, 여러 날말이 연결된 용어는 그 꾸밈새가 있다하여도 영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1권 제1, 1990.
2. 이병태 : 北京, 延邊 그리고 白頭山, 患賢閣, 1992년, 2판.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 영조일 의학대사전, 2002년
4. 외국문도서출판사(평양) : 영조사전, 6판, 1991년
5. 외국문도서출판사(평양) : 조영사전, 12판, 1991년.
6. 의학출판사(평양) 보철기공학(보건간부학교용), 1976년
7. 이병태: 북한구강의학 용어집(N. korean-English(근간))
8. 신기철, 신용철 :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제13판, 1994.
9. 과학백과사전 출판사(평양) : 고려림상의전 1,2 2002.
10. 이병태 : 이치의학 사전(근간)
11. 이병태 : 풍속발치(風俗拔齒)에 관하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004: 제23권 제1호, pp.7.

佛牙舍利(Tooth Relic) - 文獻을 통해 본 齒牙形態學的 접근

愼 德 緯*

서 론

舍利를 梵語로는 Sarira라 하며 身骨遺身, 靈骨이라 번역한다. 한량없는 6바라밀 공덕으로 생기며, 戒, 定, 慧로써 熏修하여 생기는 것으로 매우 얻기 어렵고, 제일 가는 복전이 된다.

사리에는 全身舍利, 碎身舍利, 生身舍利, 法身舍利, 佛牙舍利 등의 구별이 있다. 전신사리는 다보불과 같이 전신이 그대로 사리인 것이며, 쇠신사리는 여래가 멸도한 후에 전신사리나 쇠신사리를 남겨 두어 人과 天이 공양하게 하는 것이다. 법신사리는 대승, 소승의 일체경전이다. 본래는 身骨이나 주검을 모두 사리라 하였는데, 후세에는 화장한 뒤에 나온 작은 구슬모양으로 된 것만을 사리라한다.¹⁾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정신적 유산인 불경(佛經)을 비롯하여 불치(佛齒), 손톱(佛爪), 머리카락(佛髮), 옷, 바루(鉢), 지팡이 등을 법사리(法舍利)라 칭하면서 예배대상으로 삼았다.²⁾

佛牙舍利는 부처님이 涅槃하신 후 佛牙舍利 2顆가 수습되어 1顆는 중국으로 1顆는 스리랑카로 전해지게 되었다.³⁾

2顆의 불아사리를 중심으로 치아형태학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론

1. 中國의 佛牙舍利

1) 석가 사리의 분배에 관한 전설

현족(現足) 수도과 옆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도파가 있다. 8명의 왕이 사리를 분배한 곳이다. 앞에 돌기둥이 세워져 그 사적을 새겨 적어놓고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닛자바나(涅槃般那:荼毗)를 마쳤다. 8국의 왕들은 사병(四兵:步, 馬, 車, 象)을 갖추고 와서 드로나(直性: 香姓이라고 譯됨. 부처님에게 귀의한 바라문으로 사리를 원만하게 분배한 공에 의하여 분배에 사용한 병을 얻어 탑을 세웠다고 함) 바라문을 보내어 쿠시나가라의 역사(力士:말라족)에게

“천제, 인제의 도사인 여래가 이 나라에서 적멸하였으므로 멀리서 사리의 분배를 부탁하러 왔습니다.”고 말하게 했다. 역사는, “여래가 내려오신 곳은 말라 종족이 사는 쿠시나가라입니다. 세상

*중앙치과의원 원장

1. 金光明經: 眞弘 ‘한국의 불아사리탑과 외국의 불아사리 중심으로’

2. 金禮庚, ‘韓國의 舍利莊嚴’,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通度寺聖寶博物館, 2000, p95참조

3. www.fobusa.com/holytooth.htm. 2000년

“According to Buddhist historical records, after the Buddha’s Nirvana, his body was cremated, and his two remaining teeth were discovered in the ashes.

One of them was taken to Sri Lanka, the other one to the ancient kingdom of Udayana(in present Pakistan), and from Udayana it was brought to Kotan(present Hetian country of Xinjiang in China)”

의 훌륭한 도시를 잃고 중생의 자부(慈父)를 잃었습니다. 여래의 사리는 우리가 공양하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왕들은 먼길에서의 내방도 헛수고가 되어 사리를 입수하지 못하게 되겠으므로, 더욱 겸손하게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예로서 부탁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군대가 가까이에 있음을 아시오.”하고 말했다.

드로나 바라문은 소리를 높여, “잘 생각해 보시오. 대비세존은 힘써 복선을 닦고 영겁에 드셨습니 다. 자세하게 들은 바를 상기해 보건대, 여기에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사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등하게 8개로 나누어 각기 공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군대를 동원할 일이겠습니까.”고 말했다.

역사들은 그 말에 따라 곧 똑같이 8등분하자고 했다. 그러자 제석전은 왕들에게, “천인에게도 분배는 있어야 한다. 힘을 믿고 싸우지 말도록” 하며 당부했고, 아나바타프타 용왕, 무칠린다(目支鄰陀) 용왕 엘라파트라(醫羅鉢呾羅) 용왕도 함께, “우리로 빠뜨리지 마시오 만약 힘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소”하며 나섰다. 드로나 바라문은 “떠들지 마시오.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하고 곧장 3등분했다. 하나는 제천(諸天), 둘은 용중(龍衆), 셋은 인간계에 주면서 8국이 그 하나를 겹쳐서 분배받았다. 하늘도, 용도, 인왕도 불타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다.⁴⁾

2) 중국에서의 불아사리 역사

佛牙舍利는 즉 석가모니의 牙齒이다. 傳에 의거하면 세존의 荼毘를 한 후 전신이 다 化해서 細粒의 사리가 나왔다. 오직 그 부분 중에서 牙齒가

손상되지 아니해서 불아사리라 칭한다.(법, Dantadgatu), 大般涅槃經 後分 卷下에 기재된 것에 의거하면, 세존을 다비할 때에 大慈力이 있어, 金剛體가 부서지면서 細末의 사리가 나왔는데, 오직 치아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남았다고 한다. 帝釋天이 부처님의 턱과 口上에서 牙齒利를 취하여 천상에 돌아가서 탑을 일으키고 공양하였다고 전한다. 그밖에 觀虛空藏菩薩經에 기록된 것을 보면, 도리천성(忉利天城)의 北 駕御國 중에 불아탑이 있다고 하였다.

고승 法顯傳에는 師子國(스리랑카)條에 기재되, 왕사성 중에 佛牙精舍가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一枚 불아가 烏菟國(今 인도 북부)에 전해졌다고 한다. 南朝僧 法顯이 劉宋 원휘(元徽) 三年(475)에 서역에 가서 경을 가지고 우전국(于闐國)에 이르러서, 烏菟國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아 一枚 및 사리 五十粒을 얻었다고 한다.⁵⁾ 귀국한 후 南齊 왕도 建業(南京)에 住하면서 불아를 밀장하고 공양 예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永明七年(489)에 文宣王이 꿈에 感夢을 받고서, 비로소 이일이 道俗人에게 전해지고, 그 후에 불아는 定林寺에서 공양하고 받들었다.

梁武王 普通3년(522) 불아를 도적 맞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었다. 隋代에 이르러 불아가 陝西 長安에 출현하여 크게 공양하여 받들었다. 唐末 五代時에 전란이 자주 일어나서 드디어 불아는 전전하여 북방 遼의 燕京(北京)에 이르게 되었다. 遼史 道宗記에 기록된 것을 보면, 道宗 咸雍七年(1071)에 즉 北宗 神宗 熙寧 四年에 불아를 靈光寺 招仙塔에 봉안하였다. 淸 光緒二六年(1900) 8국 연합군이 북경에 쳐들어와서 寺,塔이 전화에 허물어지게 되었다. 이 전란 후에 僧衆이 발굴정리 하던 중, 塔基 중에서 불아가 든 石函을

4.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원저, 권덕수 옮김, 우리출판사, 1994. p184-185

5. 梁高僧傳 卷十三. 法苑珠林 卷十二 등 참조

찾아내었는데, 函內에 다시 하나의 沈香木盒 있었는데 합 위에 ‘釋迦牟尼佛 靈牙舍利, 天會 7년 4월 22일기, 善慧書’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天會’는 五代 十國 중 北漢(951-979)의 연호이다.

그밖에 宋高僧傳에 또한 道宣이 佛牙舍리를 感得하게 된 것을 적고 있다.

“西明寺에서 밤에 길을 걸어 가다가, 앞 계단에서 발을 빼끗하였는데, 누가 부축을 하여, 허공을 밟았으나 아무 해가 없었다. 누군가 하여 돌아보니 소년이었다. 도선이 문득 묻되, ‘어떤 사람인데, 한밤중에 여기에 있는가?’ 소년이 말하되 ‘某는 보통사람이 아닙니다. 즉 毘沙門天王의 아들입니다. 護法하기 위하여 화상을 옹호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도선이 말 하되 ‘빈도가 수행하는데 일 없이 태자만 번거롭게 한다. 태자는 威信自在하니 서역에 佛事 지을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 원하건데 가져왔으면 하네.’ 태자가 말하되, ‘某가 불아가 있는데 보배를 손안에 간직한 지 이미 오래이나, 頭目を 버리는 것과 같아 감히 奉獻하지 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별안간에 도선에게 주었다”

도선이 感得한 불아는 위에 기록한 불아와 양자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혹은 아무런 하등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자료를 제시한 것도 자세하지 아니하다. 이 불아는 그 후 河南 開封의

相國寺 灌頂院에 받들어 모셨는데 宋 太宗이 일찍이 幸臨하여 예배하고, 아울러 烈火로 가열하여 시험하여 보았는데 광채가 더욱 현현하게 나타나므로 태종이 佛牙讚을 짓고 아울러 관정원을 改稱하여 法華院이라 하였다. 그 후 宋 眞宗이 이 불아사리를 맞아들여 開寶寺 塔 아래에 모시고 공양하였으며, 또 하나의 佛牙讚을 지었다. 治平(1065)에 英宗이 佛牙讚碑를 조립하였다. 崇寧 3년(1104)에 徽宗이 불아를 궁중 안으로 맞아들여 공양드리고 또한 다시 讚을 지었으며, 그 후로 또한 역대로 조정에서 崇信하는 바가 되었다.⁶⁻⁸⁾

3) 중국 불아사리의 치아형태

부처님이 열반(涅槃) 하신지 2500여년이 지났지만 부처님의 유신진체(遺身眞體)를 대할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머리카락(髮), 손톱(指爪), 발톱(足爪), 정골(頂骨), 안정(眼睛), 치아(齒牙), 등과 다비(荼毘) 후에 나온 진신사리(眞身舍利)일 것이다.

이런 여래(如來)의 발(髮), 조(爪), 골(骨), 정(睛), 치(齒), 사리(舍利)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처님의 치아는 과연 어떻게 생겼으며 凡人的 치아와는 어떻게 다르며 그 모습과 형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傳하는 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여래(如來) 가신지 오랜 세월이 흘

6. 眞弘. ‘韓國의 佛牙舍利塔과 外國의 佛牙舍利 中心으로’. p807-808

7. www.fobusa.com/holytooth.htm 2000

“One of them was taken to Sri Lanka, the other one to the ancient kingdom of Udayana(in present Pakistan), and from Udayana it was brought to Kotan(present Hetian country of Xinjiang in China). During the 5th century, a Chinese monk from the Southern Qi dynasty named Fa-Xian(424-298A.D.) traveled to Khotan and brought the Holy Tooth back to Nanjing, which was then the Southern Qi capital.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China under the Sui dynasty, the Holly Tooth Relic was sent to the new capital Chang-an. During the period of the Five Dynasty(when central china fell into a chaotic state), the Tooth Relic was moved from place to place until it reached Yenjing(present-day Beijing) of the Liao dynasty in the North. The “Chronicle of Emperor Dao-zong” in the History of the Liao Dynasty, Vol. XXII, contains a record relating the enshrinement of the Buddha’ Tooth Relic in the Zhao-xian Pagoda in the 8th month of the 7th year of Xian-yong(1071 A.D.). this is how the Shakyamuni Budda’s Tooth Relic came to Beijing.”

8. 宋高僧傳 卷十四(大正. 50卷. p791上)

렸고 일반 중생의 발심(發心)으로 부처님의 진체(眞體)를 대한다는 것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어서, 직접 접할 수는 없고 1300여년전 인도와 서역을 17년간 섭렵하며 불치(佛齒)를 직접보고 쓴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를 통해 부처님의 치아를 간접적으로나마 대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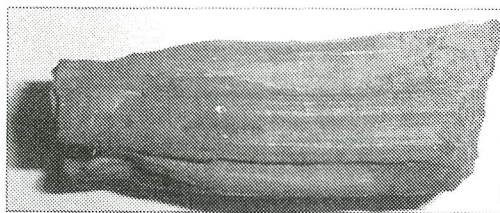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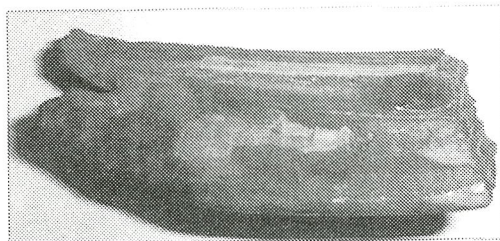
대당서역기는 12권으로 된 110개국의 옛 인도, 서역의 지기(志記)인 동시에 사기(史記)이다. 부처님의 치아에 관한 사항이 그곳에 8곳이나 나와 지금의 우리에게 부처님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어 다행한 일이다.

그러면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부처님의 치아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 又,有佛牙, 其長寸餘, 廣八九分, 色黃白, 質光淨, --(卷一 縛喝國)
- 또 부처님의 치아가 있다. 그 길이가 1촌 남짓 넓이 8-9푼으로 황백색이며 질은 맑고 빛난다.⁹⁾--(1권.발크국:지금의 Baikh)
- 僧伽藍中,有佛齒,及,劫初時獨覺齒.長五寸餘,廣減四寸--(卷一 梵衍那國)
- 승가람 가운데 부처님의 치아와 겹초때 독각의 치아가 있다. 길이가 5촌 남짓하고 넓이가 4촌이 못된다.¹⁰⁾--(1권.바미안국)
- 伽藍內 有釋迦菩薩 弱齡 乳齒. 長餘一寸--(卷一 迦畢試國)
- 가람내에 석가보살 어렸을 때의 유치가 있다. 길이가 1촌 남짓하다.¹¹⁾--(1권 카피시국: Kabul 북동쪽)
- 精舍寶函中, 有佛牙, 長餘寸半, 殊光異色朝變夕--(卷五 羯若鞠圖國)
- 정사의 보함 가운데 부처님의 치아가 있다. 길

이가 1촌반이고 특수한 빛과 기이한 색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¹²⁾--(5권 카나쿠브라국:지금의 Kanauj Kanoj)

- 又從北天國有一寺 各多摩三磨娜 佛在之日 來此說法 廣度人天 此寺東澗裏 於泉水邊有一塔 卽佛所剃頭及剪爪甲 在此塔中 此見有三餘僧寺有大 支佛牙及骨舍利等--(往五天竺國傳)
- 또 북천추국(자란다라)에 하나의 절이 있는데 이름이 다마사바나(多摩三磨那:答 蘇伐那: Tamasavana)다.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여기에 와서 설법을 하여 사람과 하늘을 널리 제도하신 곳이다. 이절의 동쪽 시냇가 곁에 하나의 탑이 있는데 부처님의 머리털과 손톱을 이 탑안에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3백여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절에는 대벽지불(大辟支佛:獨覺-스승없이 혼자 깨달은 부처:Pratyeka Buddha)의 치아와 뼈와 사리 등을 보관하고 있다.(왕오천축국전)¹³⁾



2000년 북경에서 공개된 불아사리

9.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원저. 권덕주 옮김. 우리출판사. 1994년. p37
 10.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원저. 권덕주 옮김. 우리출판사. 1994년. p41
 11.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원저. 권덕주 옮김. 우리출판사. 1994년. p47
 12.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원저. 권덕주 옮김. 우리출판사. 1994년. p145
 13. 往五天竺國傳. 혜초 원저. 한정섭 편저. 불교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6년. p43

2. 스리랑카(師子國)의 佛牙舍利

1) 스리랑카 불아사리 전래

인도 陵伽國(Kalinga)의 佛牙城 왕자 陀多와 왕비 稀摩梨가 佛陀의 左邊聖牙 一枚를 密藏해 가지고 도망하여 스리랑카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에서 佛牙와 관계 있는 역사가 적혀 있다. 佛牙가 스리랑카에 이르렀을 때 바로 吉祥雲色王(巴 Siri-Meghavanna, 362-389 재위)의 재위시였으며, 佛牙는 최고의 예경을 받게 되고, 국가의 至寶로 지정되었다.¹⁴⁻¹⁷⁾

2) 스리랑카 불아사리의 역사

佛牙史(巴 Dathavamsa)에 기록 된 것에 의하면, 이 佛牙는 4세기경에 인도의 陵伽國(巴 Kalinga)으로부터 스리랑카에 들어오면서 최고의 예경을 받게 되었다. 14세기초에 남인도 塔米爾人

(Tamil)이 침입하여 불아를 劫취(劫取)해갔다. 파락카마바하왕 3세(ParakkamabahuIII) 때에 화평 방식으로 佛牙를 도로 맞아들였다. 그 후에 스리랑카는 전란이 그치지 아니하여, 불아도 따라서 옮겨가며 밀장(密藏)하게 되었다.

1505년 포르투갈 사람이 섬에 들어와서 불교신앙을 극력 박해하였으므로, 王都 또한 전전하여 갠디시로 옮겨졌다. 그리하여 佛牙寺를 건립하고 치아를 봉안하고 공양하였다. 1560년 포르투갈 사람이 佛牙를 가지고 인도 커어(Goa)지방으로 가서 불에 태워 버렸으나, 수년 후에 佛牙는 다시 출현하였다. 혹 불살라 버린 佛牙는 가짜였다고 한다.¹⁸⁻²¹⁾

義靜의 ‘西域求法高僧傳’ 券상에 기록하기를 明遠法師가 일찍이 師子州(스리랑카)에 이르러서 비밀히 佛牙를 가지고 귀국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스리랑카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능욕당하고, 스리

14. 佛光大辭典 三卷 p.2616 참조

15. <http://en.wikipedia.org> 1988

"According to Sri Lankan legends, when the Buddha passed away, his body was cremated in a sandalwood pyre at Kusinara in India and his left canine tooth was retrieved from the funeral pyre by Arahat Khema. Khema then gave it to King Brahmadatte for veneration.

King Guhasiva of Kalinga secretly sent the Sacred Tooth Relic to Sri Lanka with his daughter, Princess Hemamali, and her husband, Danthakumara

According to this legend, Hemamali hid the Relic in her hair ornament and the royal couple disguised themselves as Brahmin in order to avoid discovery. They set sail in a ship and, after facing the hazards of sea travel, finally arrived in Sri Lanka in 371."

16. www.mysrilanka.com/travel/history/toothrelic.htm 1988

"The tooth relic was brought to Sri Lanka in 371 A.D. from India. In India there was a king called Buhasiva. He has instructed his son in law Dhantha supposing if he lost in the battle take the tooth relic to Sri Lanka where his friend was living. He handed over this tooth relic to his son in law Dhantha. The King lost the battle and his daughter princes Hemamali and son in law Dhatha brought the tooth relic to Sri Lanka, and it was hidden in her knot of hair for safety."

17. Dharmaratna Herath 'THE TOOTH RELIC AND THE CROWN' 1994 P.

"The term 'Tooth Relic' denotes the left canine Tooth of Buddha which was transferred to Sri Lanka in about A.D.310 and is at present at Kandy"

18. 眞弘스님, 한국의 치아사리탐과 외국의 치아사리를 중심으로, p809

19. Inside guide Sri Lanka 1999. p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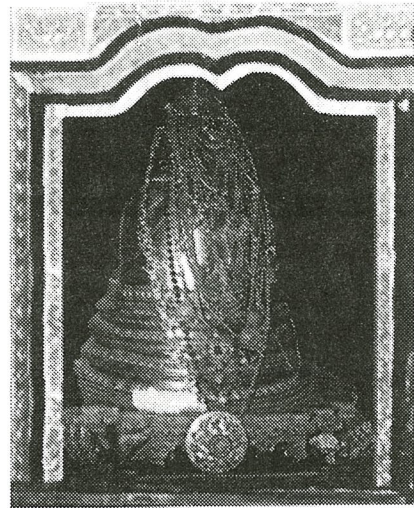
"Buddha's left eye-tooth remained in the Kalinga Kingdom in India, until seven centuries after his death, when its future was thrown into doubt by a militant resurgence of Hinduism. It is said that it fell into Hindu hands, but attempts to destroy it with a sledge-hammer succeeded only in breaking the hammer. The Hindus gave it back."

랑카 사람은 불아에 대한 방수를 더욱 엄밀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 明本 ‘大唐西域記僧伽羅國附記’ 및 스리랑카 佛教史(C. Dipayaksorn)에는 明의 사신 정화가 일찍이 스리랑카에 이르러서 佛牙를 취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고대 스리랑카 사람은 佛牙를 Datha-dhatu라고 칭하였으며, 지금은 Dalalda라고 칭하고 있다.²²⁾

3) 스리랑카 불아사리의 치아형태

스리랑카의 佛牙舍利는 左側 犬齒(left canine)로만 알려져 있고,^{23,24)}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1815년 켄디(Kandy)가 멸망한 후 英國이 佛牙舍利를 取得하였을 때 英國은 佛牙舍利함을 열었다. 금으로 둘러싸인 變色된 物體가 확실히 齒牙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5cm(2 inches)길이의 이것은 사람의 齒牙라기보다는 악어의 齒牙에 가까웠다고 한다.²⁵⁾

스리랑카의 佛牙舍利는 스리랑카 켄디(Kandy)의 佛牙寺에 현재 밀장된 상태로 소장돼 있다.²⁶⁾



스리랑카 불치사 사리함

3. 석가여래의 치아형태

佛本行集經 第九에는 신달타 태자가 三十二相과 八十種好를 갖추었다고 되어있다. 三十二相과 八十種好란 부처의 훌륭한 모습을 大分 하면 32

20. Inside guide Sri Lanka 1999. p212

"When Marco Polo arrived at the behest of Kublai Khan in the late 13th century, invaders from south India had carried off the Tooth and no Sinhalese King could control the situation. King Parakrama of Polonnaruwa fought a war to get the Tooth back from the Tamils, and from the on a special bodyguard was assigned to look after it"

21. Inside guide 1999. p212

"In the 16th century, the Portuguese captured the Tooth and shipped it to Goa where, before the assembled eyes of the Portuguese viceroy, a bishop and numerous dignitaries, it was pounded to dust, the dust burnt, and the ashes thrown into the sea. That should have put paid to the Tooth, but apparently not so. The remnants re-assembled themselves on the seabed, enabling the Tooth to fly back to the island of its own accord."

22. 出三藏記集 卷二 卷三 '法苑雜錄原始集目錄 卷九 참조

23. Dharmaratna Herath 'THE TOOTH RELIC AND THE CROWN' 1994 P.1

24. Inside guide Sri Lanka. 1999년. p212

"Buddha's left eye-tooth remained in the Kalinga Kingdom in India, until seven centuries"

25. Inside guide Sri Lanka 1999. p212

"It was while the Tooth was briefly in unbelieving British hands after the fall of Kandy in 1815 that the caskets were opened up. They decided that discolored object encircled by a gold thread was definitely a tooth, but that at 5cm(2 inches) in length it was more likely to have come from a crocodile than a human being."

26. Dharmaratna Herath 'THE TOOTH RELIC AND THE CROWN' 1994 P.1

가지이고 細分하면 80가지란 뜻이다. 이 중 부처의 치아형태에 관한 사항만 기술해 본다.

三十二相 중 22번째는 부처님의 치아가 40개라고 하고 있다.

三十二相 중 23번째는 齒齊密相으로서 부처님의 치아가 고르고 균등해서 크지도 작지도 않고 들쭉날쭉하지도 않고, 치간이 밀접해서 一毫도 융납되지 않는다고 한다.

三十二相 중 24번째는 四牙白淨相으로서 송곳니가 눈처럼 희고 깨끗하고 빛나며 뽀족하고 날카롭고 견고하기가 金剛과 같다고 했다.

大般若經 第三百八十一에 의하면 八十種好相 중 치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八十種好相 중 34번째는 모든 치아가 바르고(方正) 흰색(鮮白)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35번째는 모든 송곳니(諸牙)가 둥글고 희고 빛나고 깨끗하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예리해 진다고 했다.²⁷⁾

결 론

2顆의 佛牙舍리를 文獻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부다(Buddha)가 涅槃한 후 2顆의 佛牙舍리를 수습했다.²⁸⁾

2. 2顆의 佛牙舍리 중 1顆는 中國으로 1顆는 스리랑카(Sri Lanka)로 전해졌다.^{29,30)}

3. 中國으로 간 1顆의 佛牙舍리에 齒牙形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처님의 치아가 있다. 그 길이가 1寸 남짓 넓이 8-9푼으로 황백색이며 질은 맑고 빛난다.--(대당서역기 1권.발크국:지금의 Baikh)³¹⁾

② 가람내에 釋迦菩薩 어렸을 때의 幼齒가 있다. 길이가 1寸 남짓하다.--(대당서역기 1권 카피시국:Kabul 북동쪽)³²⁾

③ 정사의 寶函 가운데 부처님의 치아가 있다. 길이가 1촌반이고 특수한 빛과 기이한 색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³³⁾--(대당서역기 5권 카나쿠 브라국:지금의 Kanauj Kanoj)

4. 스리랑카로 간 1顆의 佛牙舍리에 齒牙形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리랑카 캔디(Kandy)의 佛牙寺에 있는 佛牙舍리는 左邊 犬齒이다.³⁴⁻³⁷⁾

② 金으로 둘러싸인 變色된 物體가 확실히 齒牙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5cm(2 inches)길이의 이것은 사람의 齒牙라기보다는 악어의 齒牙에 가까웠다고 한다.³⁸⁾

27. 裴珖植 '佛敎典籍中 齒牙에 關한 이야기',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6권제1호 1985. p90

28. 眞弘스님 '韓國의 佛牙舍利塔과 外國의 佛牙舍利를 中心으로' p806

29. 眞弘스님 '韓國의 佛牙舍利塔과 外國의 佛牙舍利를 中心으로' p807

30. www.fobusa.com/holytooth.htm

31.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원저 권덕주 옮김 우리출판사 1994년 p37

32.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원저 권덕주 옮김 우리출판사 1994년 p47

33. 대당서역기. 현장법사 원저. 권덕주 옮김. 우리출판사. 1994년. p145

34. 眞弘스님 '韓國의 佛牙舍利塔과 外國의 佛牙舍利를 中心으로' p810

35. 僧達摩撰諦(Dhammakitti) 著 '佛牙史(Danthavamsa)' 참조

36. Inside guide Sri Lanka 1999년 p212

37. Relic of the tooth of the Buddha. http://en.wikipedia.org 1988년

38. Inside guide Sri Lanka 1999. p212

"It was while the Tooth was briefly in unbelieving British hands after the fall of Kandy in 1815 that the caskets were opened up. They decided that discolored object encircled by a gold thread was definitely a tooth, but that at 5cm(2 inches) in length it was more likely to have come from a crocodile than a human being."

5. 佛牙舍利의 齒牙形態가 一般 凡人과 비교하여
相異한 點이 있으나 지금까지 많은 王朝에서

崇拜를 하였고 信仰의 보배로 내려왔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佛牙舍利가 王權의 基本이 되
었다.³⁹⁻⁴⁰⁾

- ABSTRACT -

Tooth Relic -The Approach of the Buddha's Dental Morphologic Aspect through the Legend and the Record

Shin Duk Jae, D.D.S.

Joong ang Dental clinic

The results of the approach of the Buddha's dental morphologic aspect are the following.

1. After the Buddha's Nirvana, his body was cremated, and two remaining teeth were discovered in the ashes.
2. One of the Buddha's teeth was taken to Sri Lanka, the other one to the ancient kingdom of Udayana(in present Pakistan) and then to Xinjiang in China.
3. The length of the Buddha's tooth in China is about 4.5cm(oriental measure-1.5chon) and the width is about 2.4-2.7cm(oriental measure 8-9poon).
4. The length of the Buddha's primary tooth is about 3.3cm(oriental measure 1chon).
5. The color of the Buddha's tooth in China is bright and yellow-white.
6. The Buddha's tooth in Sri Lanka is a left canine.
7. The length of the Buddha's tooth in Sri Lanka is 5cm(2 inches).
8. The color of the Buddha's tooth in Sri Lanka is dirty yellow and discolored ivory.
9. The shape of the buddha's tooth in Sri Lanka is more likely to have come from a crocodile than a human being.
10. There is a difference the Buddha's tooth between a present human being. But the Sacred Tooth Relic came to be regarded a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living Buddha and it is on this basis that there grew up a series of offerings, rituals, worships and ceremonies.

39. 眞弘스님 '韓國의 佛牙舍利塔과 外國의 佛牙舍利를 中心으로' p808-809

40. Dharmaratna Herath 'THE TOOTH RELIC AND THE CROWN' 1994년 p162-163

우리나라 근대 간행물에서 보이는 ‘치과’ : 1894-1950

조영수*

1. 머리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 황제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국권을 강탈한지 꼭 100년이 흘렀다. 서양의 ‘치과’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 역시 1905년 무렵이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자리잡았던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사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共存)하였다. 1914년 ‘규칙’과 ‘취급수속’에 따라 이들은 식민지 경찰의료의 통제를 받았고, 검정시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사립(私立) 교육기관도 설립되었다. 식민지 시기 구강위생운동과 일부 저명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계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紙上)에는 무자격자들의 횡행(橫行)을 알리는 기사가 끊이지 않았으며 ‘의과’의 푸대접과 일반의 낮은 인식도 여전하였다. 해방 후 ‘조선’의 ‘치과’를 새로이 건설하려는 노력도 결국 타자(他者)에 의해 좌우되고 변형되는 모습을 보인다.

어느 시기에나 치과계는 균일(均一)하지 않고 중층적이며 다면적(多面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들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세기 말에서 해방에 이르는 근대 시기에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및 조선총독부 관보 등 사료(史料)에 나타난 ‘치과’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치과의료의 원형(原形)을 탐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대한제국시기

1) 치과의¹⁾, 입치사 개업광고

노다 오오지((野田應治, 1871~1930)는 조선에서 37년 동안 개업 치과의였으며 16세부터 인천공립의원에서 일했던 것을 합치면 60년 생애 중 42년을 조선에 거주하였다²⁾. 1894년 4월 제물포에서 한성 남대문통(通) 소공동 건너편 끝(越邊, 44번지)으로 이전한 노다치과의원 광고에는, 입치(入齒), 속치(續齒), 전보(填補), 발치(拔齒) 등 분야별 소개와 더불어 조선 여성을 겨냥하여 부의(婦醫)가 직접 치료(接治)하겠다고 명기한 것이 특이하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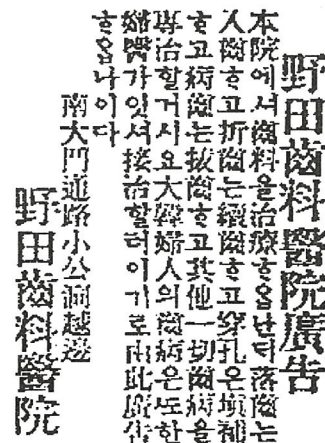


그림 1. 노다치과의원 광고

*백상치과의원 원장, 본 학회 총무이사

1. 이때부터 해방 이후(1949년)까지도 공문서가 아닌 신문 등에서는 ‘치과의사’보다 ‘치과의(齒科醫)’라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2. 1891년 귀국하여 1893년까지 다까야마(高山) 치과의학원에서 공부, 1893년에 제물포에서 개업, 1929년 귀국.



그림 2. 대한민보
1907.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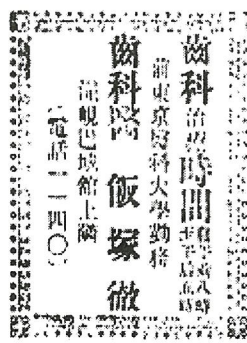


그림 3. 대한민보
1907.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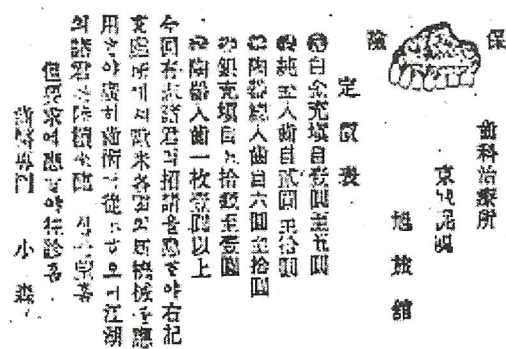


그림 4. 황성신문 1902.7.8

청일전쟁으로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을 뒤따라 민간인들이 급격히 들어오던 무렵, 노다는 신흥 일본인 주거지역 진고개(泥岬)³⁾로 이전한다. 1907년 11월 9일자 대한민보(大韓民報)에는 ‘야전 치과전문의원(野田齒科專門醫院)’ 광고가 실려 있다. 자신이 조선 유일의 치과의사이며(韓國 齒科醫 元祖), 1893년(명치 26년)에 창립한 사실, 전화번호(1047번), 남대문에서 이전한 새 위치(경성 본정 2정목 百冊銀行 건너편)를 알리고 있다(그림 2).

1905년 9월 한성병원에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귀국하였던 이이쓰가 데쓰(飯塚徹)는 1907년 2월에 다시 조선으로 와서 개업하는데, 대한민보(1907년 11월 12일)에 그의 개업광고가 보인다. 동경의과대학에서 근무했던 경력, 치료시간(아침 8시~오후 5시), 위치(泥岬邑 城館 위 부근) 및 전화번호(1140번)를 게재하였다(그림 3). 1907년 12월 5일자 대한민보에는 노다와 이이쓰가의 치과의원 광고가 나란히 게재되어 있는데 당시 조선에서 개업 치과의사로는 나라자끼 도오요오(梶崎

東陽)까지 포함하여 세 사람의 정립(鼎立)시대였다⁴⁾.

치과의사들의 개업 광고가 대한민보에 주로 실렸다면, 그들과 경쟁관계였을 입치사(入齒師)들의 광고는 주로 황성신문(皇城新聞)에서 볼 수 있다.

입치사 고모리(小森)가 경성 이현(泥岬) 옥(旭)여관에 차린 치과치료소(齒科治療所) 광고는 황성신문 1902년 7월 8일자 3면에 실려 있다(그림 4). ‘보험(保險)’이라는 글자와 더불어 틀니(denture) 그림을 넣은 것이 눈길을 끈다. ‘구미(歐米) 각국의 신(新)기계를 갖추고 요구에 응하여 왕진’까지 한다고 하였으며, ‘백금충전(白金充墳) 1~5원, 순금입치(入齒) 2~10원, 도기(陶器) 충입치 6~10원, 은(銀)충전 90전~1원, 도기입치 1매 1원 이상’, 이렇게 치료비를 세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아마도 이 수가는 치과의원보다 저렴한 수준이었을 것이며 고모리의 저가(低價) 공세는 인근에 위치한 노다치과의원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동안 조선에서 유일

3. 본정 1정목, 본통(지금의 충무로 1가), 입구에 일본영사관. 일본인 밀집 지역.

4.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二), 半島齒科界ノ鼻祖 野田應治氏事績(上). 朝鮮之齒界 1930; 1(2):

5. 이한수, 齒科醫史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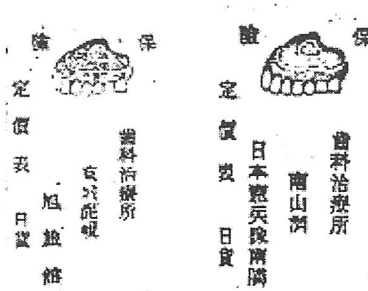


그림 5. 황성신문
1902.8.1.

그림 6. 황성신문
1902.11.17

한 치과의사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노다는, 결국 1903년 봄 '개업 10주년 기념'을 내세워 치료비를 대폭 인하한다⁵⁾.

이 광고는 조금씩 수정이 되어서 1902년 8월 1일자 3면 광고에는 진료수가 단위로 '일화(日貨)'를 표시하였고(그림 5), 1902년 11월 17일 3면 광고에서는 남산 일본헌병대 남쪽 부근(南隣)이라고 새 위치를 알리고 있다(그림 6).

황성신문 1905년 7월 1일자에 '입치충치기술소(入齒蟲齒技術所) 개시 광고'라는 제목으로 실린 광고의 주체도 입치사로 보인다. '소생이 종래로

고장(古莊)병원에서 시술하다가 이번에 자리를 바꾸어 신식 기계(新式器械)를 설비하고 정령(丁寧)한 의(誼)와 저렴(低廉)한 가



그림 8. 매일신보 1925.11.4

(價)로 실시상(實地上) 시술하오며 단 한국부인(韓國婦人)에 대하여는 소생(小生)의 우처(愚妻)로 대진하겠습니다... 경성 주동(鑄洞) 판정(坂井)병원 앞, 동경치과의학관(東京齒科醫學館) 졸업생 애생당편동(愛生堂片桐) 근백(謹白)'이라고 하였다(그림 7). 1920년대에 남대문동 일본생명빌딩에 판정(坂井)의원이 있었는데(그림 8) 위 입치충치기술소 앞의 판정병원과 동일한 기관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한편, 일본에 개업하면서 출장 형식으로 조선에 잠시 머물면서 치과시술을 하던 서양 치과의사들(J. Sauers, H. Slade, D. Nyes 등)의 광고는 주로 독립신문 영문판과 한글판에서 볼 수 있다. 그 중 1898년 10월 독립신문에 실린 Herold Slade의 광고는 국한문 혼용을 하던 다른 신문과 달리 순 한글로 되어 있어 특별한 느낌을 준다(그림 9). 일본 고베에서 개업 중 유람(遊覽) 겸 정동에 머물면

入齒蟲齒技術所開始廣告
○小生이從來로古莊病院에서施術
하다가今回到左記處로移居하여新
式器械를設備하고丁寧한誼와低廉
한價로實地上施術하고且韓國
婦人の對하여는小生の愚妻로代診
하게하오니僉君子는照諒愛顧하심
을望함
京城鑄洞坂井病院前
東京齒科醫學館卒業生
愛生堂片桐 謹白

그림 7. 황성신문 1905.7.1

○일본 신호에서 나 못치는 의원
(齒醫) 슬래드씨가 유람 겸 저금
대한치과를 정동영국인 애플리셔
집에 와서 유학하는데 오릭 유숙자
아나 하고 잠깐 있다가 갈려이니
그 동안에 나 못치려 하는 사람이
잇거든 그리로 가시오 나 들을 온
중 다시 문들어 박을 사들은 상오
十一시반 브터 오후 네시반 까지
보고 조공 못칠이는 상오八시반
브터 하오네시반 까지 본다나 나
못칠여 하는이는 속히들 가시오

그림 9. 독립신문 1898.10.

서 8시 반부터 4시까지 ‘니
곳칠여 흐는 이’ 또는 ‘니틀
을 온통 다시 문들어 박을
사름’은 속히 오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보 1907년 9월 7일
자에는, ‘치의고명(齒醫高明)’이라는 제목으로 1906
년 1월경부터 상주(常住)
서양 치과의사로는 최초였
던 Edward Hahn (韓大衛)
에 대해 ‘남대문 안, 전(前)
달성위궁(達城衛宮) 뒤에
거하며 치과업에 고명(高
明)하여 치통자(齒痛者)가 매일 기십명(幾十名)에
달한다’는 광고성 기사를 볼 수 있다(그림 10).

● 齒醫高明 ●
● 南大門內前達城衛宮 ●
● 後에居하는英國齒科醫士韓大衛氏 ●
● 齒科業에高明호所以로齒痛者가 ●
● 每日幾十名式運至을다이다 ●

그림 10. 대한민보
1907.9.7

2) 국제치과의사학회 초청

1904년 미국 St. Louise
에서 루지애나 주(州) 매
입 100년 기념 만국박람
회 (Lousiana Purchase
Exhibition, 그림 11)를 개
최하면서 미국 대통령 명
의로 세계 각국에 초청장
을 발송하였다⁶⁾. 같은 기
간에 제3회 세인트루이스



그림 11. 만국박람회

올림픽 (7.1~11.23)이 열렸을 뿐 아니라, 박람회
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던 제4차 국제치과의사학회
(International Dental Congress)는 역대 최고 규
모이자 중요한 회의였다⁷⁾. 우리나라에도 치과계
의 대표를 보내달라는 미국 국무장관 Jo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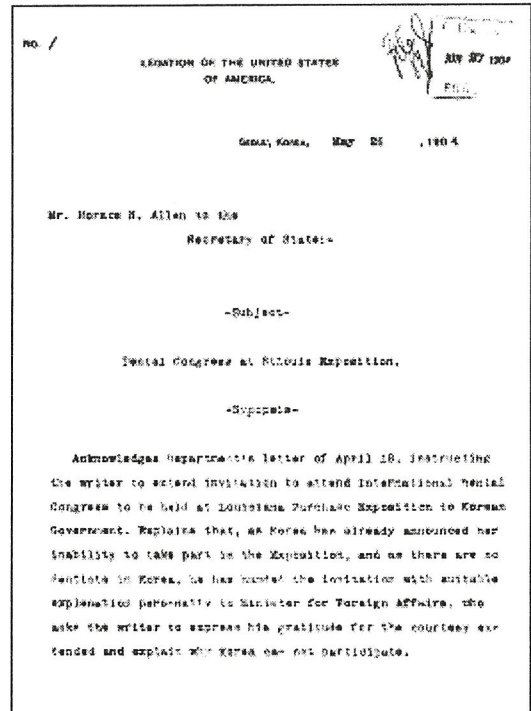


그림 12. 알렌의 외교 서신-1 (1904.5.26)

Hay의 서신이 미국 공사관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1904.4.18), 이에 대한 미국공사관의 회신은 당시
외교관이던 알렌(Horace N. Allen)의 명의로 작
성되었다.

알렌은 국무장관에게 ‘Dental Congress at St.
Louis Exposition’ 제하로 보낸 1904년 5월 26일
자 회신에서, ‘조선 정부는 이미 1903년 11월에 참
가 능력이 없음을 표명하였고, 한국 치과계가 이
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조선의 외부대신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선에
서 처리’하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대신은 초청에
대한 사의(謝意) 표명과 더불어 조선에 치과의사
가 없기에 대표를 파견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달

6. 박진빈. 만국박람회에 표현된 미국과 타자, 1876-1904. 미국사연구. 2003; 18:133~157.

7. Ring ME.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Mosby. 1985, p285.

8. 신재의. 한국치의학사. 2004, 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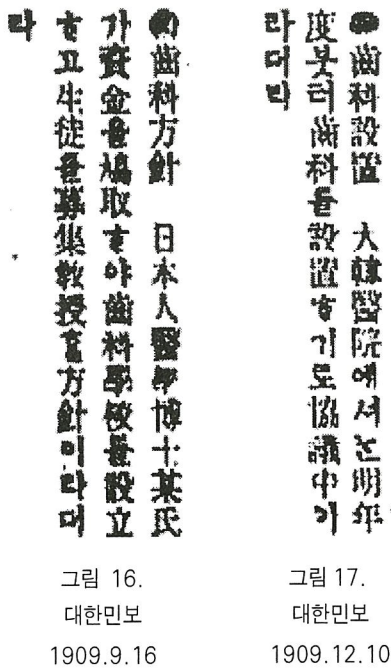


그림 16.
대한민보
1909.9.16

그림 17.
대한민보
1909.12.10

대한민보 1909년 9월 16일자에는 ‘치과방침(齒科方針)’이란 소제목으로 ‘일본인 의학박사 모씨가 자금을 모아 치과학교를 설립하고 생도를 모집 교수할 방침이라더라’고 하였다(그림 16).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의 경성치과학교 설립(1925년) 이전에, 또한 E. Hahn의 치과학교 설립의사(1909년)와는 별도로 일본인에 의한 치의학 교육기관 설립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보 1909년 12월 10일자에는 ‘치과설치(齒科設置)’라 하여, ‘대한의원에서 명년(1910년)도부터 치과를 설치하기로 협의 중이라더라’고 하였다(그림 17).

3. 식민지 시기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건너온 입치업자들은 치과 의사의 수를 훨씬 증가하여 늘어나고 있었다. 경술국치(庚戌國恥) 무렵 조선 전체를 통틀어 치과 의사는 10명 남짓한 일본인 뿐 이었던 시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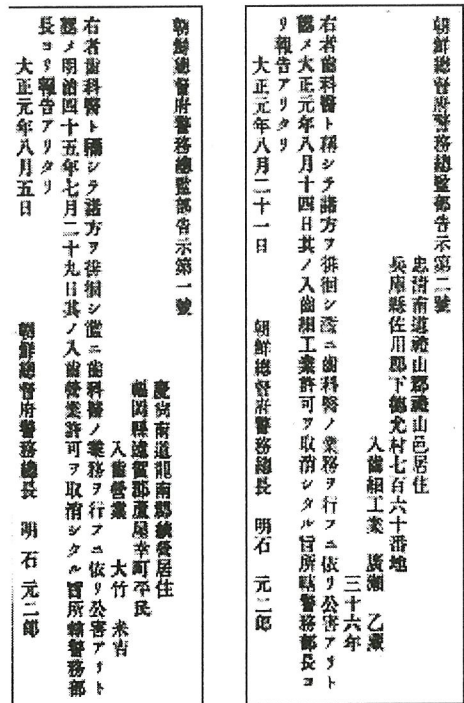


그림 18. 총독부관보
제7호 1912.8.7

그림 19. 총독부관보
제21호 1912.8.23

일반인들은 치과 의사와 입치사를 구별해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1912년 8월 5일 경무총감부 고시 제1호로 일본 북강현(福岡縣) 출신으로 경상남도 용남군 통영에 거주하는 입치영업자(大竹米吉)에 대해 ‘치과의(齒科醫)로 칭하며 제방(諸方)을 배회하고 람(濫)히 치과의의 업무를 행함으로 공해(公害)로 인정되어 명치45(1912)년 7월 29일을 기해 입치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관할(旨所轄) 경무부장(長)이 보고’하였다(그림 18). 이어 1912년 8월 21일 경무총감부 고시 제2호로, 일본 병고현(兵庫縣) 출신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에 사는 입치세공업자(廣瀨乙藏)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1912년 8월 14일을 기해 입치세공업 허가를 취소하였다(그림 19).

이러한 일들은 첫째, 위생 및 의업자(醫業者)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며, 둘째, 이미 경찰 및 헌병조직이 의업자를 관리하는 경찰의료체계가 갖추어졌음을 말해 준다.

1) 치과의사규칙, 입치영업취체규칙 제정 및 개정

조선총독부는 1913년 11월 15일 부령 100호~102호로 (관보 389호)로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의생규칙을 반포하고 19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의생(醫生)규칙(부령 102호)은 기존의 한의사들을 격하시켜 강제로 등록케 한 것으로, 20세 이상 조선인으로 2년 이상 의업을 행한 자로서 이력서 급(及) 민적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야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경무총장에 신청하게 하고, '3년 이상 의업을 수습(修習)한 조선인으로써 적당함으로 인(認)호자는 현금(現今)간 5년 이내의 기한을 부(附)호야 면허를 여(與)한다고 하여 한의학을 억압하였다.

의사규칙은 총 22조로, 부칙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기존 의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따로 신고를 하게 하여 통제하였다.

본령 시행전 의술개업인허장을 受호 자는 본령에 의호야 면허를 受호 자로 간주함

제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치 아니호 자라도 現今 간 기 이력 及 技倆을 심사호야 지역 及 기간을 정호야 此에 의업의 면허를 與호도 유함.

제1조 제2항의 의사로서 본령시행에 제호야 現에 의업에 종사호는 자는 본령시행일로부터 30일 내로 其 본적(외국인에 在호야는 其 国籍), 주소, 씨명, 제1조 각호의 자격 及 개업장소를 경무부장에 신고함이 가함

의사의 면허를 受치 아니호고 조선에서 종래 의업에 종사호는 외국인인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60일 내로 제3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호야 면허를 受치 아니호면 引責호야 의업을 함을 不得함

치과의사규칙은 총 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치과의사가 되고자 호는 者는 左의 자격이 有호고 조선총독의 면허를 受호를 요함

1. 치과의사법 제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호는 자 또는 치과의술개업시험에 합격호는 자
2. 조선총독이 지정호 치과의학교를 졸업호는 자
3. 외국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호며 또는 외국에서 치과의사면허를 득호는 자로 치과의업을 함이 적당함으로 認호는 자

내무대신이 하부호 치과의사면허증서 또는 치과의술개업면장을 유호는 자는 본령에 의호야 면허를 수호는 자로 간주함.

제2조 치과의사의 면허를 수코저 호는 자는 제1조 각호의 자격을 기록호는 서면에 호적 또는 民籍謄本 혹은 초본 及 졸업증명서 혹은 시험합격증서 또는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증서의 寫를 첨호야 조선총독에 신청함이 가함. 전항 신청자에 면허를 여호는 시는 치과의사 면허증을 하부함

제3조 치과의사는 친히 진찰치 아니호고 치료를 하며 또는 진단서, 처방전을 교부함을 不得함

제4조 치과의사는 법령의 규정에 의호야 필요가 유호는 자에 정상호는 사유가 업시 진단서, 처방전의 교부를 拒호를 不得함

제5조 의사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乃至 제7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자를 치과의사에 준용함.

제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호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料料에 處함

1. 면허를 수치 아니호고 또는 치과의업금지 혹은 정지의 처분에 위반호야 치과의업을 호는 자
 2.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호는 자
- 제5조에 의호야 본령에 준용호는 의사규칙의 규정에 위반호는 자에 대호야는 의사규칙의 벌칙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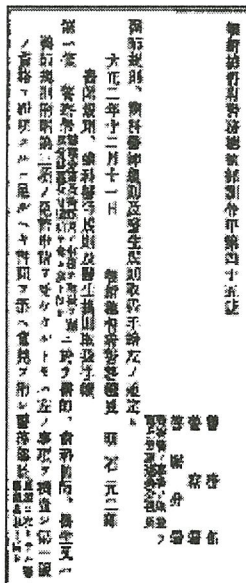


그림 20. 1913.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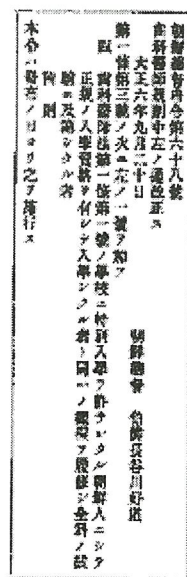


그림 21. 1917.9.20

부칙 본령은 1914년 1월 1일부터 比를 시행함.
입치영업에 관하는 규정은 경무총장이 此를 정함

1913년 12월 11일(관보 제 411호)에는 경무총감부 훈령 갑 제45호로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급 의생규칙 취급수속을 공포하여 “경찰서(경찰분서 급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憲兵分遣所를 포함)에서 의사, 치과의사, 의생의 면허신청을 받아 경무부장 (경성은 경무총장)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특히 의생에 대해서는 그 성행(性行) 내지 기량(技倆)을 심사하게 하였다(그림 20).

1913년 12월 25일(관보 제 423호) 경무총감부령 제5호로 입치영업취체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여 입치업자의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기간과 지역 또한 한정하여 면허를 받게 하였다.

제1조 입치영업을 하려는 자는 본적 (외국인에 在하는 기 국적), 주소, 씨명, 생년월일 및 영업지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력서 급 그 학력 또는 기량을 증명하는데 족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무총장에게 願出한다.

전항의 출원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5년 이내의 기간 내지 영업지역에 한해 입치영업면허증을 하부한다.

제2조 입치영업자는 입치, 齒拔 내지 입치치발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술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단 진통 기타 응급수당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부칙 1. 본령은 1914년 1월 1일부터 比를 시행함
2. 본령 시행전 입치영업, 입치세공업 또는 지역 및 기간에 한해 치과의업의 허가를 받고 현재 입치치발의 업에 종사하는 자는 본령에 의하여 면허를 受한 자로 간주함

3. 영업지역의 결정은 경무부장이 지정한다.

1913년 12월 29일 경무총감부 훈령 제46호로 입치영업취체규칙 취급수속을 공포하여, 경찰서(경찰분서 급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憲兵分遣所 포함)로 하여금 입치영업 신청자의 경력, 성행 및 기량, 출원지역 내 개업치과의사 또는 입치영업자의 유무, 기타 실태 및 면허기간 등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경무부장 (경성은 경무총장)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⁹⁾.

치과의사규칙과 취급수속은 몇차례 개정되었다. 조선총독부령 제 68호 (1917년 9월 20일)로 개정된 내용은, 기존 규칙 제1조에 제4호 ‘치과의사법 제1조 제1호의 학교에 특별입학을 허가받은 조선인으로 정규 입학자격을 가지고 입학한 자와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고 전과(全科)의 시험에 급

9. 1913년 12월 29일, 관보 제 4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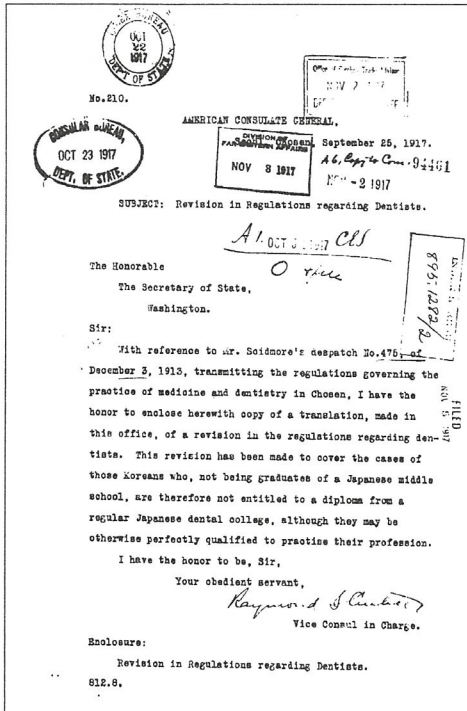


그림 22. 미영사관 문서 No. 210 (1917.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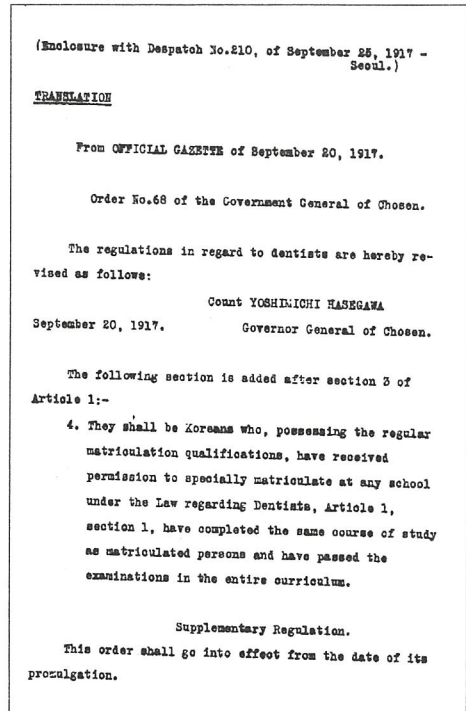


그림 23. 미영사관 문서 No. 210 첨부(영역)

제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그림 21). 미국 부영사 커티스(Curtice)는 이 개정 (Revision in regulations regarding dentists) 내용을 번역하여 1917년 9월 25일자로 미국 국무장관에게 알리는 서신을 보내면서, 일본 중학교 졸업자가 아닌 조선인의 경우 일본의 정규치과의학교를 이수할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림 22,23).

1921년 2월 14일(관보 제 2550호, 조선총독부령 제 26호) 치과의사규칙 개정은 치과의사 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제1조 제2항에 1호 '5. 조선총독이 정하는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추가하였다. 동시에 조선총독부령 제 27호로 치과의사시험규칙을 만들고, 치과의사시험

위원규정(조선총독부 훈령 제 8호)을 두어, 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 및 주사 1인으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시험을 치르려는 자는 1921년 8월 20일까지 원서, 첨부서류 및 사진을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에 제출하도록 고시하고¹⁰⁾, 1921년 9월 13일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제1차 치과의사 시험을 시행하였다. 이후 1929년까지 년 1-2회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또 경성치과의학교가 생긴 후로는 두 곳에서 시험을 치르다가 1930년 1월 17일(관보 제 910호, 조선총독부 고시 제12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지정된 후, 1930년 2월 28일 시험부터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 연2회 실시되었다. 1932년 1월 4일(관보 제 1495호, 조선총독

10. 1921년 6월 14일, 관보 제 2661호, 조선총독부 고시 제 137호

朝鮮總督府令第五十二號 齒科醫師規則中左ノ通改正ス 大正十三年九月十五日 齒、齒冠、鑲牙、架工、齒列矯正並口蓋補綴ノ技術ニ屬スル行為ヲ爲サムトスル者ハ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前項ノ申請書ニハ齒科學ノ課程ヲ設クル學校等ノ首長ノ作製シタル齒科ヲ修業シ且相當技能ヲ有スル旨ノ證明書ヲ添付スルコトヲ要ス 醫師ニシテ內務大臣ノ許可ヲ受ケ齒科醫業ヲ爲ス者ハ大正五年法律第四十四號附則ニ依リ齒科醫業ヲ爲スコトヲ得ル者ハ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タル者ト看做ス 第六條第一項第一號ノ次ニ左ノ一號ヲ加ヘ第二號ヲ第三號トス 二 醫師ニシテ朝鮮總督ノ許可ヲ受ケスシテ齒科專門ヲ標榜シ又ハ齒科醫業中金屬充填、鑲嵌、義齒、齒冠、架工、齒列矯正並口蓋補綴ノ技術ニ屬スル行為ヲ爲シタル者 附則 本令ハ發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本令發布前一年以上齒科專門ヲ標榜シ引續キ齒科醫業ヲ爲ス醫師ニ對シテハ第六條第一項ノ規定ヲ適用セス	朝鮮總督府令第五十二號 齒科醫師規則中左ノ通改正ス 大正十三年九月十五日 齒、齒冠、鑲牙、架工、齒列矯正並口蓋補綴ノ技術ニ屬スル行為ヲ爲サムトスル者ハ朝鮮總督ノ許可ヲ受クヘシ 前項ノ申請書ニハ齒科學ノ課程ヲ設クル學校等ノ首長ノ作製シタル齒科ヲ修業シ且相當技能ヲ有スル旨ノ證明書ヲ添付スルコトヲ要ス 醫師ニシテ內務大臣ノ許可ヲ受ケ齒科醫業ヲ爲ス者ハ大正五年法律第四十四號附則ニ依リ齒科醫業ヲ爲スコトヲ得ル者ハ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タル者ト看做ス 第六條第一項第一號ノ次ニ左ノ一號ヲ加ヘ第二號ヲ第三號トス 二 醫師ニシテ朝鮮總督ノ許可ヲ受ケスシテ齒科專門ヲ標榜シ又ハ齒科醫業中金屬充填、鑲嵌、義齒、齒冠、架工、齒列矯正並口蓋補綴ノ技術ニ屬スル行為ヲ爲シタル者 附則 本令ハ發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本令發布前一年以上齒科專門ヲ標榜シ引續キ齒科醫業ヲ爲ス醫師ニ對シテハ第六條第一項ノ規定ヲ適用セス
--	--

그림 24. 총독부관보 3628호, 1924.9.15

부 훈령 제3호)에 치과의사규칙 개정이 있었고, 1938년 8월 31일(관보 제 3488호, 조선총독부 칙령 600호) 의료관계자 직업능력 신고령 (부령 185호)으로 치과의사시험규칙을 개정(제3조 제3항 단서 삭제)하였다.

한편 1924년 9월 15일¹¹⁾ 치과의사규칙 개정으로 의사에 의한 치과의업에 대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그림 24).

제1조의 2. 의사로서 치과전문을 표방하거나 치과의업 중 금속충전, ○○, 의치, 치관계속가공, 치열교정 並 구개보철 기술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함.
전 항의 신청서에는 치과학 과정을 설치한 학

교 등의 수장이 작제한 치과 수업하고 단 상당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의사로 내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치과의업을 하는 자 또는 대정 5년 법률 제44호 부칙에 의한 치과의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본령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다음 1호를 추가하고 제2호는 제3호로 한다.

2. 의사로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치과전문을 표방하거나 치과의업 중 금속충전, ○○, 의치, 치관계속가공, 치열교정 並 구개보철 기술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자

부칙

본령은 발포일에 시행한다.

본령 발포전 1년 이상 치과전문을 표방하고 인속하여 치과의업을 한 의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입치사, 치과의사 등록과 면허

道京畿 道京畿 三十日 一 開城郡一圖 至同八年一月三十一日	入齒營業ノ部 免許日 登録番號 地 域 期 自大正三年二月一日 至同八年一月三十一日	氏名 李熙瑞 生 年 月 日 明治二十二年二月二十五
---	---	---

그림 25.
1914.2.3

1914년 1월 1일 반포된 치과의사/입치영업취체 규칙에 의거하여 의적(醫籍)에 등록된 최초의 기록은 입치사 제1호 이희서(李熙瑞)였다(그림 25)¹²⁾.

그는 1889년 생으로 1914년 1월 30일부터 등록되어 2월 1일부터 1919년 1월 31일까지 개성군 일원에서 입치영업을 허가받았으며 1919년 2월 5일에 다시 2년씩 허가를 받았다. 입치사 2호는 대구

11. 총독부관보 제 3628호, 조선총독부령 제52호

12. 총독부관보 제 460호 1914.2.3

江原道	二月二日	大府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崔益本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咸鏡南道	二月二日	咸鏡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申正休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咸鏡北道	二月二日	咸鏡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金成武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平安南道	二月二日	平安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高允道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平安北道	二月二日	平安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李煥星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咸鏡南道	二月二日	咸鏡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朴允文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咸鏡北道	二月二日	咸鏡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明治十九年二月二日	
江原道	二月二日	大府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崔益本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咸鏡南道	二月二日	咸鏡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申正休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咸鏡北道	二月二日	咸鏡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金成武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平安南道	二月二日	平安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高允道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平安北道	二月二日	平安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李煥星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咸鏡南道	二月二日	咸鏡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朴允文	明治十九年二月二日
咸鏡北道	二月二日	咸鏡北道一區	大正三年二月二日	明治十九年二月二日	

그림 26. 입치사 2호~12호

의 손계홍(1877년생), 3호는 밀양군 長○ 豊(1890년생), 4호는 경성의 임병규(1881년생), 5호는 경성의 윤정상, 6호는 함남 원산부의 安藤樂只, 7호는 개성군의 최익본, 8호는 경성의 신정휴, 9호는 김해군의 金成正之, 10호는 강계의 고윤도, 11호는 원산의 이경○, 12호는 철원군의 박윤문으로 이어진다(그림 26).

최초로 의사, 치과의사 면허증을 하부(下附)받아 의적에 등록된 자가 조선총독부 관보 제482호(1914년 3월 11일)에 게재(掲載)되어 있다. 의사로는 인허월일 1914년 2월 23일로 영국인 2명이 각각 1,2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치과의사는 의사보다 빠른 2월 5일(인허월일), 함석태(咸錫泰)씨가 제1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함태석(咸泰錫)으로 되어 있다. 제2호는 2월 8일 인허된 반총희사랑(反塚喜四郎)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치과의사이자 등록 1호로 귀중한 의미를 부여하는 함석태에 대한 기록이 총독부 관보에 오기(誤記)되어 있음은 다소 아이러니하다(그림 27).

또한 같은 관보(482호)에 <의적등록>과는 별도로 <의업면허>라 하여 역시 1914년 2월 중 의

氏名	開業場所	氏名	開業場所
飯塚 徹	京城本町一丁目五番	野田 應治	京城本町一丁目五番
注連内堅石	京城長谷川町一丁目無番	榑崎 東陽	京城南山町一丁目百六番
橋本清四郎	京城水樂町一丁目三番	中村 ヤス	京城水樂町一丁目三番

그림 27. 총독부관보 1914.3.

그림 28. 1914.3.31

업면허증을 받은 의사 명부를 게재하고 있다. 면허번호 1~12번 (면허월일 2월 6일 ~28일)에 해당하는 12명의 미국인, 영국인이 그들로, 면허지역과 면허기간(5년)을 지정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498호(1914년 3월 31일)에는 의사, 치과의사규칙 시행 이후 경성부내에 개업한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이름과 개업 장소를 명기해 놓았다. 의사는 총 79명, 치과의사는 6명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28). 1907년에 개업했던 이이쓰가 데쓰(飯塚徹, 경성 본정 1정목 이통(裏通) 無번호), 나라사끼의 후임으로 한국주차 군사령부에 있다가 개업한 시메우찌 켄세키(注連内堅石, 경성 장곡천정 1정목 무번호), 橋本清四郎(경성 영락정 1정목 2번호), 최초의 개업치과의사 노다 오오지(野田應治, 경성 옥정 4정목 50번호), 켄세키의 선임으로 한국주차군사령부에 있던 나라사끼 도오요오(榑崎東陽, 경성 남산정 2정

목 160번호), 그리고 미국치과의사면허를 가진 나까무라 yas(中村安子, 경성 영락정 2정목 3번호).

- 3) 경성치과의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매일신보 1921년 7월 5일자에 실린 <치과의 전문학교 / 어비신씨가 오십만원을 너여 설립한다고 히>는 기사 내용은 계획으로만 끝난 것으로 보이고 (그림 29), 조선총독부는 1922년 나기라 다쓰미의 사립(私立) 경성치과의학교를 인가해 주었다 (그림 30). 야간(夜間)으로 개교하면서 따로 교사(校舍)를 갖추지 못해 조선총독부의원 시료(施療) 외래진료소의 계단교실 및 일부 공간을 빌려 사용하였다(그림 31).

매일신보 1924년 5월 20일 자에 <치과의학교 부속병원 개설 / 진료는 실비> 기사가 보이며 (그림 32), 192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이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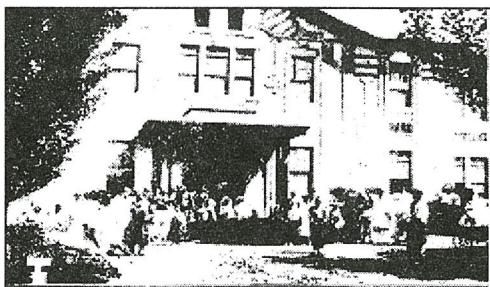


그림 31. 조선총독부의원 시료외래진료소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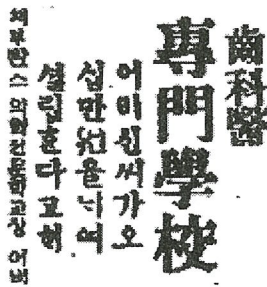


그림 29. 매일신보 192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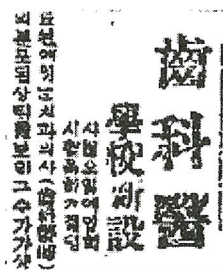


그림 30. 매일신보 1922.3.6

해, 학교를 관립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매일신보 1926년 10월 26일 자에 <치과의학교 관립 불능 / 보조금은 이배가 되었다> 제하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그림 33).

경성치과의학교를 관립으로 하고자 창립자와 교장이 ○심으로 운동○이더니 근일 학무국에서도... 잇슴으로 명년도부터 관립으로 이관하고자 예산을 개상하여 재무국에 회부하였는데 학교당국과 학생일동은 매우 김버하였스나 재무국에서는 각방면의 예산을 모다 부인하여 금일 법학전문 신축문제로 학생명휴사건이 소연한 때에 치과의학교의 관립이관이 될 말이나고 삭제해버렸다. 장리에 서광이 보히려던 동교도 희망이 문히졌스나 [각가운 장리에는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고 잇스며 그대신 총독부 보조금은 금년부터 이배가 되었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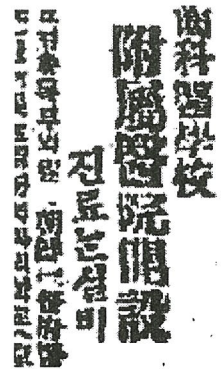


그림 32. 매일신보 1924.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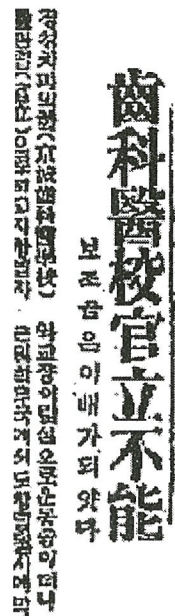


그림 33. 매일신보 1926.10.26

매일신보 1932년 2월 9일 자에 ' 시내 장곡천정에 잇는 경성치전에서 시가 이백원의 현미경 3대가 감축가티 분실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동교 병리학교실에 비치해 두고 병리 연구와 기타 00학생의 실습용에 사용하는 것인바... 찾지 못하고 급기야는 금 8일에 본 청사에... 동교 사정에 형통한 자의 소위인지도 모른다 한다'고 <치과의

전의 현미경(顯微鏡) 도설(盜失)>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림 34).

한편, 경성제국대학에는 1931년 4월 법과(法科)에 재학중이던 신현중(愼弦重 1910~1980), 조규찬(曹圭讚), 일본인 市川朝彦 등을 중심으로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反帝京城都市學生協議會)'가 결성되었던 기록이 있다¹³⁾. 1929년 경부터 조선 학생들 사이에 비밀결사의 성격을 띤 독서회가 있었는데, 이를 발전시켜 반제부(反帝部)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은 당시 관훈동(寬勳洞)에 있던 중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동교 1·2·3학년 독서회 소속 학생들을 포섭하기로 하고 내자동(內資洞) 신현중의 집에서 구체적 활동 방침을 정하고 항일결사 반제부를 조직하였다. 반제부는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조국독립을 목적인 비밀결사였다. 이후 경성치과대전, 제2고등보통학교, 경신학교, 법학전문학교, 기독교청년학관 등에 경성제국대학 반제부의 하부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별동단체로서 이형원(李亨遠)·안복산(安福山) 등의 주도로 적우회(赤友會)를 조직하고 출판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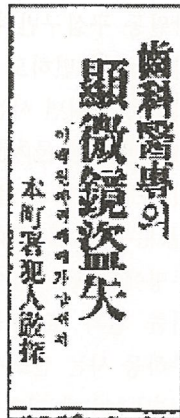


그림 34. 매일신보
193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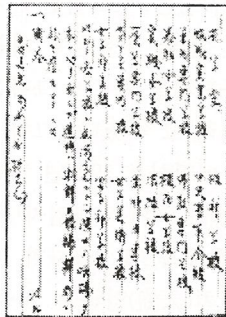


그림 35. 思想月報
1930 제2권 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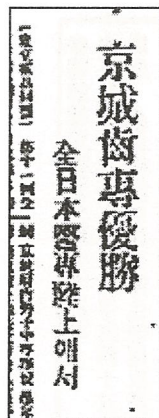


그림 36.
조선중앙일보
1936.6.8

를 지도하면서 성대독서회 뉴우스, 반제학생신문 등의 지하출판물을 발간하였다. 그러한 활동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신현중은 피체되어 1932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¹⁴⁾. 신현중의 20명에 대한 일제경찰의 심문조서, 예심청구서(豫審請求書), 예심종결판정(豫審終結決定), 판결(判決) 등에 보면 경성의 많은 학교들에 걸친 광범위한 조직에 경성치전이 빠짐없이 거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사상월보(思想月報) 1930년 第二卷 第九號에 실린 홍승유, 강문수 등의 심문조서(1930~1933)에도 (그림 35), 종로경찰서에서 경성지방법원 검사정/경무국장/경기도 경찰부장에 보고(通報)한 <조선학생회 집행위원회, 집회 단속상황 보고(集會取締狀況報告)>에도 '치과의전문학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6년 6월 8일자에는 <경성치전우승 / 전일본의전 육상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림 36). 경성치전 배구부는 해방 후에도 전국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다.

1944년 9월 21일 부로 '치과'에 관련된 총독부 고시와 훈령이 1건씩 있었다. '조선총독부 고시 제 1172호'의 내용은 '조선의료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다음 치과의학전문학교를 지정한다. 1944년 9월21일 조선총독 阿部 信行 경성

13. 조선총독부 경무국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3. 95-97쪽 (송 건호, 한국현대사론, 한국신학연구소, 1979. 222쪽에서 인용)

14.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出典: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6卷, 國家報勳處, 1988年, p.352.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9卷 687-688面 / 東亞日報(1932. 8. 17, 11. 25字)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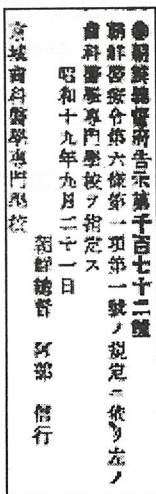


그림 37. 총독부
관보 5291
(1944.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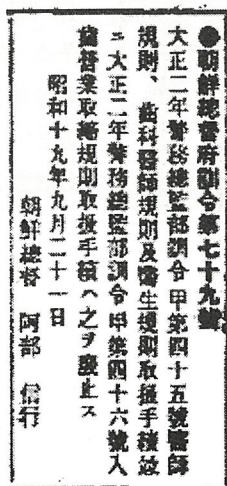


그림 38. 총독부
관보 5291
(1944.9.21)

치과의학전문학교’(그림 37), ‘조선총독부 훈령 제 79호’의 내용은 ‘1913년 경무총감부 훈령 갑 제45호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급(及) 의생규칙취급수속 병(並) 입치영업취체규칙취급수속을 폐지한다. 1944년 9월 21일 조선 총독 阿部 信行’이다 (그림 38).

해방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경성치전의 지정과 의업자 관련 규칙 폐지는 어떤 의미인지 분명치 않다.

4) 무자격자 문제

일제시대 신문에는 면허없이 치과치료를 하다가 적발된 무자격자들, 또한 입치사의 의료사고 및 치과의사 행세에 대해 보도가 여러 차례 보인다.

매일신보 1917년 8월 3일자 3면에는 <면허(免許)없이 입치(入齒)하고 / 구류 삼십일> 제하(題下)에 “경성 락원동 이백팔십구번디 거주 리보상 [京城 樂園洞 李輔相] (23)은 본년 오월 이십륙일

락원동 구십구번디의스 권병직의 집에서 면허도 업시 강원도 철원군 읍니면 사는 황희秀 [江原道 鐵原郡 邑內面 黃熙秀] 와 및 충북 보은군 읍니면 김태○ [忠北 報恩郡 邑內面 金泰○] 두명에 디하야 금이[金齒]를 박어준 일과 또 오월십구일에는 루하동 사는 신소사 [婁下洞 申召史] (48)에 디하야 면허도 업시 이를 닥고 또 옥도당기를 발너준 일이 탄로되야 종로경찰서에서 취도하고 리보상에 디한 테일(第一) 소위(所爲)는 과료 십원에 처하고 데이 소위에 디하야는 벌금 이십원에 처분하얏스나 돈이 업슴으로 두가지를 합하야 그디신 구류 삼십일에 처하얏다더라”고 하였다 (그림 39).

매일신보 1925년 11월 4일자 2면에는 <무허가(無許可)의 입치업자(入齒業者) 과료에 처분> 이란 제목으로 ‘요사히 시내 각처에 산재하야 잇는 입치(入齒)업하는 자들은 치과의사의 면허장도 업시 치과의사와 갓치 일반밖의 자(者?)를 취급하는 동시에 치과환자의 집을 단이면서 왕진료를 바듬으로 일반치과의사에 큰 영향이 잇슴으로 일반치과의사들은 이에 대한 강구칙을 연구하는 밖으로 치과의사회에서는 경기도 경찰부에 전기(前記)와 갓은 사실을 진정하랴하는 입치업하는 ○○○ 이란 자는 허가도 업시 동리에 사는 길정모(吉井某)에게 ○○○를 하야 주다가 동산경찰서원에게 발각되어 ○○○○ 동시에 과료 삼십원에 당하얏다하더라’고 알리고 있다 (그림 40).

매일신보 1928년 4월 13일자에서는 <치과의사 행세하는 입치사 엄중 취체(取締) / 종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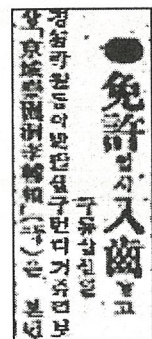


그림 39.
매일신보
1917.8.3



그림 40.
매일신보
1925.11.4

위생과 활동> 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림 41).

조선중앙일보 1933년 12월 2일자에는 <입치업자(入齒업자)의 실수(失手)로 환자(患者)가 사망(死亡) / 전문안한 사람이 치료타가 / 피해자(被害者)는 고소제기(告訴提起)> 라는 제목으로 '재령군 내호면 재경리에 거주하는 박덕수(朴德水)는 앞니 두 개가 아파서 시내 문상리에서 입치업(入齒業) 영업을 하는 김익선한테 여러 날을 두고 치료를 하여 ○○○○ 보았스나 ○○○○ 하여 일단 김익선... 지난 10일... 입원치료 하였스나... 치근화농증(齒根化膿症)으로 사망하였... 입치업만 하는... 발치(拔齒)...금전에만 눈이 어두워... 피해자 측에서는 고소를 제기할 모양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그림 42).

매일신보 1934년 5월 31일자 7면에 <무면허 입치 2중의 사기> 제하로, '창신동(昌信洞) 566 입치업자 리상○(李相○)은 지난 ○월 상순경 락원동(樂園洞) 김성녀(金性女, 29)에게 틀니 두 개를 맞추고 ○5원 50전을 바더더렸는데 약 1주일이 못되어 금빛이 ○○○○ 되어 ○○한 결과 18금이 아니고 ○○○○ 동시에 무허가 입치업이 ○○○ 엄중 취조를 받고 있다. 이자는 그동안 10여년을 두고서 입치업자로 가장하고 몽매한 부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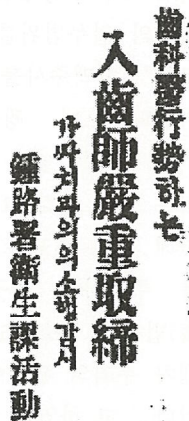


그림 41. 매일신보 192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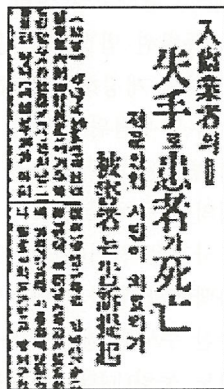


그림 42. 조선중앙일보 1933.12.2



그림 43. 매일신보 1934.5.31

을...’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림 43).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31일자에는 <붓잡힌 강도(竊盜) 일명(一名)이 범인에게 입치(入齒) 수술(手術). 5년동안 안드리난 가의사(假醫師)의 정체가 폭로된 시초> 제하로, ‘○ 박병○ 가치과 의학사 사건이 인지된 단서인즉 부내 종로서에서 몇 년전부터 인지하야

취조중인 절도범 최창식(崔昌植)이가 절도한 금품을 전괴(前記) 박병상에게 주고 금니를 해박은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가티 그 사건이 ○○한 것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림 44),

매일신보 1935년 11월 7일자 9면에는 <무면허 치과의 양명(兩名)을 검거 취조(取調)> 제하로, ‘지난번에는 가치과의학사(假齒科醫學士) ○○종로에서 체포된지 불과 몇일이 못되어 이번에는...’ 라고 하고 있다 (그림 45).

매일신보 1936년 8월 6일자 <면허없는 치과의사 십칠명 일제 검거 / 부산서에서 취체(取締) 개시> 제하로 ‘요사이 부산 시내에는 면허없는 치과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46).

매일신보 1939년 8월 25일 3면에는 <밀실을 설비한 무허가 입치업자 / 개성서(開城署)서 적발 검거> 제하에 ‘개성경찰서 사법계에는 [부내 남포정 422번지 전용근(全用根)의 집에서는 거실엽에다가 비밀실을 꾸며노코 순진한 가정부인들을 모아노코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바 만으니 법으로써 ○○달라는] 투서가 날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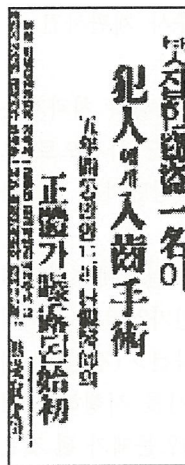


그림 44. 조선중앙일보 1935.10.31



그림 45.
매일신보
1935.11.7



그림 46.
매일신보
1936.8.6



그림 47.
매일신보
1939.8.25

서 동서에서는 삼○서장의 지휘로 21일 오후 10시경 형사대를 ○○하야 전용근의 집을 포위하고 검색한 바 거실엽에 비밀실에서 ○○ 입치(入齒) 기구를 전부 인수하였는데 이자는 면허도 없이 입치업을 비밀히 하여 왔다는바 ○○한 기구 등 속은 보통 치과병원과 가치 꾸며 놓아다더라' 라고 하였다 (그림 47). 이처럼 당시 신문 지상에 나타난 기사만을 보아도 전국적으로 무자격자가 만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치과의'의 살바르산 정맥주사 재판사건

이는 식민지 시기 '치과'에 관련하여 치과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최대의 관심을 끈 사건으로 보인다. 신문마다 재판정의 세세한 장면까지 묘사하고 있다.

대한매일 조선판 1933년 3월 12일자에 <치과의의 정맥주사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전남 여수의 치과의에 대한 의사규칙 위반 사건> (경성발) 기사를 보면, '치과의사가 정맥주사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의사규칙 위반이 되는가? 문제가 된 것은 전남 여수 서정 치과의 臼井常英(40)의 의사규칙 위반사건으로 피고는 작년 2월 3일부터 7월 17일

까지 이두백 등 2명에 대하여 치과의의 업무범위를 넘는 "살바르산" 정맥주사를 행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업무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유 없다"고 무죄를 언도한데 대해 도꼬루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여 대구이심(大邱覆審)법원에 공소하고 동법원에서 재차 무죄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고 하였다 (그림 48).

경성일보 1933년 5월 12일자 <천하의 시청을 모은 의사와 치과의의 영역 분쟁 / 과연 치과의의 월권행위인가 / 흥미있는 고등법원의 태도> 기사는, '작년 2월 전남 여수의 치과의 臼井常英씨가 치조농루 환자 수명에게 행하였던 살바르산 주사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넘는 치료행위로서 아연 문제를 불러일으켜 의사규칙 위반으로 고발되어, 1, 2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사 상고로 ... 판례는 대심원에... 고등법원에 여하한 신(新)판례가... 관계에서 비상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전선(全鮮) 업자가 주목, 산중(山中) 변호사 무죄론> '흥미있는 고등법원 제1회 공판은 가등(加等) 판사주임 심리 중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동법원 법정에서 증영 재판장계 옥명 검사입회 하에 개정하여 산중(山中)변호사는 치과의의 행위가 업무범위를 넘는 것이 아님을 당당히 1시간여 변론하고 무죄론을 주장하고 폐정 후 별도로 회의를 들어갔다.

사건은 전기(前記) 臼井 치과의가 소화7년 2월 자택에서 부산의 이두백에 대해 3회에 걸쳐 살바르산 주사를 행하고 동년 7월 ... 및 김성균 에 대해서도 동양(同樣) 주사를 행한 것으로 시작, 원래 살바르산 주사는 치과의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의사와 치과의의 업무경계 문제... 1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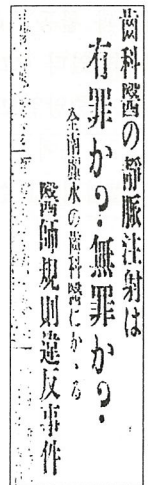


그림 48.
대한매일
1933.3.12

무죄판결 이유는 “피고 및 이두백은 그 진정 내지 감정서에 보이는... 피고가 그 주사를 행하는 것은 구강내의 치조농루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김성균은 현재도 그 증상이 인정되므로 증인 서구씨는 살바르산 주사의 영향이 구강내에 ○○한 치과 의의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진술하고, 증인 이근용씨 제공 치조농루 ... 경우에 살바르산 주사를 부저항도 증진 이 병증이 ... 인정될 때는 그 주사를... 양자의 논점에 당시의 김성균에 대하여 주사도 치아관계의 치료로서 인정되어 치과의의 업무범위를... “고 해석해 무죄가 되고... 공소 이유 없어 다시 무죄를 받고 검사 고등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그 상고이유는 주사가 구강내 질환에 유효한 사료...’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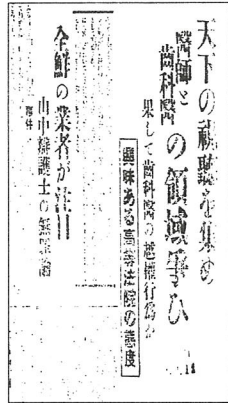


그림 49. 경성일보
1933.5.12

조선중앙일보 1933년 6월 29일 자는 <치과의 사건 귀결, 각 방면에서 주목 / 유죄이나 무죄이냐의 기로에 / 법원당국은 내무성에 조회> 제하에, ‘려수군 려수읍 서정(麗水郡 麗水邑 西町) 361번지 치과의사 구정상영(臼井常英)에 대한 의사규칙위반사건 -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606호....’라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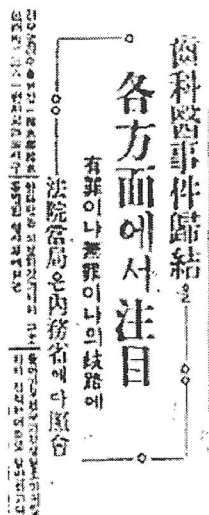


그림 50. 조선중앙일보
1933.6.29

조선(朝新) 1933년 7월 11일 자는 <살바르산 사용의 시비는 유유(兪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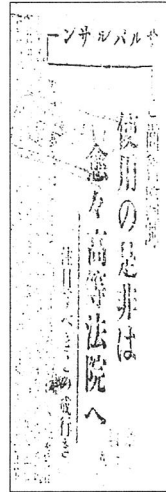


그림 51. 조선
1933.7.11

고등법원으로 / 주목 성행>제하에 ‘의사규칙 위반으로 ... 제2심에서 공판 지연되었던 그 결과 무죄의 언도를 받아... 이 판결을 불복하여 입회 검사의 상고로 상고 제1회 공판에서 사실 심리를 하는데 결정당시 치과 의사의 구강매독 치료사건으로 조선 ○○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본적 녹아도현, 주거 전남 여수 서정 361 치과의 臼井常英(40)에 관한 의사규칙 위반사건 제1회 공판은 10일 정오부터 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증명 재판장계, 옥명 검사 입대 및 피고인, 변호인 유증변호사 입회와 동시에 개정하였다. 조선의학계의 1문제가... 부(府)내 각 의사, 치과의사, 치과의, 전문학교 생도 등 다수 각 방면의 방청... 치과의의 살바르산 주사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지 각 방면에서... ’라고 하고 있다 (그림 51).

매일신보 1933년 12월 1일자에서는 <행림계(杏林界) 주목의 초점(焦點) / 치과의 한계 문제 / 1,2 심 가티 무죄가 될 것인가 / 최후상고심의 불안> 제하로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권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전남 여수 ○내 치과의사 臼井常英에 관한 의사규칙위반사건의 제2회 공판은 30일 오전 11시 20분부터 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증명(增永) 재판장계, 옥명(玉名) 검사 ○○으로 개정하였다. 방청에는 치과의 전 학생과 ... 재판장은 피고를... 구주제국대학 ○목(○木) 박사의... 매독은 국소적(局所的) 병이 아니고 전신적 병인즉 치과의사가 치료할 범위내의 것이 아니라고 ... 감정이었다... 산중(山中) 변호사는 국소적 병과 전신적 병에... 경도제국대학 본영(本永) 박사의...’ 등으로 적고 있다 (그림 52).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매일신보 1942년 10월 20일자에는 <의사와 치과의(齒科醫) / 일원화(一元化)의 여론 환기> 제하에, '의사와 치과의사의 라고 하여 일본에서 시작된 의치일원화 여론이 조선에도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53).

6) 사회면의 '치과' 기사

매일신보 1924년 6월 1일자에는 신문사옥의 신축(新築) 낙성(落成)¹⁵⁾을 축하하는 찬조광고가 23건 실려 있는데, 그중 5번째로 입치사 안중수의 '치술원(齒術院)' 광고가 실려 있다 (그림 54). 그는 1916년 4월 24일 입치영업 182호로 등록하였으며¹⁶⁾, 1933년 4월 7일 폐업하였다¹⁷⁾ 매일신보 1924년 10월 18일자에는 <조선치과의학총회 / 전선(全鮮)의 치과의가 룽십여명이 출석>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림 55). 같은 지면 하단에는 태평양상회의 <장백치마분 (長白齒磨粉)> 광고가 보인다 (그림 56).

매일신보 1930년 7월 7일자에 <의사와 치과의/ 약제사시험기 결정/구월, 시월, 십일월 세차례에> 제하의 기사가 실렸고 (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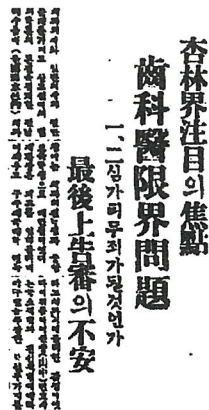


그림 52. 매일신보
1933.12.1



그림 54.
매일신보
1924.6.1

중의일보 1930년 9월 8일자에는 <약제사 치과의도 의사시험 폐지에 반(伴)하야 / 소화 13년도 한(限) 폐지>라고 하여 1938년 이후 의업자들의 시험 제도가 폐지될 예정임을 다루고 있다 (그림 58). 매일신보 1930년 10월 31일자에 <치아를 보고 인종 구별을 알아> 제하의 사설이 실려 있다(그림 59).

매일신보 1938년 2월 6일 자에는 <치과자료상끼리 공모 / 칠십만원 금과 밀수 / 봉천에 지점 두고 연락 취하야 / 이년동안 계속 범행> 제하에, '... 각 치과재료상회 일당 4명이 서대문서에... 중앙치과상회 박덕평, 소화치과상회 박원규, 경성치과상회 한남수, 삼경치과상회 황영0 ... 이들은 만주국 금시세가 조선보다 저렴한 것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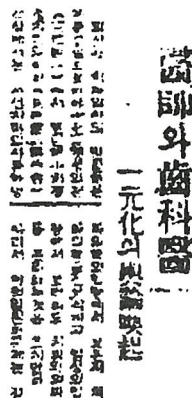


그림 53. 매일신보
1942.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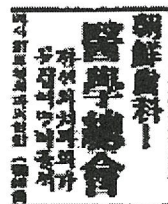


그림 55. 매일신보
1924.10.18



그림 56. 매일신보
1924.10.18



그림 57. 매일신보
1930.7.7

15. 원래 위치(지금의 서울 시청 자리)에서 현재 프레스센터 자리로 이전 신축.

16. 조선총독부 관보 1130호. 1916.5.12

17. 조선총독부 관보 1899호. 1933.5.12



그림 58.
중의일보
1930.9.8

화로 지난 소화 10년 12월부터 소화 11년까지 2년간 봉천 중앙치과상회... 교묘히 하게 된 것은 金齒...’라고 알리고 있다 (그림 60). 또한 1938년 4월 광업시대(鑛業時代) 제2권 제3호에는 <치과상회 중심의 금괴밀수사건> 제목으로, ‘얼마전부터 시내 서대문서와 동대문서에서는 시내 치과 재료상점주를 중심으로 한 금괴밀수사건이 있는 것을 탐지하고 극비밀리에 활동을 개시하

야 수범 경성부 북미창정 중앙치과상회주 박덕평을 검거 취조한 결과 소화 8년으로부터 동 12년까지 밀수한 액수가 금 70만원 이상에 이르는 터인데 검거하여 취조받는 사람은 左記와 如하다. 朴德平(41) 경성부 북미창정 중앙치과상회주, 朴元光(38) 동 길야정 소화치과상회주, 黃永基(22) 동 태평통 3정목 3 삼경치과상회주, 韓南洙(34) 동 장곡천정 삼경치과상회주, 李眞顯(24) 동 주교동 천일치과상회주, 최헌식(26) 동 서대문정 천일치과상회주, 노갑형(26) 동 장곡천정 경일치과상회주, 김복규(26) 공영상회 점원, 유성고(28) 황금정 3정목 국일치과상회주, 김달주(29) 동 공덕정 삼성치과상회주, 강동원(48) 동 관수정’ 라고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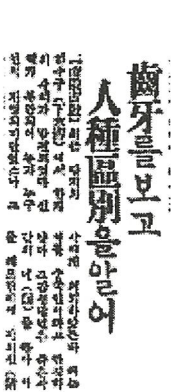


그림 59. 매일신보
1930.10.31



그림 60. 매일신보
1938.2.6

7) 구강위생, 충치예방의 날

일제시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에 걸쳐 신문지상에서 ‘치아위생’,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매일신보 1919년 7월 23일자에 <‘하계(夏季)’에 대한 위생문제(衛生問題) / 구강위생(口腔衛生)에 대한 주의(注意)> 라는 제하로 삼각정(三角町)치과의원장 함석태의 글이 실려 있다(그림 61).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로 1925년에 한성치과의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던 분이다.

관련기사의 주요 제목을 보면, <어머니의 주의할 일 / 치아는 행복의 토대 / 어린아해의 구할은 충치> 매일신보 1927년 10월 6일자, 그림 62), <일상 주의해야 할 치열과 구강위생 / 어린이는 해마다 세 번이상 검사를 필요 있다 / 적당한 칫솔과 닦는 법> (중의일보 1928년 3월 4일 자, 그림 63), <치아의 건강과 녀름의 음식물 / [비타민]이 부족하면 니뿌리가 흔들립니다> 중의일보 1929년 6월 3일자, 그림 64), <얼굴이 아름다우려면 치아를 곱게 하라 / 어릴 때부터 주의할 치아위생> 제하로 ... 얼굴의 미(美)로 본다면지 / 그런데 엇저다가 니가 빠지게 되면 / 혀를 깨문다던지 손가락을 / 조고마한 부주의 때문에 / 그런데 알고 보면 이상한거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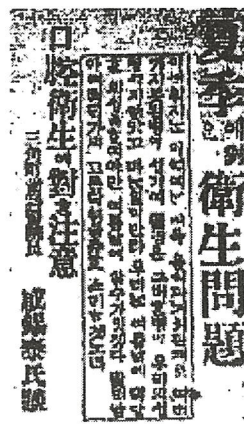


그림 61. 매일신보
1919.7.23

(중의일보 1929년 11월 7일, 그림 65)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또, <충치의 예방은 구강위생으로부터> (매일신보 1931년 6월 9일, 그림 66), <청결한 구강에도 사역만의 미균 / 불결한 구강에는 무려 백수십억만> (매일신보 1931년 6월 14일, 그림 67), <부내 보



그림 62. 매신
1927.10.6

통학교 아동 대개는 치아불량 / 편도선, 안질, 목명울 등의 질병 / 4분3이 불건전치 > (매일신보 1931년 12월 16일, 그림 68), <어머니 되신 분들이 아들의 치아위생 / 음식 먹을 때는 좌우편을 꼭 가치 쓰도록 > (매일신보 1932년 4월 21일, 그림 69) 등의 기사를 보게 된다.

이처럼 모자구강보건, 영양, 잇솔질, 안모에 대한 강조 등, '치아'에서 '구강'으로 또 '전신(全身)'으로 관점의 확대를 보여

준다.

1932년 6월 4일 우치예방의 날에는 <금일 충치 예방의 날> 제하로 '충치예방날을 기념함' (조선 치과의사회장, 利根川清治郎), '충치예방 날을 예찬함' (총독부 경무국, 의학박사 西龜三圭), '튼튼한 치아를 만드는 비결' (경성제대 의학부 치과교수 生田信保), '아동의 치아보전에 대하여' (경성 치과의학전 문학교장, 柳樂達見) 등 일본인 치과계 주요 인사들의 글로 매일신보 전면(全面)을 덮고(그림 70), 그 하단에는 라이온 齒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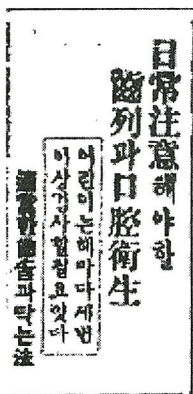


그림 63. 중의
192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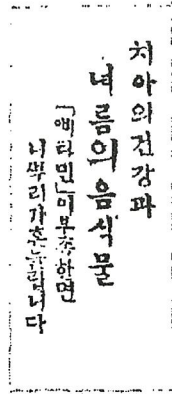


그림 64. 중의
1929.6.3

광고를 싣고 있다(그림 71).

매일신보 1932년 10월 15일 가정과 아동란에 <구든 것을 먹을수록 치아는 튼튼해져 / 치아가 낮으면 건강 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관계 있습니다> 제하로(그림 72),

또 매일신보 1934년 1월 12일에는 <치아가 튼튼해야 불로장생 한담니다 / 새해에 올리는 첫인사> 제하의 기사(그림 73)가 있고 같은 면에 '강남치과의원 의사 이호곤(李鎬坤)' 광고문도 실려 있다(그림 74).

조선중앙일보 1934년 6월 5일 및 1935년 1월 6일에는 2차에 걸쳐 <치아는 육신의 무기다! / 이를 잘 닦자 / 충치예방날에 세브란스 치과 김○환>의 글이 (그림 75,76), 매일신보 1935년 1월 30일자에는 <그사람의 운수를 치아로 알 수 있다 / ○○니는 크코 발려야 해> 제하의 기사(그림 77)가, 매일신보 1935년 6월 25일에는 <아동의 치아를 직히자 / 부(府).순회 전임의 임명 / 부내 초등학교 순시치료토록> 제하의 기사(그림 78)가 실려 있다. 신한민보 1936년 8월 6일, 10월 22일, 12월 3일에는 '치아의 위생'을 주제로 정보라 박사의 글이 3차에 걸쳐 연재되어 있다(그림 7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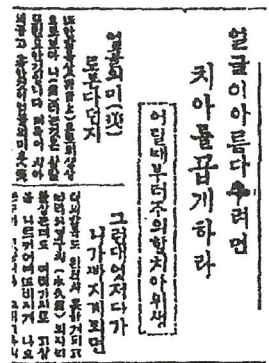


그림 65. 중외일보
1929.11.7



그림 66. 매신
193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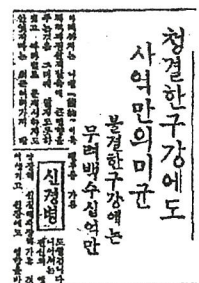


그림 67. 매일신보
193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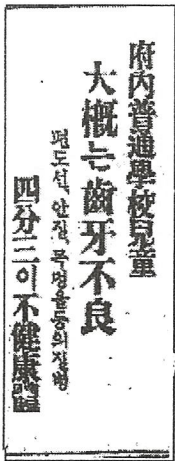


그림 68. 매일신보
1931.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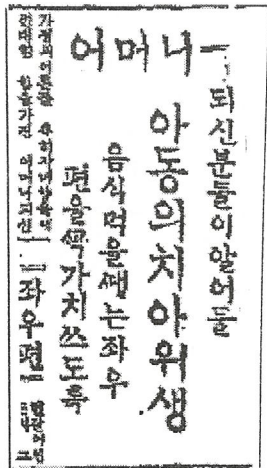


그림 69. 매일 1932.4.21



그림 70. 매일신보 1932.6.4



그림 71. 매일신보 193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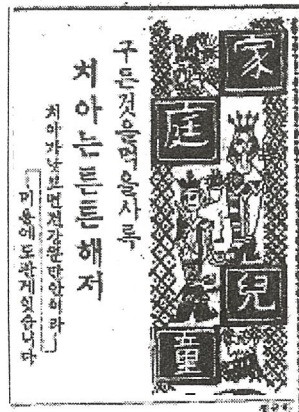


그림 72. 매일 1932.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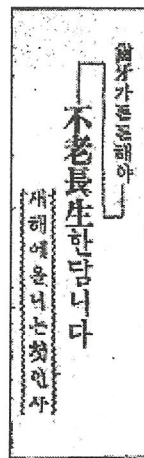


그림 73. 매신
1934.1.12

매일신보 1938
년 6월 4일에는 <
충치예방! 6월 4
일은 충치예방일
/ 치아가 튼튼하
면 몸도 건강하다
> 제하로(그림
82), 같은 지면 구
라부 치마의 광고
(그림 83)를 볼 수
있다.

매일신보 1938

년 12월 30일 <입에 냄새가 나
는 것은 치아가 불결한 까닭 /
그러나 내과적 질환의 원인도
있다> 제하로(그림 84), 매일
신보 1939년 5월 4일 <튼튼한
치아는 오래 사는 장본 /치아
를 조심하십시오> 제하로, 매
일신보 1939년 5월 13일에 <결
핵과 치아 / 봄가을에 심해지
는 결핵 / 원인이 치아에 만타
> 제하로(그
림 85), 매일
신보 1939년
10월 13일에

는 어린이 치아의 발육에는 모
체의 영양이 제일 / 신경 ○○인
육아법은 절대로 못쓴다/ 대개
는 도회지의 생활자> 제하로(그
림 86) 기사가 실려 있다. 매일
신보 1939년 12월 15일자에 <치
아가 건강치 못하면 건강이 약
해진다>고 하였고(그림 87), 매
일신보 1940년 2월 9일 <구강위
생에 주의> 기사(그림 88)가 있
다.



그림 74.
1934.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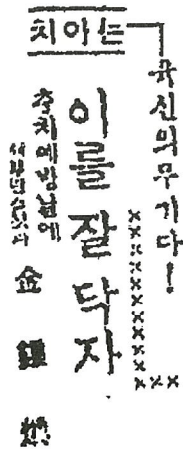


그림 75. 조선중앙 193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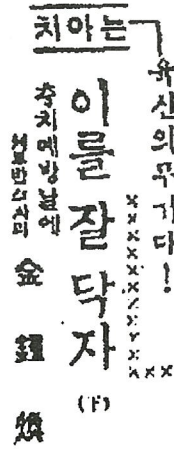


그림 76. 조선중앙 1935.1.6



그림 77. 매신 1935.1.30



그림 78. 매신 1935.6.25



그림 79. 신한민보 1936.8.6



그림 80. 신한민보 1936.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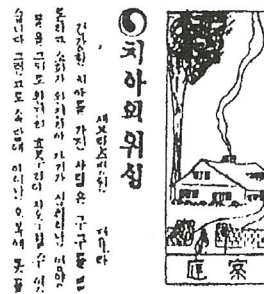


그림 81. 신한민보 1936.12.3



그림 82. 매일신보 1938.6.4

정보라 박사는 매일신보 1941년 5월 3일, 4일, 6일, 8일 4회에 걸쳐 <모체와 치아위생 / 튼튼한 이를 맨들자> 제하로 연재하였다(그림 89-92).

매일신보 1941년 5월 4일자에는 라이온 치마분 광고(그림 93), 매일신보 1942년 7월 19일에는 <어머니의 특별주의로 어린이에 치아를 지키오> 기사(그림 94)을 볼 수 있다.



그림 83. 매일신보 193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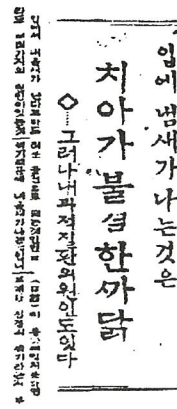


그림 84. 매일신보 1938.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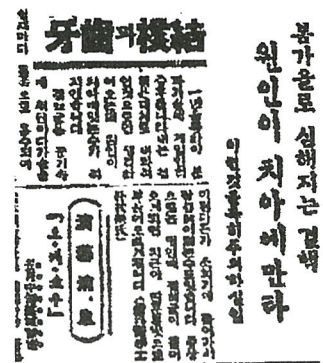


그림 85. 매일신보 1939.5.13



그림 86. 매일신보
1939.10.13



그림 87. 매신
1939.12.15



그림 89. 매일신보
1941.5.3



그림 90. 매일신보
1941.5.4

8) 한성치과의사회의 구강위생 강연회

조선중앙일보 1934년 5월 31일에는 <충치예방 일과 구강위생 강연회 / 6월 4일 오후8시에 종로 중앙청년회에서 개최>라고 하여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에서는 일반국민의 口腔衛生 사상을 선진○○코저 오는 6월 4일을 蟲齒豫防日로 전하고 아동의 구강을 무료 시술하기로 하였으며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강연회를 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督教青年會) 대강당에서 당일 오후 8시부터 개최할 터인데 당일 ○○○ 순서는 다음과 같다.

- 一. 개회 회장 함석태.
- 一. ○○ 부회장 ○○○.
- 一. 충치와 ○○ 예방 세 의전 이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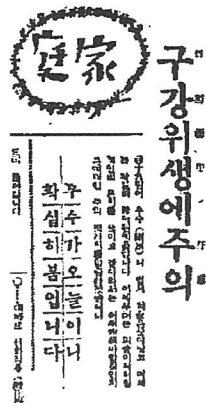


그림 88. 매일신보
194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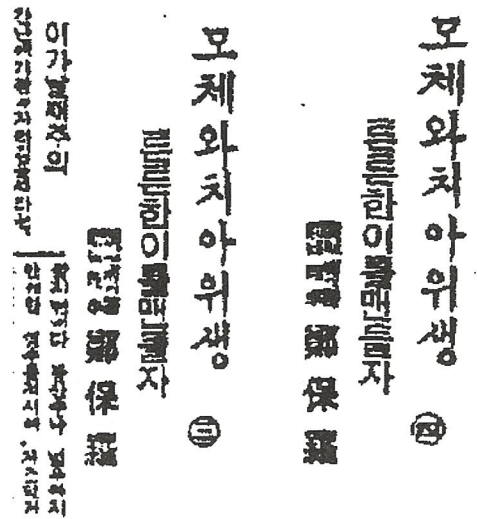


그림 91. 매일신보
194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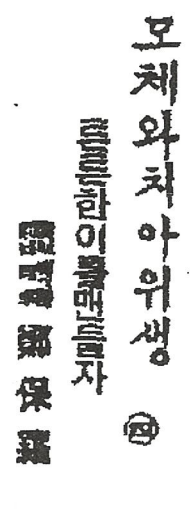


그림 92. 매일신보
194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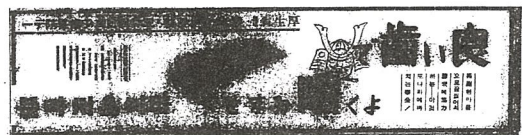


그림 93. 매일신보 1941.5.4



그림 94. 매일신보 1942.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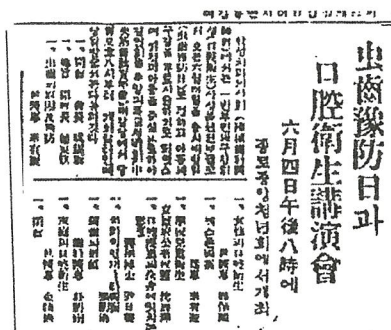


그림 95. 조선중앙일보 1934.5.31

- 一. 여성과 구강위생. 세의전 정보라
- 一. 학교아동위생 ○○○○○○ 심○택
- 一. 구강위생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 의학박사 윤일선
- 一. ○○ 치과의전 박명진
- 一. 가정과구강위생. 세의전 김○환
- 一. 폐회(그림 95)

매일신보 1941년 5월 3일에는 <주최 한성치과의사회, 후원 본사 학예부 / 구강위생 강연회 / 5월 4일 종로기독교청년회회관> 제하에 "... 부내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지난 29일부터 3일간 ○○○ 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를 개최 중에 있지만 ○○○. 구강위생강연회를 ○○ 있다. 이는 ○○○.사회적인 ... 일반의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이제 ○○ 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一. 시일. 소화 16년 5월 4일 오전 10시
 - 一. 장소.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 대강당
 - 一. ○○○○○○○○ 박부○
 - 一. 여성과 구강위생
 - 一. 치아 ○○ 정보라
- 기타 / 주관 한성치과의사회, 후원 매일신보, 라이온치마(그림 96).

같은 날 매일신보 해설기사에는 <구강위생 강연/본사학예부 후원> 제하로 "시국아래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본사 학예부 후원으로 오는 4일 오전 10시반부터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 강당에서 구강위생강연회를 열기로 되었다. 이 강연회는 치과의학 사상의 보급과 구강위생의 ○○○를 목적으로 치료와 예방지식을 널리 보급하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고 연사와 연제를 소개하고 있다(그림 97).

9) 사회면의 '치과의사' 기사 / 글

주로 1930년대에 치과계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소식이나 글이 당시 신문, 잡지 등에 여러 차례 게재되어 있음을 본다. 그들은 일제 시대 뿐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우리 치과계를 이끌어가거나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들이다.



그림 96. 매일신보 194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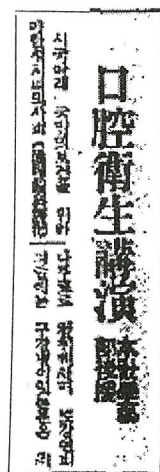


그림 97. 매일신보 194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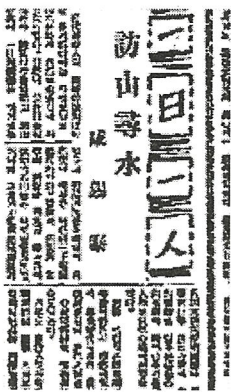


그림 98. 매일신보
1939.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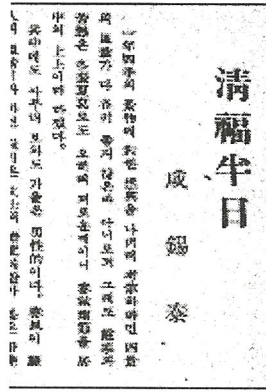


그림 99. 문장. 19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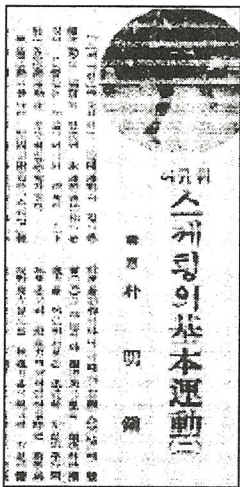


그림 100. 중앙 1933.2

매일신보 1939년 10월 24일자 8면에는 함석태의 글 '방산욕수(訪山尋水)'가 실려 있다 (그림 98). 함석태 선생의 글은 문장(文章) 1939년 8월호에 '공예미(工藝美)'라는 제목으로, 또 문장(文章) 1940년 1월호에 '청복반일(淸福半日)'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그림 99)¹⁸⁾.

'(齒專) 박명진(朴明鎭)'은 1933년 1월과 2월 두 차례로 나누어 중

앙(中央)¹⁹⁾에 figure skating에 대해 기고한다 (그림 100). 1930년대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승마와 더불어 고급 스포츠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스케이팅에 대해서는 정보라(鄭保羅)의 글도

보인다. 그는 조광(朝光) 1936년 2월호에 '은반상의 기억'을, 여성(女性) 1937년 2월호에는 '여성과 스케이팅'을 기고하였다 (그림 101)²⁰⁾.

당시 미국에서 발행되던 신한민보 1938년 9월 1일자 2면에는 <정보라 박사

귀국 - 장로교당에서 치아위생강연> 제하에, '본국 경성에 있던 세부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 정보라씨난 작년에 도미하여 서북대학(Northwestern) 학사원에서 치과를 계속 연구하여 금번 학기에 엠-에이 박사위를 받고 귀국한 길에 일전에 라성에 도착하여 수일 ○○ 하다가 이십구일 출발한 룡○환 선편으로 귀국하였다.

정의사난 도미하기 전에 일찍이 연회전문을 졸업하고 다년 세부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육영사업에 종사하였는데 라성에 체류하던 그의 만혼 친구들은 씨를 위하여 ○○에서 만찬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만찬회를 맞힌 후에 ○○강연회를 개최하여 일반인에... 요컨대 금번 서북대학에서도 겨우 일년 동안에 박사학위를 받고 [조선인의 혈액형과 우치발생빈도에 관한 연구]란 실로 세계적 가치가 있는 과학논문으로 인정된다고 한다'고 그의 화려한 경력과 귀국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림 102).

그는 1938년 9월 20일에 귀국하였는데, 매일신보 1938년 9월 27일 자에 <미국(米國)에 돌아온 / 치과의 돌연 피체(被逮) / 종로서에서 취조중> 제



그림 101. 여성 1937.2

18. 함석태, 工藝美, 문장(文章) 1939; 1(8):175- / 함석태, 淸福半日, 문장(文章) 1940; 2(1):158-

19. 박명진 휘규어 스케이팅에 대하여(一), 중앙, 1933; 1(2):105- /

박명진 휘규어 스케이팅의 기본운동(二) 중앙 1933 :1(2):194-

20. 정보라, 은반상의 기억, 조광(朝光) 조선일보사출판국 1936.2; 2(1):130-1 /

정보라, 여성과 스케이팅, 여성(女性) 조선일보사출판국 1937.2; 2(2):182-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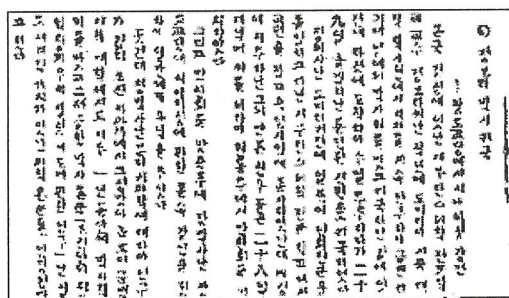


그림 102. 신한민보 1938.9.1

하에, '부내 종로서 고등계에서는 ○○ 세브란스 치과의사 정보라(鄭保羅)시를 검거하고 취조중인데 씨는 작년 미국(米國)으로 가서 치과의학을 ○○○○ 지난 20일 귀국하였는데 ... 미국에 있는 조선 사람들과 ...연락이 었는가 하야 그가티 취조를 하게 되었○○○'고 하였다 (그림 103). 이후 그는 조광(朝光) 1940년 4월호에 명사초청 양케이 트에 대한 응답을 싣고, 5월호에는 '사설방송국 유-모어 2제(二題)' 라는 콩트를 게재하고 있다²¹⁾.

'세브란스의전 부속병원 치과장' 이유경(李有慶)은 건강생활(시조사) 1941년 6월호에 '지치(智齒)는 과연 위험성이 있는 치아인가?' 라는 글을 싣고 있다 (그림 105)²²⁾.

한편 여성(女性) 1938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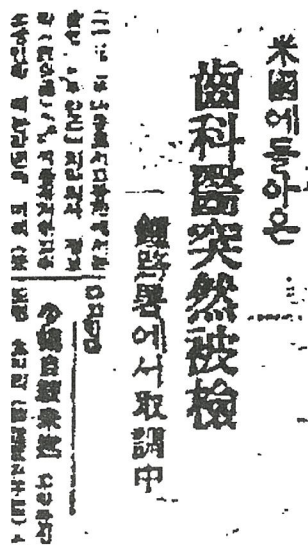


그림 103. 매일신보 1938.9.27

에는 '세부란스 치과 이양숙'의 '후진에게 주는 말 - 치과의 생활 삼년의 내경험'이 게재되어 있다²³⁾. '경성치전을 졸업한 후 모교에 있으라는데도 물음쓰고 세브란스로 온 것은 환경을 좀 바꾸어보자는 것이었지만 과연 처음인 풍랑심한 바다에 배를 부리는 것만 같애 조심스름기 끝이 없어 쾌활하게 뛰놀든 그 학창시절로 도라만 가고 싶었습니다. 허나... (하략)' 라고 술회하고 있다.

4. 해방이후

1) 치과의사 면허와 등록

대동신문(大東新聞) 1946년 3월 6일 자 2면에는 <치과의사 면허와 등록 / 4월 15일까지> 라 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그림 106).

국내에 치과의사 될 자격은 당국에 면허 급(及) 등록수속을 좌기(左記) 기일(期日)에 완료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치과의사 제위(諸位)도 새로히 우(右)와 동일한 수속을 제출하여야 된다 하며, 이상 제 수속은 소관 부(府), 군(郡), 도(道)에 문의하거나 혹은 당국에 문의하여 천만의 유○이 없도록 유의함을 요한다.

○ 좌기(左記)

一. 1946년 3월 15일 지(支) 4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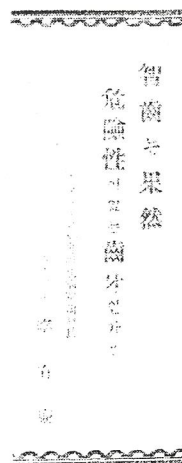


그림 105. 건강생활. 1941.6.

21. 정보라. 여백문답. 조광(朝光) 1940; 6(4):258~262, 266-271 /

정보라. 사설방송국 유-모어 二題. 조광(朝光) 1940; 6(6):217

22. 이유경. 지치는 과연 위험성이 있는 치아인가? 건강생활. 시조사 1941.6; 3(5):175-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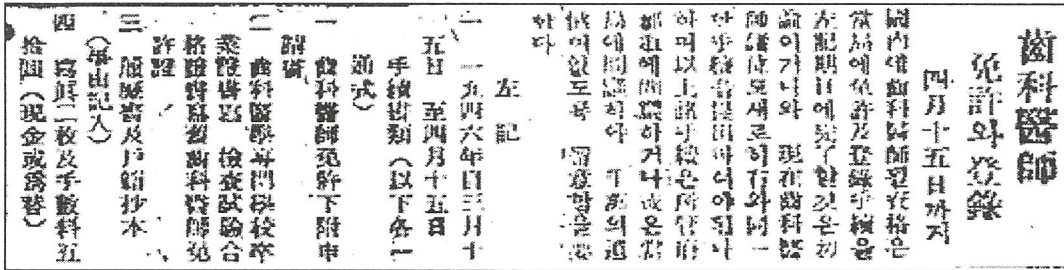


그림 106. 大東新聞 1946년 3월 6일

- 수속 서류 (이하 각 1通式)
- 一. 치과의사 면허 하부(下俯) 신청서
 - 二. 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증 모사(模寫)
검정시험합격증 모사(模寫),
구(舊)치과의사 면허증
 - 三. 이력서 급(及) 호적초본 (전유[專由] 기입)
 - 四. 사진 2매 급(及) 수수료(手數料)
50원(五十圓) (현금 或[或] 위체[爲替])

동방신문 1949년 9월 8일자에는 <치과의(齒科 醫) 시험> 제하에, '보건부에서는 금년도 수기 치과(齒科)의사 시험을 시행하기로 되었다는 바, 응모자는 오는 이십일까지 보건부 의정국 치무과로 원서 1매를 시(市), 도(道)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도 보건당국에 문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107).

2) 치과계 주요인사 관련 기사

현대일보 1947년 2월 14일 자 2면에는 <무자격자에게 면허 / 치의무국장 독직(瀆職)> 제하로, '○○○의 독직, 모리 기타 부정행위가 속출하여 일반이 주목하고 있는 이 때, 이번에는... 후생부 치과의무국장(齒科醫務局長) 원제신(元濟莘)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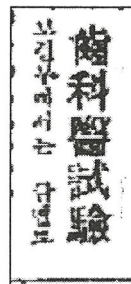


그림 107.
동방신문
1949.9.8

24)은 (五三歲 ○○ 齒科醫, 解放直後 商業局長 就任) 二十三日 새벽 三時 시내 후암동(後岩洞-○○○) 모정당 재정부장 저택(邸宅)에서 체포되어 현재 본청사에 유치되었다는데 현 상태에 비추어 그 배후관계를 주목하여 동서(同署)에서 맹활동중이라더라'고 하였다. 같은 신문에는 '국립의대 제1부 학생성명서, 23일부터 파업'이란 기사도 있어, 당시의 어지러웠던 정세를 보여 준다 (그림 109).



그림 108.
현대일보
1947.2.14

23. 이양숙. 후진에게 주는 말 - 치과의 생활 삼년의 내경험. 여성(女性) 1938; 3(4):388

24. 일본 유학, 1917년 이후 평양에서 개업, 해방 후 월남, 1960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역임

3) 구강위생

대중일보 1948년 6월 10일 자에 <인천치과의 총동원/ 구강위생 강조주간 실시 / 9일부터 1주간> 제하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그림 110).

인천치과의사회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구강위생강조주간을 금년도 6월 9일부터 1주일간 실시하기로 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일반에게 무료로 구강검사와 상담에 응하고 아동에게는 무료로 구강진단 치료를 행한다 하며 특히 학교 공장 등에서 요청이 있으면 구강위생 강의도 응한다 하여 이 실시 장소에는 [아동무료구강진료소]라는 간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조으니 일반은 많이 참가하여 구강위생의 완벽을 기하기 바란다 한다.

동방신문 1950년 6월 9일자에 <병은 입으로 드러난다 / 6. 9~15 구강위생강조주간 / 도립병원서 무료봉사> 제하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그림 111).

국민체력은 국력을 消長하며 건강한 생활은 건전한 정신에서 시작된다. 이 건강은 먼저 구강위생의 철저에서 시작된다. 오늘 6월 9일부터 1주간은 국민보건의 유지향상을 기도하는 구강위생강조주간이다. 당지(當地) 강릉도립의원에서는 이 주간 행사로서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임산부와 유아들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진료 급(及) 간이(簡易)한 처치정도의 치료까지 무료봉사하게 되어 있으니 일반은 주저없는 청진을 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모~든 병은 입으로 드러난다. 빠짐없이 치료와 예방으로 구강을 보호하며 보건에 노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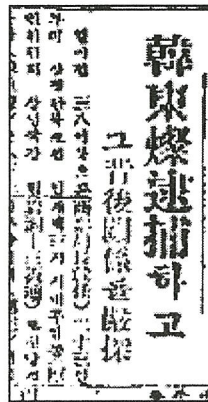


그림 109. 대동新聞
1946.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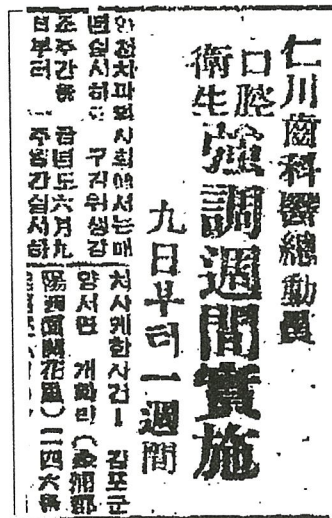


그림 110. 대중일보 1948.6.10

4)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음악부

1948년 7월 8일 오후 7시 30분 정동 배재중학교 강당에서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음악부 주최, 평화일보사 후원으로 제2회 졸업기념 송별음악회가 개최되었다(그림 112-4). 박명진 학장의 인사에 이어 제1부는 노광옥(盧光郁) 지휘의 남성합창 / 남성4중창, 현악4중주, 테너독창(김영순), 바리톤독창(김노현) 등, 제2부는 관악독주(최치정), 테너독창(노광옥), 남성2중창(이경재, 김노현), 남성합창(지휘 노광옥)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음악회는 해마다 있었는데, 그러한 활동의 중심 인물은 노광옥이 아닌가 한다. 민성(民聲) 1949년 1월호, 9월호에는 그의 글 '민족음악의 두가지 조류 - 특히 그의 복고성(懷古性)에 대하여' 그리



그림 111. 동방신문
195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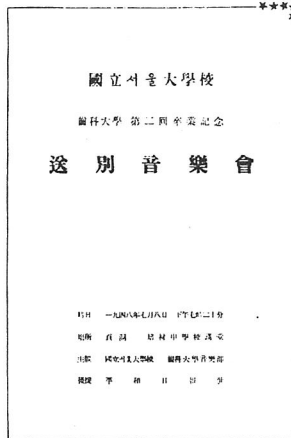


그림 112. 음악회 팸플릿
표지 (194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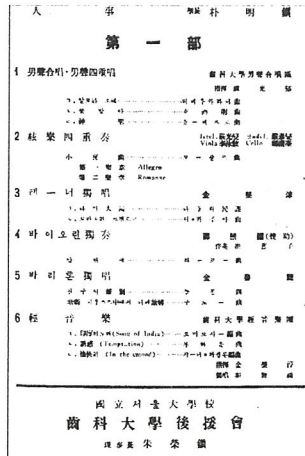


그림 113. 음악회 프로그램
1부 (194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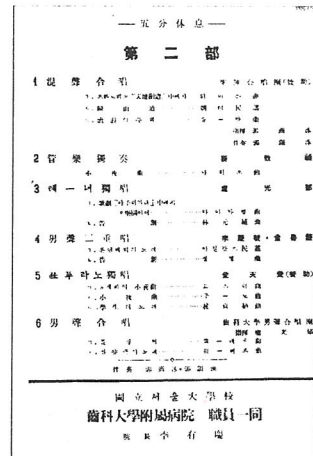


그림 114. 음악회 프로그램
2부 (194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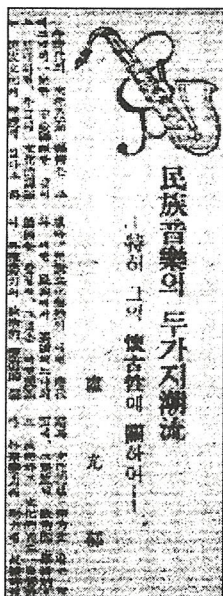


그림 115. 민聲 1949.1

고 '신가요제작의 과제- 대중음악으로서의 가요에 대하여'가 실려 있다 (그림 115)²⁵⁾.

5. 마무리

유희황제의 인산(因山)일은 3·1운동을 재현하려 조직적으로 준비했던 6·10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날이다. 명치정, 대화정에 일본인들이 모여 있었던 반면 조선인 상권의 중심은 종로거리였다. 종로 북쪽 방향에서 찍은 이 사진에서 상여와 기마헌병, '이해박는집'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그림 116).

상여가 허망하게 무너진 조선과 대한제국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일본 기마헌병은 총독부 권력을 상징한다. 길 건너 기와 건물들과 나란히 보이는 선명하고 거대한 입치영업 간판은, 그 위치나 크기로 보아 일본인 입치사에게서 전수받은 치술(齒術)을 과시하는 조선인 입치사의 위풍당당함을 느끼게 한다. 기마헌는집까지 관통하는 듯 하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병의 감시의 시선은 장례행렬 뿐 아니라 이해박어야 할 상여는 기마헌병과 이해박는집 간판 사이에 낀 채 왜소해 보인다.

지금까지, 19세기 말부터 일제시대에 걸쳐서 치과의, 입치사의 개업광고, 일제에 의한 치과의사 규칙 및 입치영업취체규칙의 제정과 이에 따른 등록과 면허,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신문 지상을 장식한 무자격자 문제, 치과의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재판 사건, 구강위생, 충치예방의 날 행사와 한성치과의사회의 구강위생강연회, 지도급 치과의사들의 글, 그리고 해방 이후 치과의사 등록, 주요 인사 동정, 구강위생활동 등 시대별로 다양한 '치

25. 盧光郁. 민족음악의 두가지 조류 - 특히 그의 懷古性에 대하여. 민聲 1949.9; 5(1):42-43 / 盧光郁. 신가요제작의 과제- 대중음악으로서의 가요에 대하여. 민聲 1949.9; 5(9):254-



그림 116. 융희황제 인산(因山) 행렬,
(종로, 1926.6.10)

과'의 모습을 보았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사들이 조선에 들어온 이후 40년간 식민지형 치과의료체계가 고착되었고 해방 후의 혼란도 불가피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엄중한 통제 와중에도 무자격자가 횡행(橫行)하고, 의과와 치과의 긴장관계가 상존하는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몽운동도 끊이지 않았다. 지역을 한정하여 몇 년마다 면허를 갱신받아야 하는 입치사부터, 치과의사시험 합격자, 사립교육기관 졸업생, 사회지도층의 중심에 있던 유학과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치과계의 구성도 중

층적(重層的)이고, 사회에 비친 '치과'의 모습도 다면적(多面的)이었다.

지금의 치과의료계는 지난 시기에 형성된 이미지들의 잔영을 여전히 짙게 간직한 채,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한 안팎의 요구에 대응하기에 숨가쁘다. 지난 100년간 서양 근대치의학이 우리나라에 이식(移植)되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치과'의 원형(原形)을 재평가하여, 지금 우리 사회와 치과계에 필요한 치과의료체계, 치의학, 치과의사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정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원로 초청 간담회*〉

“6·25 전후의 치과계”

초청원로 : 김주환 (金周煥) 박사님¹⁾ 지헌택 (池憲澤) 박사님²⁾, 김규식 (金圭植) 교수님³⁾

참 석 : 김정균 명예회장, 이병태 명예회장, 임경빈 명예회장, 신재의 직전회장, 변영남 회장, 김평일 부회장, 임용준 부회장, 조영수 총무, 치과계 언론지 기자

일 시 : 2005년 6월 8일(수) 18:30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부

인사와 근황

변영남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신 원로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격식보다 편안한 간담회 형식으로, 그동안 학회를 맡았던 전(前) 회장님, 부회장, 임원만 참석하셨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도 밝혀 주시고 회사(會史)나 기록에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고, 그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시작)

김규식 얼마 전 천안에 있는 친구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헌택 김 교수 동기들은 전시연합대학을 다녔었지요?

김규식 예, 저는 부산 전시연합대학 의학부에서 2년 (1학년 및 2학년) 공부했어요.

지헌택 그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걸로 들었는데?

김규식 자주 만나는데 거의 다 별세했어요. 우리보다 상급반에서 6·25 사변 때문에 유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 유동수 (劉東秀)씨 한 분 남아있고 다른 분들은 다 별세했어요. 남태우(南台祐)라고 남정우(서울치대 2회 전문부) 선생의 동생인데 폐암으로 죽었고, 김인근(金仁根)씨는 고혈압으로, 김용훈(金龍勳)이라고 나이 많던 분인데 간암으로, 치무병과장했던 조일(趙鎰)씨는 고혈압으로 별세했지요. 세브란스 있던 김병순(金秉順)씨는 남편이 세브란스 나온 ‘닥터 조(趙)’라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소식이 없어요. 10여 년전 한번 나온 이후로 못 보았죠. 김학준(金鶴俊)씨는 중풍으로 고생했는데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30여 졸업생 중

* 간담회 녹취 내용을 시대별로 재구성하였으며, 본 간담회 이후 11월 4일(금) 호정회관에서 김규식 선배님을 모시고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녹취록 초고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1회 졸업 (1947년), 서울치대 교수, 한국구강보건협회 회장 및 이사장 역임.
현 대한구강보건협회 명예회장.
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1회 졸업 (1947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역임 (1978, 1980년).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국제치의학회 (ICD) 한국회 고문
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8회 졸업 (1954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구강외과) 및 학장 역임.

거의 다 죽고 살아 있는 사람이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우리 동기 서울치대 8회 졸업생이 제일 피해가 많았어요. 오히려 선생님 동기들이 많이 살아계실 겁니다.

김주환 우리 동기 오응서(吳應瑞)가 이번에 돌아갔지요.

변영남 오응서 선생님 회고록에 보면 43년에 입학해서 47년에 졸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두 분하고 선우양국 선생님, 안형규 선생님, 모두 동기였죠?

김주환 우리 동기 모임이 10명에서 이번에 오응서 씨가 돌아가는 바람에 9명이 되었지. 근데 10명 모임은 중에 치과대학에 있는 김영해(金英海) 선생하고 김희경(金熙耿)은 아마 우리보다 1년 뒤에 졸업했지?

지현택 김영해 선생은 해방 후 고향 신의주에 갔다가 그만 졸업이 늦어 2회로 졸업했지.

김규식 김영해 선생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보다 2년 아래지요?

지현택 나보다야 더 아래이고, 이 사람 기준으로 하면 2살.

김주환 이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꼭... (모두 웃음)

김규식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가요. 계산해 보면 7살에 들어가야 해요. 그 때는 중학교 5년 마치고 전문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굉장히 수재였구나, 나이 어려서 들어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변영남 지금도 전철타시고 아드님 치과에 출근하시던데요?

김주환 김영해 선생한테는 배울 점도 많고, 한편으로는 치과의사로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검소한 점은 배워야 해요. 차문호(車文豪) 선생하고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고향이 신의주야.

김규식 중학교 동기이신가요? 동기 아닌 것 같아요.

김주환 중학교 동기죠. 김영해 선생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처남이 외과의사인데 같은 육군 중령이었어. 당시 일선에서 민가에 하숙을 했던 모양이야. 봉급을 타면 김영해 선생은 다락에 넣고 열쇠를 잠그는데 처남은 1주일 지나면 돈 꾸어 달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김영해 선생이 퇴계로 5가에 빌딩 지을 때 그 근처 묵정동에 유종덕(劉鍾德) 선생이 살고 있어서 매일 만나서 같이 오거든? 근데 얘기를 안 해서 유종덕 선생은 빌딩 짓는 걸 몰랐어요.

변영남 청산치과 자리 말씀인가요?

김주환 아니, 퇴계로 길 하나 뒤에 5층인가 6층 짜리 빌딩을 지었다구. 그래서 김영해 선생, 이 자리에 없지만 내가 ‘되놈’이라고 그러다구 (모두 웃음). 세상 돈이란 쓰면 한이 없고 쥐면 그게 자기 돈이 된다구.

변영남 외대 앞에 선생님 사시는 집도 위치가 좋고 평수도 상당해요. 주변은 다 빌딩인데 그 집만 아직 그대로 있지요.

해방 전후

김주환 8·15 해방 전에 일본인 교수한테 강의 받던 얘기인데, 즈자끼(津崎 孝道)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해부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 양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강의 중 한 학생이 하품을 했는데 그냥 책 덮고 나가버려요. 찾아가 빌어도 ‘내 강의를 안 듣고 하품하는 놈들 가르쳐서 뭐 하느냐’는 거지요. 또 다른 얘기로 김상찬이라고 우리 동기가 있어요.

이병태 김상찬 선생님이라면 부산에서 개업하시

던 분인가요?

김주환 아니, 그 사람 아니고 1기 중에 머리도 좋고 죽 1등 했던 사람이죠. 두개골을 놓고 삼차신경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지(韓紙)를 가늘게 말아 구멍을 정확히 표시하라는 시험이에요. 제대로 했는데도 '틀렸다'는 거요. 틀리면 그 자리에서 F 학점을 줘요. 김상찬이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조수에게 귀 드러다 보는 이경(耳鏡)하고 거울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애 귀가 이상한지 못 알아들으니 귀를 조사하라'는 거지요. (모두 웃음). 이렇게 절대적이야.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점수가 안 나와 나중에 재시험을 쳐야 했지요. 즈자끼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교수야. 자꾸 눈이 어두워지니 처음에는 연필로 답안을 쓰게 하다가 볼펜으로, 나중에는 매직 펜으로 쓰도록 했었지. 일제 시대 때 교수의 권위라는 건 절대적이어서 말 한마디 반대하지 못했지요. 요새는 세상이 거꾸로 됐지.

임경빈 교수가 학생들한테 평가받아요.

김주환 좋은 의미로 되는 건 좋은데 세상이 역행(逆行)하고 있어요.

김규식 나기라 다쓰미(有樂達見)⁴⁾ 경성치전 교장이 해방 후 박명진(朴明鎭)⁵⁾ 학장에게 주고 갔던 사택은 남산 힐튼호텔 옆에 남향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지요. 말하자면 적산(敵産)이어서 처음에 김수철, 김용관, 유종덕, 선우양국 등 이북 출신

교수와 1회 졸업생이 들어가서 살았지요. 후에 집을 구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지요. 나중에 소송도 걸리기도 했는데 박학장이 치과의사회에 그 집을 기증했지요.

김규식 8·15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 대해 정보라(鄭保羅)⁶⁾ 선생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군정장관(2대) 러치(A. Lerch) 소장⁷⁾이 조선호텔에 미국 유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농업에 대해 의견을 낸 사람에게는 농림부장, 치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조병옥(趙炳玉), 장택상(張澤相) 씨에게는 각각 경무부장과 수도경찰청장, 또 당시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중국에서 귀국하는 사람이나 월남민에 대한 검역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이용설(李容弼)씨는 보건후생부장 직위를 주었다고 합니다. 치무국(齒務局)까지 생길 수 있었던 것도 이용설씨와 가까웠던 정보라 선생님의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신재의 해방 후 조선치과의사회 초대 위원장을 하셨던 안중서(安鍾書)⁸⁾ 선생님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시지요.

김주환 안중서 선생은 우리보다 꽤 선배거든요. 그 분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치과의사회를 육성하는데 진력했지요.

김규식 김두중(金斗鍾)⁹⁾ 선생한테 들은 바로는, 안중서 선생은 1930년에 세브란스 치과

4. 1914년 조선총독부의원 치과과장, 1922년 경성치과 의학교 설립

5. 경성치과 의학교 제4회 졸업(1928년),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1930년), 서울치대 초대학장 역임

6.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 제3회 졸업 (1932년). 서울치대 교수, Northwestern대 교수 역임

7. 1대 군정장관은 아놀드(A.V.Arnold) 소장.

8. 경성치과 의학교 제1회 졸업(1925년), 조선치과의사회 위원장(1945), 대한치과의사협회장 (1952, 62) 역임

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醫史學), 부속병원 초대 원장 역임.

10.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 (1930년)

에 계셨고 중국 상해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김두중 선생은 내가 학장할 때 (1985~87년) 치료하러 자주 오셨었어요. 그 양반이 아흔 다 되어서 발치를 처음 했지요. 그분 동생이 김은중(金殷鍾)¹⁰⁾이라고 치과의사예요. 왜 동생한테 안 가시냐고 하니 ‘그 친구, 엉터리야’ 그러시더군요. 발치해 드리고 보철과에서 이선행 선생이 크라운을 해드렸어요. 캐스팅값, 금값만 받고 해드렸더니 그 양반이 감격해 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초대 원장을 하셨는데, 자기가 원장이 된 제일 큰 원인은 안중서 선생이래요. 국립서울대학교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민간이사회를 구성했는데. 당시 초대 총장이었던 Harry Ansted 박사는 연대교수를 하던 분이고, 최규동(崔圭東) 이사장 (후에 4대 총장)은 중동중학교장, 공대의 유재성(劉在晟, 용산공작소 사장) 이사는 독일에서 PhD 학위를 하였고 부인은 독일 사람, 모델하던 ‘모니카 유’가 딸이고 노래하던 유주영이 아들이었지요. 의대의 이의식(李義植, 내과) 이사는 독립운동가 이동영씨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치과대학 쪽에서는 안중서 선생이

이사가 됐어요. 김두중 원장에 의하면 안중서 이사가 강력히 추천해서 본인이 기초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됐다는 거죠. 당시 원장하면서 아주 혼이 났답니다. 저녁만 되면 시계탑 건물에 인공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종로서인지 동대문서인지 불려 가면 ‘왜 깃대를 올리느냐’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 책이 다시 재판(再版)된다고 교정하는 책을 주셨는데 그 후로 돌아가셨지요. 그 책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변영남 당시 김문조 선생님은 6·9 구강보건주간 행사도 만드시고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규식 김문조 선생은 김인달((金仁達, 심상황(沈相煌) 교수 밑에서 배워 위생학을 강의했고, 48년에 조선구강위생연구소를 창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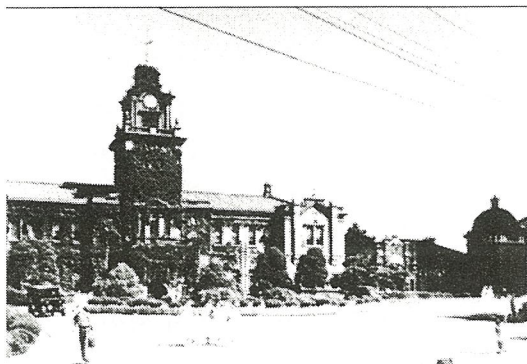
임경빈 저희는 해방공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동구라파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이 나면서 한반도 전체가 찬탁, 반탁으로 나뉘어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광범위한 질문이기는



해방 무렵 경성치전 교직원 일동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 1945.12.9



시계탑 (서울의대 본관, 1950)

하지만 친탁, 반탁이 치과계에 미친 일정한 영향이 있었을텐데요.

김주환 그 때 치과계가 반탁, 친탁으로 영향받게 있어요?

지현택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문제인데 내가 경험하기로는 국대안(國大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탁을 했고, 왼쪽으로 서있던 분들은 전부 친탁이였지요.

임경빈 간단히 대별(大別)해서 말씀해주시면 그렇겠지만...

지현택 그게 치과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은 뚜렷하게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조선치계 1946.

김주환 세부적으로 이런 건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국대안 찬성, 반대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학생들이 계단교실에 있고 박명진 학장이 들어와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다짜고짜 사람들이 몇 명 몰려오더니 박명진 선생 목살을 붙잡고 끌어내는거야. ‘학교를 미국에 팔아먹는다’는 것이지. 그 치과의사들은 교수는 아니고 학교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었지.

당시 left 쪽 학생들은 선우양국 선생을 위원장으로 밀었지만 본인이 고사하였지요. 윤철수 위원장은 우수하지는 않았어요. 해방 후 독서회로 모였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6.25 때 학교를 접수하게 되지요.

김규식 해방 후 전평 등 좌익은 붉은 띠를 두르고 주로 남산에 모였고, 이범석의 족창(族靑) 등 우익은 제복을 입고 주로 서울운동장에 모였지요. 치과대학은 김기혁(金基赫) 학도호국단장 등 우익이 강한 편이었지요. 안종서 선생님은 온건하고 논리적이셨는데, 당시 문기옥(文箕玉)¹¹⁾ 선생님과 관련해서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김주환 전쟁나기 전 치과계에는 ‘의치일원화(醫齒一元化)’라는 일종의 바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의사와 치과의사를 일원화하자는 것이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치과과장 조호연(趙昊衍)¹²⁾ 교수, 그 분이 주동인물의 하나였어요. 이유경(李有慶)¹³⁾ 선생, 정보라 선생, 박

11. 경성치과의학교 제2회 졸업 (1926년) 조선치과사회 부위원장(1945.12).

12.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치과과장, 경성의학전문학교 치과과장 역임.

13.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 (193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1964, 1966) 역임.

명진 학장은 일원화에 반대했어. 가만히 보면 조호연 선생 그쪽은 나중에 6·25 때 이북으로 갔거든? 그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좌익운동의 일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지헌택 이 무렵 모든 문제의 근본은 좌우대립, 친미인가 아닌가 그런 쪽에 있었다고 봅니다.

김규식 49년 무렵 치과대학 편제를 보면 기초학 분야는 박명진 학장의 약리학, 김영창(金永昌) 교수의 조직학, 김동순(金東順) 교무과장의 병리학, 김응순(약대) 교수의 화학, 이렇게 4교실 체제였고, 임상 분야는 이유경 병원장의 교정과 등 4부로 편성되어 있었지요.

지헌택 서울치대의 자랑으로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1946년 3월에 창립했던 배구부입니다. 마당을 깎아 배구장을 조성하고 46년 4월 5일에 경성치대 배구부 창립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존 9인제 배구로 팀을 만들어서 보성전문대(고려대), 남전, 조선철도, 체신부 등과 시합을 하였지요. 당시 선수는 김중수, 맹주환, 김명천, 양승면, 한만석, 그리고 1학년에 선우양국, 지헌택, 변종수 등이었지요. 3월말 시합에

서는 1회전에서 일제시대 최강자였던 보성전문대(고려대)를 만나 패하고 말았지만, 5월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일반부는 결승에 진출하였지요. 1946년 제1회 조선체육회 대학부에서 고려대와 결승에서 이겨서 우승한 것이지요.

6·25 발발에서 1·4 후퇴까지

김주환 나는 졸업 후 치과대학에 있지 않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에 조호연 선생 밑으로 왔거든요. 조호연 선생은 일제 시절 성치(城齒), 그러니까 경성제대 의학부 치과과장과 경의전 치과 2군데를 했었어요. 경의전 치과에는 정용국(鄭用國), 김은숙 씨도 근무했었죠.

6·25를 연구실에서 만났어요. 일요일인데 와글와글 버스가 가고 전쟁이 났다고 해요. 며칠 후부터 시계탑 앞에 학생들이 모여 빨간 깃발을 흔들고... 요새 노조들과 비슷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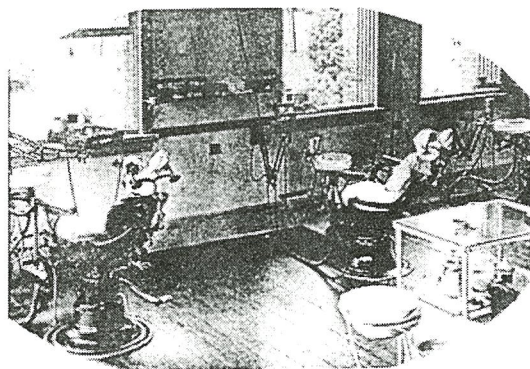
김규식 요새도 그것을 보면 8·15 직후 좌우의 단체들의 대모를 연상하게 되지요.

김주환 모두 돌면서 노래를 하는데 나보고 빨리 외우라는 거예요. “원수와 더불어...”

변영남 김일성 찬양 노래.

김주환 그걸 부르고 돌면서 빨리 합류하라는 거야. 한 가지 그 때 무서웠던 일은, 서홍석(徐洪錫)이라고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며칠 후에 수염이 나고 얼굴이 헬썩해서 찾아왔는데, ‘나 지금 나왔다. 서대문 감악소(형무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건연맹에 가입 안 하면 출세 못한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상(思想)이 다르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어렵더군요.

변영남 오응서 선생 자서전을 보면 그 분도 그런



서울의대 부속병원 치과

문제로 형무소 갔다 오고, 타의에 의해 김일성 찬양에 참여했는데 반역자로 몰리셨다더군요.

지현택 젊잖아서들 얘기 안 하시는데 이북에서 내려와서 치과대학을 접수하고 학장이라고 앉은 사람이 이춘근(李春根), 이영옥(李永玉), 김정규(金貞圭)¹⁴⁾ 교수, 이 분들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김정규 불들었구먼.

지현택 동기생들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뭐. 매달리고……. 나중에 수복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쪽에 찬성한 것으로 보일 거 아니요?

김규식 우리는 6·25 직전 5월에 입학했지요. 지금은 3월 입학이지만 과거에는 입학 학제가 9월이었다가 당시는 5월이었지요. 그 때는 두 분 선생님 다 졸업하시고 내가 1학년 때 5회¹⁵⁾ 졸업생이 4학년이었지요. 1학기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나고 한 이틀 학교에 나왔습니다. 강의는 없었어요. 그때는 부산 못 내려갔어요. 학교에 나왔더니 부역했다고 학교 쫓겨나간 교수들도 계시고 해서 수업이 안 됐어요. 당시 서울치대에 이북 학생이 많았지요,

변영남 유학 온 건가요?

김규식 유학은 아니고 서북청년회라든지 월남한 사람들 중심의 반공단체에 속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경찰 또는 군 수사요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었

지요. 어떤 사람은 CIC에도 있고 굉장했어요.

변영남 열렬했죠.

김규식 당시 학교 교복에 ‘치대’라고 되어 있는 배지를 안 달고 올라오면 몽둥이나 목총을 들고 기합주고 그랬어요, 그 후 그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지요. 여기 남아 있을 수는 없었죠. 내려갔다가 경찰이 되어 올라오고 서울에 계시던 교수들을 학생들이 심사했어요. 학생들에게 먹살을 잡히거나 코가 비뚤어진 경우도 있었지요.

김주환 의과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교수를 심사했어요.

김규식 개강하고 보니 소공동 지하실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수 한 분이 맞아 죽었어요.

변영남 송재형(宋在迥)¹⁶⁾ 선생이시지요. 그럼 피뢰군한테 맞은 게 아니었네요?

김규식 누구한테 맞았는지 모르지만 운동장에서 장작으로 화장하는 걸 보았어.

김정규 그게 수복되고 나서죠? 1·4후퇴는 그 후이고.

김규식 우리 동기에 경찰에 있던 사람 있어요. CID 요원인데 우리 선배를 지하실에 붙들어 놓고 그러던 바로 그 분들이 교수를 심사했어요.

변영남 동대문에 박이섭인가 왜, 누구였죠?

김규식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3개월간 수업 중단하고 수복 후 개강했지만 정상 수업은 안 되고 12월에 강의가 다시 중단되었지요. 그리고 바로 일부 내려갔어요. 중공

14.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2회 졸업 (1941년).

15.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 (군정법령 제102호, 1946.8.22)에 의해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졸업생 중 서울치대 1회 (1947년 졸업)에서 5회 (1951년)까지는 전문부 졸업생이고 1947년 입학생부터 서울치대 학부 졸업생임.

16.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4회 졸업 (1942년).

군이 나온다고 해서 전세가 안 좋았어요. 부산에 가서 들은 박학장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하고 이북에서 온 김용관, 유종덕, 김수철 선생이 같이 남하(南下)했는데 그 때 아마 기계를 같이 들고 온양을 거쳐 부산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야. 그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우리 집에 오면 기록을 보여줄게요.

며칠 전에 신재의 선생이 ‘한국근대치의학사’를 보내주어서 읽어 보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생각했지요. 여기 보면 유닛트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6개 밖에 안 되니 고쳐야 합니다. 부산에서 임시 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당시 내가 4학년 대표를 해서 잘 알아요. 피난 때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온 치과 기계 중 치료의자(pump chair)에 모빌 기름을 사서 주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4학년 친구 몇 사람이 수고했지요.

변영남 김동순 선생님 기록을 보면 천안에서 만나서 학장님과 부산까지 기차로 간걸로 되어 있던데요? 선생님은 1·4후퇴 때 내려가신 거지요?

김규식 그 때는 우리 1학년 때로 1951년 초 1·4후퇴 때지요.

부산 피난시절

김규식 서울에서 1달 공부하다가 피난 가서 처음에는 창선동(昌善洞) 김세존(金世尊) 치과의원에 치과대학 임시연락사무소¹⁷⁾가 있었어요. 그분도 검정(檢定) 출신 치과의사인데 파출소 앞에 있었고 김상찬

(金相讚) 치과의원에서 가까워요. 김상찬 그 분이 사람이 좋았죠. 2월경에 그곳으로 연락사무소를 이전하고¹⁸⁾ 우리 반 학생 30여명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4학년 임상강의도 하게 되지요.

이병태 김학대라고...?

김규식 학대 집에서는 우리가 임상 강의 (조제학, 영양학)를 받았어요. 치료실 앞에 방이 하나 있었지요. 우리 윗반 7회 졸업생도 거기서 임상 강의를 받았어요. 1951년 6월에 전시연합대학이 설치되어 우리 반 1학년 (50학번)과 2학년 (49학번)은 의학부(서울의대)에서 주로 의학 기초과목을 공부하고, 3, 4학년은 9월 하순부터 김상찬치과의원에서 개강하였지요. 우리들이 3학년 되고 대청동(大廳洞) 4가 2번지 산언덕에 임시 가교사(假校舍) 건물이 완공되고¹⁹⁾ 등교하고 보니 남하했던 여러 교수 분들을 만났지요.

변영남 당시 김동순(金東順, 조교수) 선생님이 치대 학생과장이셨죠?

김규식 그렇죠. 박명진 교수님이 병원장, 이춘근 조교수가 부원장, 김영창(金永昌) 조교수가 교무과장하셨죠. 그 전에 대부분의 교수가 조금 이상한 관계로 휴직이 되었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셨죠. 부산 내려가서 우리가 3학년 될 때 (1952년) 이춘근 선생이 복직하여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김수철, 유종덕 선생은 영주동에서 경향치과를 개업하고 계시고, 이유경 선생님도 초량동에 개업하셔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치과교정학과 근관치료학 (치과치료학,

17. 1951년 1월 7일 경

18. 광복동 2가 18번지 김상찬치과의원

19. 1952년 5월 26일 완공

Endo- dontics)을 강의하셨고, 얼마 후에 박유신 교수가 남하하셔서 근관치료학을 맡았고, 김수철 선생이 충전학, 이영옥 선생이 금관계속가공의치학 (계속가공치) Crown & Bridge와 총의치학 (유상보철학) Full denture prosthesis를, 심태석 선생이 치과재료학을, 김영창 선생(교무과장)이 구강조직학(치아조직학)을, 유종덕 선생이 처음으로 시바디자인가 치아형태학 일본책을 번역해서 가르치고, 구강병리학은 배진극(裴珍極) 외래교수와 김동순 선생(학생과장)이, 이비인후과와 치과위생학은 선덕영(宣德英) 선생 (외래강사, 당시 경찰병원 치과과장), 내과학은 박석연(朴錫連) 박사 (청진의과대학장 역임), 독일어는 김동순 선생이, 구강외과학은 이춘근 선생이, 치과약리학은 박명진 학장님이 강의하시고, 그 외 군사학 등 치과대학 1,2학년 교과목과 3학년 교과목을 함께 다 배웠어요. 물론 실습은 거의 못했지요. 보철학 실습을 위해 평성교합기하고 금관제작용 가위 직형과 곡형 두 개를 구입했었고, Morrison crown 한 개 만들었던 게 생각나네요.

김규식 정용국(鄭用國) 선생은 부산 내려가서 전

시연합대학 학생과장을 했어요. 지금 서울의대 치과학 교수라고 나와 있는데.

김주환 아주 형편없는 교수였어요.

김규식 저는 처음에 서무직원인줄 알았어요. 우리 3학년 때 (1952년) 이춘근 선생이 강의를 시작할 때 김주환 선생님께서 진해에서 우리 수업에 오셔서 뒤에서 강의 들으셨죠?

김주환 부산 피난 시절 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대학원이 생겼거든? 그 때 대학원이라는 거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안형규(安炯珪) 선생하고 김창욱 선생, 김유환 (서울의대 부속병원 치과 전임강사), 나,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해서 나 하나, 아니 김유환하고 둘이 합격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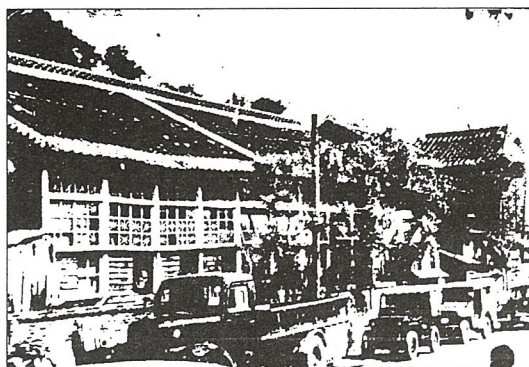
변영남 김창욱 선생님은 생리학하셨죠?

김규식 나중에 60년 초에 의대 부속병원 치과를 없애고 치대 문동선 교수가 겸임하고, 김창욱 선생이 조교수로 퇴임하고 생리학 교실에서 학위를 받았지요.

김주환 김유환은 학교를 정식으로 나온 분이 아니고 검정(檢定) 출신이었지요.

김규식 일본치대 나왔다는데?

김주환 아니요. 내가 서울대병원 치과에 같이 있었거든. 그때 강경순, 김중기(金重基)라고 같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일본치과대학 나왔다는 바람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 때문에...



전시연합대학 (1951, 부산)



치과대학 가교사(假校舍), 부산 대청동, 1951

김규식 그분은 미국 가더니 지금은 소식이 없나
요?

김주환 지금은 죽었어요. 아무튼 치과대학 제1회
대학원을 등록했는데 박명진 선생이 굉
장히 간깐한 분 아니요? 나는 당시 진해
사관학교에 공군군의로관으로 있었는데,
출석을 안 하면 학점을 안 주겠다는 거
야. 진해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금요일 저
녁에 버스 막차를 타면 5시간 가까이 걸
렸어요. 그렇게 토요일 강의를 받으러 가
면 이 양반이 ‘왔느냐’고 꼭 확인을 해요.
몇 년 동안 진해에서 부산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옮겼었지요. 그 양반이 그렇게 굉
장한 원칙론자야. 그때 정말 강의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김규식 학점을 안 주셔서 대학원을 4년 하셨지
요. 우리 3학년 때거든. 가(假)교사에 3학
년 구강외과 시간에 늘 오셔서 뒤에 앉아
계셨어요. ‘공군장교가 왜 치대에 오나’
하다가 나중에 ‘선생님 어떻게 되십니
까?’ 그랬더니 대학원생이시라는 거야.
늘 오셨어요. 지금의 진해와는 달라요.
그때는 버스 타면 마산에서 4시간 걸렸
어요.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셨죠. 그 때
김유환 선생은 안 나왔었어요.

김주환 6.25 때 고생 안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막차 타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손잡이
쥐고 5시간 매달려 가지요. 부산에 가면
어디 잘 데가 있나요? 친구가 초량에 화
학연구소에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자고 왔
지요. 대학원 제도니 뭐니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박명진 선생이 자기한테
와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 점수를 준다니.
그러고도 4년 만에 석사를 뒀어.

지헌택 나만큼이나 머리가 나빴구먼. (일동 웃
음).

김규식 나는 3년을 했어요. 박학장 약리학 강의
원고, 일본책 번역해서 400자 원고지에
적어서 가져다 드리고 시간마다 들어가
서 칠판 닦고, 출석 부르고 했지요.

변영남 점수를 많이 따셨네요.

이병태 그래도 1년 밖에 못 벌으셨네요 (웃음).

김규식 그래도 나는 제대로 했지만, 선생님은 그
때 군인이었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변영남 선생님,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전쟁 통
에 포기할 생각 안 하시고. 다른 사람 같
았으면...

김주환 내가 미련해서 했지, 이 사람 같이 영리
하면 내가 포기했지 (일동 웃음). 그때 대
학원 시험에 안형규 선생이 떨어졌었어
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득권이다’
하고 죽어라 했지. 또 하나는 진해에서
금요일 저녁에 일과 끝나고 빠져나가는
기분, 그것도 작용했지요.

김규식 정말 식사하신 중에서 제일 고생하셨어
요. 매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3학년
강의시간에 이춘근 선생 혼자 강의하셨
고 김용관 선생은 우리 아랫반을 하고 우
리 반은 강의 안 했는데. 하여튼 늘 나오
셨으니 훌륭하신 거죠.

김주환 그 때 의무대에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과장을 3~4개 했어요. 치과과장,
행정과장, x-ray과장하고 약제과장을 했
지요. 그 때 재미나는 일로, 오재인(吳在
仁) 선생님이 소령으로 임관했었어. 의무
대장이 의과대학의 주근원(朱權源) 선생
인데 같은 소령이야.

지헌택 주근원 선생이 공군에 있었지.

김규식 서울의대 비뇨기과 교수.

김주환 근데 주근원 선생은 치과를 굉장히 내려
다 봐요. 오재인 선생이 처방을 때는데
예를 들어 아스피린하고 중조는 배합금
기(配合禁忌)로 되어 있거든. 약효 때문

은 아니고 같이 넣고 조금 지나면 물이 되어 젖어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오재인 선생은 항상 아스피린에 중조를 섞어 처방을 했거든.

김규식 소화 잘 되라고.

김주환 응, 소화 잘 되라고. 근데 주근원 선생이 퇴자를 놓는단 말이야. ‘이런 처방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이 오재인 선생에게 가서 얘기하지요. ‘의무대장이 이런 처방은 안 된답니다’. 오재인 선생이 ‘그래?’ 하면서 의무대장실에 가지요.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처방인데 왜 안 되느냐’(일동 웃음). 오재인 선생은 검정 한지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양반이 아마 만주에서 면허를 받았지. 그 두 사람 싸움 중간에 항상 내가 끼서 말이야. 한쪽에선 처방 안 된다고 하고...

대학원을 다니려면 의무대장과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허락을 해야 다닐 수 있는데, 주근원 선생이 그래도 대학에 있던 사람이라 이해를 하더라고.

지헌택 이춘근 선생이 거기에서 논문 써서 서울대학교 박사 1호로.

변영남 52년에 부산에서 학위 기념식을 했다는데요?.

김규식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의과대학에 이춘근 선생보다 좀 선배 선생들이 몇 명 있어요. 생리학에 남기용(南基鏞), 김철(金喆), 위생학 김인달(金仁達), 미생물학 박진영(朴鎭泳) 교수, 이번 분들이 경성제대(京城帝大, 1941년 졸업) 출신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조교수였어요. 그분들이 논문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6·25가 났지요. 그때 이춘근 선생님은 휴직을 하고 부산에 가서 돈을 벌었던 말이야. 우리 1,2학년 때 전시면

합대학에서 그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남기용, 김철 생리 배우고, 이명복(李明馥) 해부 배우고, 김인달 위생학 배우고, 박진영 미생물 배우고 다 배웠단 말이요.

이병태 그럼 박진영 선생 젊으셨을 때군요. 저희도 그분이 가르치셨거든요. 연세가 들으셨어요.

김규식 아니요, 그 때도 그분 나이는 많은데 그분이 교무과장하던 심선생하고 친해서 일부러 나와 줬거든.

이병태 심상황(沈相煌) 선생님께서도 기초 분야에서 강의하셨지요?

김규식 심상황 선생은 우리가 부산에서 위생학을 배웠고, 심태석 선생이라고 보철과하던 그 분이 교무과장 했거든. 박진영 선생하고 심선생은 술친구야. 고향은 심선생이 경북 선산이고 박진영 선생은 진주. 그리고 김인달 선생, 총장했던 한식석 선생 그분들하고 친했어요. 박진영 선생은 위암으로 돌아가셨지. 그 아들이 경찰병원 원장도 하고 양원식 선생하고 경기 동기야. 그 친구 아들 하나 있고 부인은 경상도 분인데 돌아가실 때 까지 여기 왔어요. 치과에 대해 굉장히 이해해 주고 아주 협조적이었지.

김주환 그 때 의과대학에서 치대에 와서 강의한 것은, 같은 서울대학이라는 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치과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자면 동정심에서 해 준 것이지요. 치과에 기초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김규식 그 분들 시간을 대개 10시에서 11시 사이로 넣어 줘요. 요일은 서로 다르죠. 박진영 선생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1:30 정도에 강의 끝나면 소공동 중국집으로 가서 심태석 교무과장이 점심을 대접했지요.

김주환 의과대학에서 인간적으로 협조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지.

김규식 선우양국 선생이 할 때.

김주환 생화학 성낙응(成樂應, 1948년 전문부
졸) 교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지.
건방져요. 미생물 이호왕(李鎬汪)은 무시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병태 저희 때도 성낙응, 이호왕 선생님한테 배
웠어요.

김주환 성적이 형편없다는 거야. 성낙응이 얘기
하는데 자기가 의대와 치대 비슷하게 문
제를 냈더니 의대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한번은 낙제가 많이 나왔지.

변영남 성낙원, 이호왕 이 분들이 낙제 많이 시
켰어요.

김규식 이성수(李聖洙, 서울대 제1회 1947년)라
고 병리하던 분 있었어요. 6·25 때 미국
갔다가 병리를 배웠어요. 전시연합대학
의학부에서 우리하고 이화의전, 세브란
스, 서울의대, 여자의과대학 등 5개 대학
이 2년 동안 공부를 같이 했지요. 부산에
해피마운틴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서
autopsy를 한다고 각 대학에서 하나씩
오라는 거야. 치대는 제가 갔어요.

이병태 몇 학년 때셨는지요?

김규식 2학년 때지. 1학년 때 해부실습도 안 해
봤단 말이야. 중추신경까지 다 배우고 그
랬지만 실습 한번 안 해 본 상태였죠. 의
과대학 친구들이나 세브란스도 다 마찬
가지였어요. 조직을 조금씩 자르는데 이
성수 교수가 서울의대부터, ‘자네, 이거
뭐야’ 하고 물어요. 그 친구들 엉터리에
요. 우리 동기 서울의대 8회에 엉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과가 없어서, 선생님
동기 중에 최치원이라고 우리하고 같이
다녔어요.

김주환 최치원, 엉터리야.

김규식 이요(李堯)라고 서울의사회 회장하던 친
구, 이춘근 선생 동기입니다. 치과대학
나와서 치과의사하던 사람, 법대, 수학과
출신으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부산에 가
서 우리하고 똑 같이 했어요. 이성수 선
생이 여자의과대학 친구에게 ‘자네, 이거
뭐야’. 알 수가 있어야지? ‘야, 이놈들 전
부 부두에 가서 지게 저라!’... 요새는 그
렇게 못하죠.

아무튼 이춘근 선생님이 학위 받을 때 박명진,
이유경 선생님에게 신세를 많이 졌어요.
의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걸 이
겨내고 1호 의학박사를 받은 것은 박 학
장의 도움으로 쉽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요.

김규식 우리 4학년 때 (1953년)는 국소의치학
Partial denture prosthesis를 심태석 선
생이, X-선학(치과방사선학)을 김영창
선생이, 그 외 보철학, 임상구강외과학,
구강진단학, 임상보존학, 교정학 등 이외
에도 조제학은 약대 우종학(禹種鶴) 교
수가, 영양학은 의대 소아과 교수인 이국
주(李國柱) 선생께서 강의했지요. 안형규
선생과 차문호 선생이 전임강사로 발령
받고, 차선생은 미군 dispensary에 나가
시고 안선생은 치아촬영법이란 X선 강
의를 한 시간했지요. 또한 이 무렵(여름
방학)에 김수철, 심태석, 안형규, 차문호
선생들이 군의학교에 소집되어 4주 훈련
받고 예편했지요.

1953년 6월 8일에 부산시 광복동 입구 소
재 개인건물²⁰⁾을 임대, 치과의자 6대와
간이 치과엔진을 설치하여 부속병원으로

20. 심지태 선생 누이 집.

개원했지요. 4학년(50학번) 임상실습을 두어달 남짓 했나요? 7월 27일 정전회담이 성사되고 8월 26일 서울 본교로 환도하게 되어서 8월말에 폐쇄하고²¹⁾ 환도했지요. 다른 서울 친구들은 대개 상경했는데, 박명진 학장께서 환도 이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이춘근 선생님은 개업하고 계셔서 정신이 없었고, 마침 대학에 근무하던 김수만(金壽萬, 廳夫)과 함께 부속병원 장비, 책, 서류 등과 대학의 학적부 등 각종 서류와 현미경 등 장비 화차(貨車) 2량분(輛分)을 다 실었지요. 김수만씨와 당시 경북고 재학 중이던 내 동생과 함께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화차를 호송하면서 떠났지요. 그때는 도강증(渡江證)이 있어야 했어요.

환도 후 2학기는 53년 10월 1일에 개학하고, 11월 28일에 (졸업장에는 1954년 3월 28일로 되어 있지요) 4개월 단축하여 졸업하였지요. 졸업 전에 11월 21일 자로 남학생은 전원 육군중위로 임관되었지요.

발전의 명암

신재의 조선치과의학회가 정확히 언제 개최되었는지?

이병태 1950년에는 6·25전쟁으로 못 하지 않았나요?

김규식 조선치과의학회는 47년 5월, 48년 5월, 49년 5월에 열렸고, 50년 5월에는 못했어요. 부산에서는 4회, 5회를 개최했지요. 내가 4회, 5회에 참석했으니 잘 알지요. 52년에는 2번 했어요. 6회는 54년 6월 20



조선치과의학회 제2회 총회 1948.5.23

일에 했고. (실제는 55년?) 50년이 경과해서...

김규식 김용관, 김수철 선생은 경치전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차별을 받았어요. 안형규, 차문호 선생이 김용관 선생을 부르면서 '김선생' 이렇게 하대(下待)를 했어요. 그게 이복식이거든. 김수철 선생은 성격이 강하셨지요.

김규식 당시 박명진 학장은 단과대학 학장들 중에서 고참이셨고 부총장 급 대우를 받았지요. 부인은 55년에 먼저 돌아가셨고, 57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부총장 공관에 계셨죠. 학장서리는 김영창 선생이 하셨고.

김주환 김용진(金容璣)²²⁾씨가 치과의사협회 회장하실 때 내가 학술이사 했었어요. 마음은 좋은 분이고 사람들 모으는 실력은 별로였지요. 개업은 종로 2가 국립관 입구에 김용진치과라고 있었어. 이 양반이 안양 분인데 서울서 개업도 하고 치과의사회 회장이니까 국회의원 나오라고 고향에서 밀어서 나왔는데 이 양반이 언변이 좋지 않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선거 유

21. 당시 부속병원장 박명진 학장, 부원장 이춘근 선생

22.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 (1925년). 조선치과의사회 위원장 (1947, 1948),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1954, 1956, 1960, 1963)·역임.

세하는데 단 위에 올라가니 말이 안 나온
단 말이야. 결국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
서 못했어요. 두 번인가 나왔었는데.

이병태 시흥에서 출마하셨지요.

김주환 그것 때문에 병원 다 들어 먹었지.

김규식 서울대 1~5회는 전문부 졸업생이고
1947년 입학생 (6회)부터 학부 졸업생이
지요, 법대는 법관양성소 출신도 서울대
동창회에 넣고. 문리대는 중등교원 출신
도 인정하지요. 치대에서도 전문부 출신
성적 증명을 떼어 주었어요. 서울대학교
에서 선발한 6회(52년 졸업)부터는 기록
이 완비되어 있으나 그 이전 기록은 서울
대학교 본부가 아니라 70년대까지 단과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었지요.

국제 교류

김규식 내가 59년 8월에 미국유학을 갔어요. 그
해 9월 미국치과의사회 (ADA) 백년제 (1959.
9.14~18)와 제 47차 FDI 총회 (1959.9.1
2~19)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
라가 FDI 가입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김
귀선(金貴善)²³⁾ 선생이 오셨더라고요. 김
낙희(金樂熙)²⁴⁾ 선생은 NYU에
part-time 으로 직장 다니셨고, 그리고
정보라 선생이 오셨어요.

지현택 정보라 선생이 chief delegate예요.

김규식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면 FDI 회원국
으로 가입할 때 정보라 박사께서 모든 비
용을 부담했다는 기록이 김낙희, 김귀선
선생 두 분의 것이 있더군요. 사실 정보
라 박사가 일을 많이 하셨고 그 분이

FACD 멤버예요. 그 총회에도 초대해 주
셔서 같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
떠나기 전에 이영옥 교수께서 정 박사님
한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주셔서 그분께
우송해 드렸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시더군
요. 뉴욕에서 개최된 ADA 백년제에서
그 분을 뵈게 되었지요. 그 100년제 특별
프로그램을 지금도 집에 가지고 있어요.

지현택 그때 미국 부통령 닉슨이 왔었죠.

김규식 네, 닉슨이 나왔어요. 그 때 그 돈도
KDA에서 준 게 아니고 정보라 선생 사
비(私費)로 냈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김낙희 선생, 김귀선 선
생이 자기 자랑만 해 놓았더라고요. 정보
라 선생하고 저하고 일본치과의사회의
부회장(湯淺泰仁, 前田 勝) 두 사람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지현택 그러면 그게 후사야마야. FDI 부회장이
면.

김규식 아니, 후사야마 교수는 대표로 왔었죠.
일본치과평론(日本齒科評論) 1982년 12
월 호에“미국치과의사회 백년제에의 출
석”이란 기사에 일본치과의사회 부회장
湯淺 泰仁, 前田 勝 씨와 정보라 박사와
본인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에 우리 두 사
람이 일본 사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래서 필자인 結城 太郎씨에게 편지를 보
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고
한 분은 FDI 한국 수석대표로 시카고
Northwestern 대학 교수이고 나는 서울
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라고 했지요. 그 사
진 원판을 좀 보자고 했더니 원판은 없대
요. 그때 일본 대표로 참석했던 湯淺 泰

23. 김귀선(金貴善). 경성치전 제16회 졸업 (1944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장 역임.

24. 김낙희(金樂熙). 서울치대 제5회 졸업 (1951년, 전문부). 대한치과페리오학회 초대회장 역임

25. 일본치과평론, 1959년 11호

仁 부회장이 쓴 참관기(參觀記) “미국치과 의사회 백년제 열석(列席)하여”²⁵⁾란 원고 copy를 받아서 그 사진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외과 50년 교실사’에 실었어요. FACD 총회에서 일본 동경여자의과대학 구강외과 교수인 무라세(村瀬正雄) 선생과 기모노 차림의 부인도 만났었던 기억도 나는군요. 지난 기록이 보존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기록 관리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고쳐 놓아야 될 겁니다.

변영남 그래요, 고치고 바로 잡을 거 잡아야 합니다.

이병태 FDI 얘기 나온 김에, 5·16 나던 해에 아무도 못 갔거든요? 그 때 대표가 어느 분으로 결정되어 있었는지 그 기록도 없거든요.

지현택 5·16 나던 해 아마 대표를 결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병태 그 때 피에르포샤드 서거 (1761년) 200주년 인가? 명저 <외과치과의>를 기념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분도 못 가시는 바람에 국내에 한권도 안 들어와 있지요.

지현택 못 갔지요. 그 시기에 어떻게 가겠어요.

이병태 자료를 보면 부산치과의사회는 도장까지 전부 압수해 갔더라구요. 전부 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형편이었죠.

지현택 지금 기준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여권 한번 내려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어휴……. 할 애긴 아닌데 30여년을 FDI, ADA 하고 거의 빠지지 않았죠.

변영남 선생님 그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기 들어간 돈도 엄청나셨을텐데, 거의 안 빠지셨죠?

김규식 대한항공에서 1등석 안 드렸나요?

지현택 협회에서 내가 협회장 할 적에 돈 한 톨도 안 주어서 그 다음 해에 항공편 one-way를 예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총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관광하고 다니는데 왜 주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나 FDI 다니면서 끝나면 그날 저녁으로 바로 돌아왔지, 관광한 적 없다’ 말이야. 그렇게 one-way 예산을 타서 어수철 국제이사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겨우 나가는 사람 여비가... 지금은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0년 동안 공중에 다 뿌리고 돈이 남을 리가 없지요.

남은 이야기

김규식 50년부터 학생으로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만 56년 있었지요. 혼란기에 정부기록 보존도 부실했겠지만 교무과장 할 때 보니 전문부 학적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2,3회 인가는 2학기 기록이 없는 것이, 당시 데모하느라고 강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전체가 49년까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학생들도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에서 일본 중앙의학잡지, 구강병잡지 내용을 마구 찢어가기도 했지요.

해방이후 17-8년 동안 도서관 정리를 못하다가 62년 연대 도서관학과(사서학과) 출신의 최근배 선생을 임시직으로 채용했었고, 63년에 도서관장을 하면서 최초로 예산 6만원을 배정받아서 DDC classification 책을 구입하였지요. 선우양국, 김명국 학장 시절 윤천주 총장이 병원과 도서관을 합친다고 해서 의대에 도서관을 다 주고 말았지요. 5-6권 되는 교수회의록도 정년할 때 다 소각했다는 겁니다.

당시부터 기창덕 선생은 종합의학, 최신 의학, 현대의학(이승루) 등 50년대 한국 의학잡지들을 전부 가지고 있었지요. 대단하신 분이지요. 구강외과학회에 편집을 맡고 계셨는데, 당시 학술을 맡으셨던 분이 정순경 선생입니다. 1등으로 졸업하시고 실력도 훌륭하시지만 성격도 꼼꼼하셨습니다. 당시는 우표를 사도 영수증이 없던 시절인데 학회 충무하시면서 중앙우체국을 찾아가 우표 영수증을 받아 내시고, 이비인후과 선덕영 선생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종묘 앞에서 타고 온 시발택시 기본요금 (300환) 영수증을 받으셨지요.

초기 치과대학 교수는 이북에서 종합병원원에 있다가 들어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경의전이나 여의전 교수들은 김인달 선

생 등 상류층 자제분들이 많았으나 치대는 처음엔 미비한 점이 적지 않았지요. 일제 때 경치전에 입학할 때는 자기 손을 그리는 시험을 보았었고 순위 10위의 학교였지요. 학생이 없어서 60년대까지도 제 2지망이었는데 73년에 cut-line이 의대보다 높았었지요. 지금의 발전을 생각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치과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주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야지요. 치과대학 교육은 인문학적 소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영남 늦은 시간까지 많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원로 초청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우표를 통해서 보는

DENTISTRY

치과학 2002



For healthy and happy smiles

* JAE-SOUNG, GIM D.D.S./ Fourth edition

타이틀과 플렌

I 치의학의 역사

II 구강의 구조와 기능

II-1 구강의 구조 - 길은 로마로, 모든 먹을 것은 입으로

II-2 치아의 형태와 기능 - 구강은 악안면의 중심점

III 치과질환과 치료

III-1 전신질환과 치과치료와의 관계 - 치과는 치과만이 아닙니다.

III-2 치과질환의 치료 - 좋은 치료는 양호한 건강을

IV 치과장비와 치과재료

IV-1 치과장비 - 공포로 부터 해방

IV-2 치과기구 - 세월과 같이 발전해온 기구

IV-3 치과재료 - 모든 사물을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면.

V 치의학의 교육

V-1 치과의사 - 모든 사람에게 맑는 웃음을

V-2 치과위생사 - 보라색의 천사들

V-3 치과회의 - 이 세계를 그대 품 안에

V-4 치과학회 - 조금이라도 더 좋은 치료를 위하여.

V-5 치과협회 - 치과의사들의 총화.

V-6 치과박람회 -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

VI 구강위생과 관리

끝맺음

* '97 남도우표전시회 금상+특별상 · '97 전한국우표전시회 금은상
SINGPEX '98 國際郵票展示會 금은상 · 中國 1999國際郵票展示會 금은상
泰國 2000國際郵票展示會 대금은상 · LONDON' 2000世界郵票展示會 금은상
PHILAKOREA' 2002世界郵票展示會 ENTIRE

I-3 Dentistry of the Modern Age-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ghting against diseases



Pierre Fauchard a doctor of Surgeon, wrote a dentistry book it is name "Le Chirurgien Dentiste" which was first general book on the dentistry. book made him a pioneer of dent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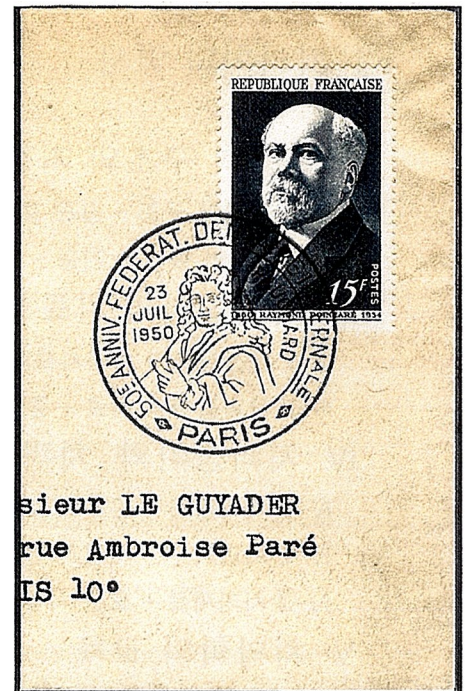
*Pierre Fauchard/French dentist 1678-1761
Father of modern dentistry*



PIERRE FAUCHARD
1678-1761

Design is Pierre Fauchard's portrait

Maximum Card



1950 Pries, France 50th F.D.I



Morton/1819-1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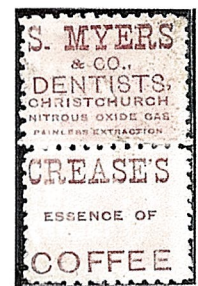


1882 New Zealand

Advertisement of dental clinic on the rear side stamp



The dentist, Myers advertised painless extraction



Anesthesia began with the use of nitrous oxide gas by Horace Welles/1815-1845 and ether by William T.G. Morton/1819-1868 American dentist., for what was widely called painless extraction Morton called this state the "ANAESTHESIA STATE" which was reduced to just "Anaesthesia" in new medical term usage.

I-3 Dentistry of the Modern Age-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ghting against dis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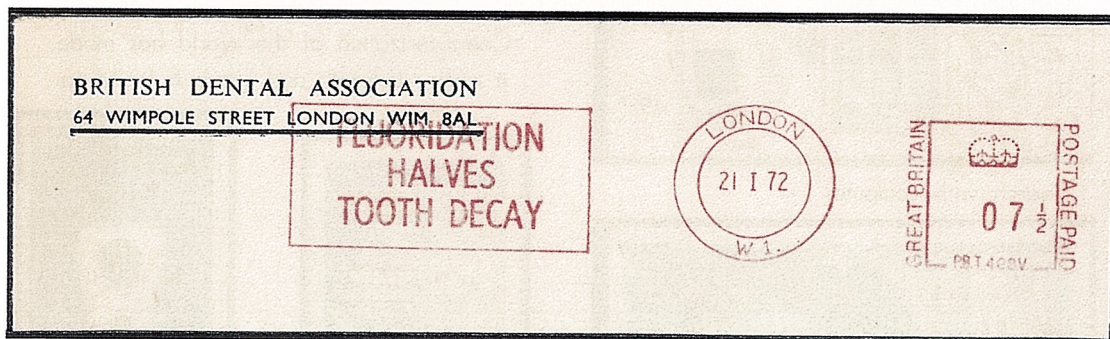
perforation error
Fluorine

Henri Moissan/1852-1907 a French chemist, engineer succeeded in the separation of fluorine, making possible its mass use to prevent dental caries for the general public.

He also succeeded composing diamond from carbon for use industry and dental equipment, dental bur, for which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1905



Fluorine added to toothpaste, fluorine liquid for teeth brushing, & tooth surface coating with fluorine.



The most effective use of fluorine is to fluorinate the water supply. Fluoridation Halves Tooth Dec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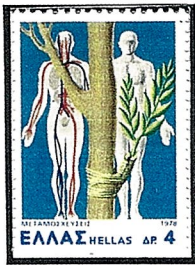


$H_2 + F_2 = 2HF$ is fluorine's official delegation formula by Henri Moissan

Henri Moissan

I-4 Dentistry of the Present age - Implant and tooth transp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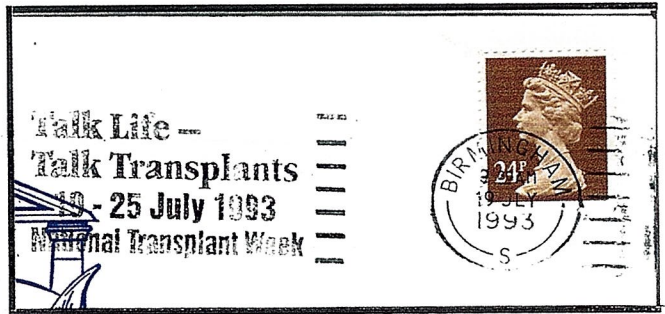
The 20th Century witnessed a continuous development of dentistry in term of techniques and equipment, and instrument, to satisfy demands for anesthetics and dental hygien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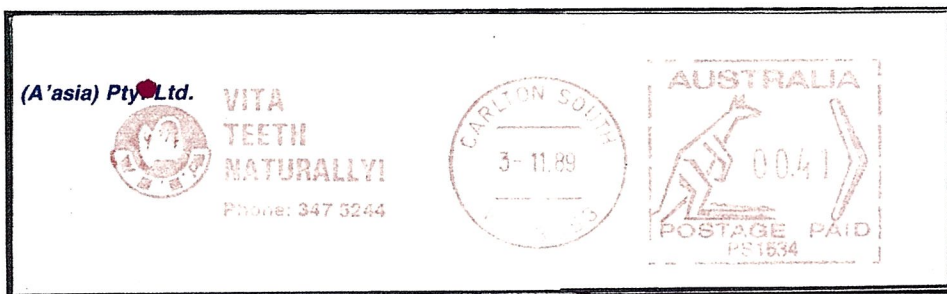
Transplant



Alexis Carrel



Alexis Carrel/1873-1944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1912, succeeded in transplanted organ.



The ultimate objective dental treatment is to make teeth natural and beauti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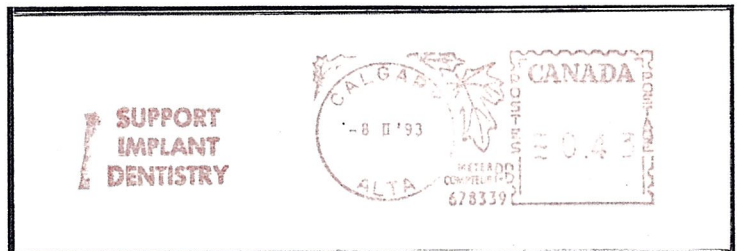


Search with computer

Computerization of the world has made it easy upload and search for data.



Use of internet and network



Acceptance of dental implant by bone and gum tissue has been excellent. Implant Material That is, the information age facilitates the flow of new technology, new equipment, new materials, new information. In addition radioactive machines and family history information make it possible to implant with ease and to treat congenitally abnormal te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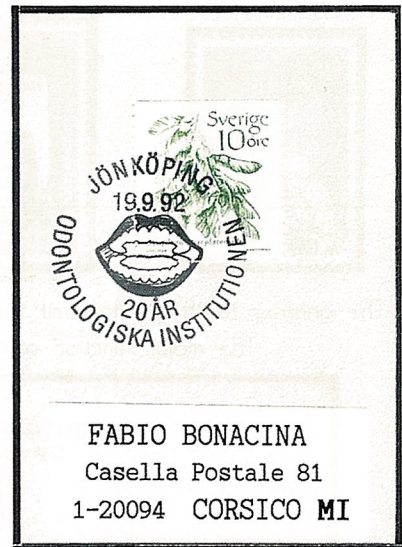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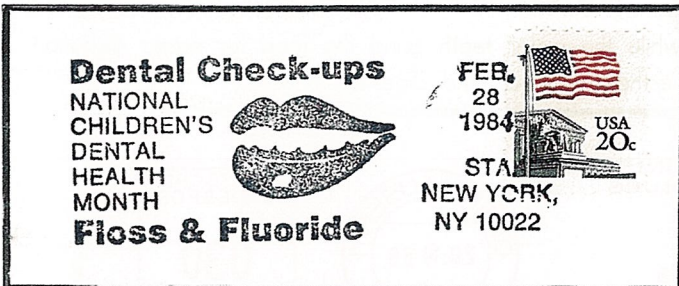
II. STRUCTURE AND FUNCTION OF ORAL CAVITY

II-1 Structure of Oral Cavity - All road leads Rome, all food pass through the m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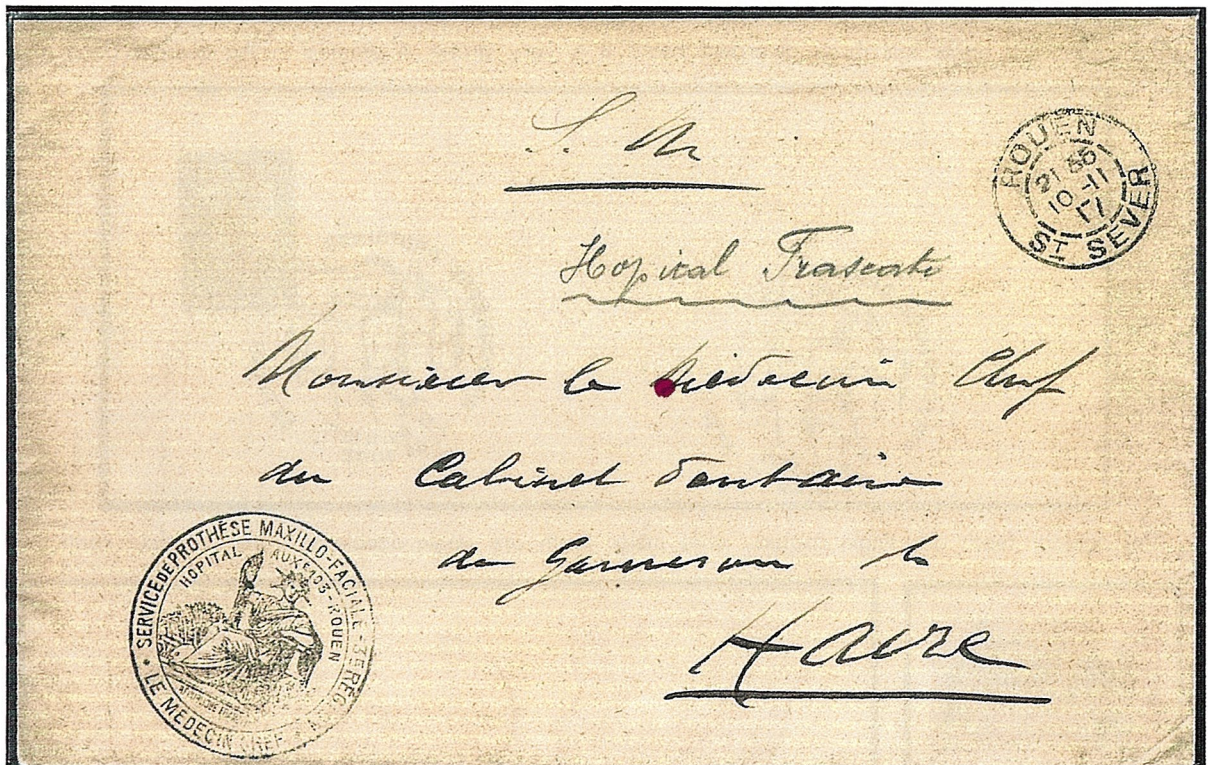


The mouth is the first gate for incoming foods. It liquidifies the food and pass it through the trachea to the stomach. The mouth consists of lips, cheek, hard palate, soft palate, the last which is connected to the pharynx and fauces.

Lateral view of Oral cavity



Accordingly, the area of dentistry is divided into a hard tissue of maxilla, mandible, zygomatic arch around the teeth and a soft tissue of lips, tongue, oral mucosa, cheeks, palate, salivary g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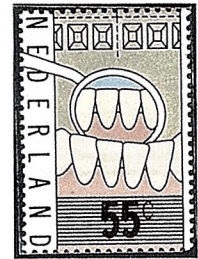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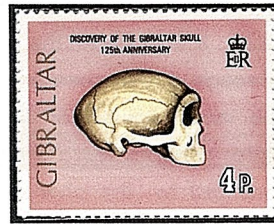
Maxillofacial prosthetic service

. 1917 Rouen France official letter

The medical examination area of dentistry exists mostly in Maxillo-facial area and the lesion around it. The mouth function as a path for all food to be taken in. It also has other functions which should be operative for use to have a happy and healthy body.

II-2 Morphology and Functions - The oral cavity is the center of maxillofacial area

Upper and lower teeth are positioned facing each other, and they also form palindromes horizontally. The formation of the teeth is 2,1,2,2(3 wisdom teeth), numbering 28 to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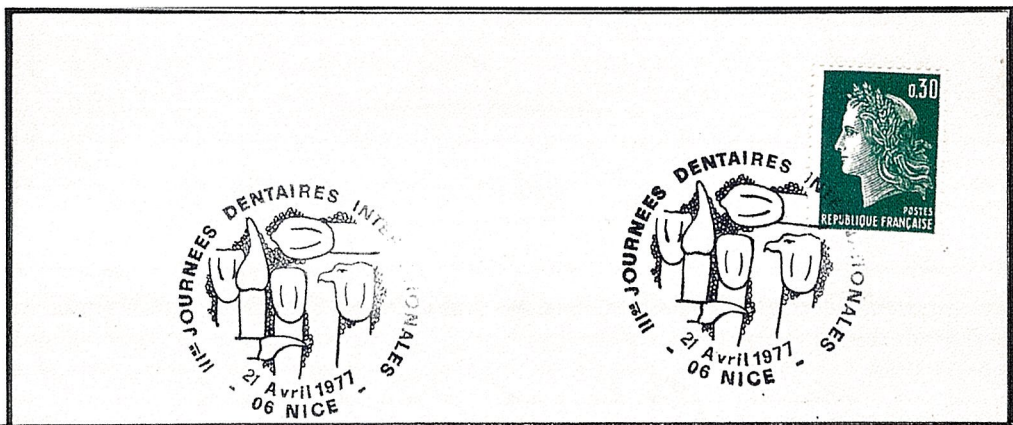
Called perforation teeth (穿孔)

The anterior teeth are transmit the food, while the molar teeth grind the food for easier digestion.

The major function of teeth is esthetic, speech and digestive func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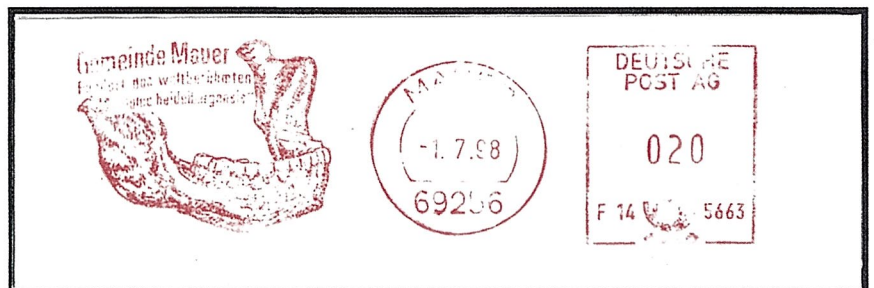
The upper first molar has three divergent roots. It is very strong & situated in the alveola bone.



The anterior teeth are single rooted, while molar teeth are single, double, or triple and four roots.



Articulation of mandible



The anterior teeth are important for esthetics and pronunciation purposes in addition to grinding food.

III. DENTAL DISEASES AND TREATMENT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A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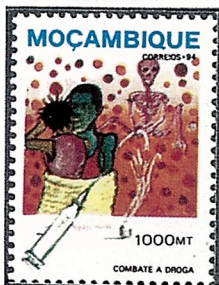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is caused by the Human Immune deficiency Virus, which is latent for years before the symptoms are visible, often leading the patient to death. More than 90% of AIDS cases develop oral cavity problems with a variety of symptoms such as white lesions, Kaposi's sarc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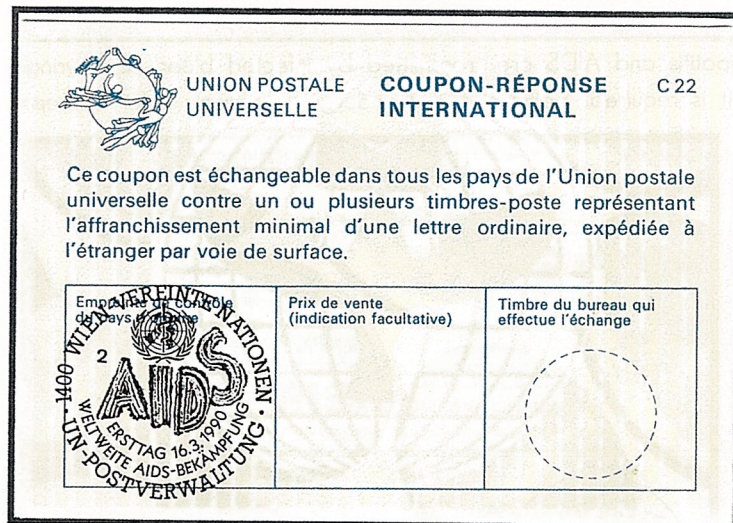
AIDS patho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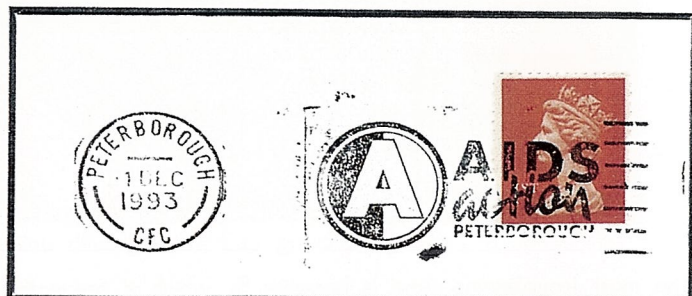
The most commonly known routes of infection for AIDS are reported to be blood contact and sexual intercourse.



AIDS is transmitted to anybody with no discrimination on race, age, nationality, sex & occupation. Unlike many diseases,



HIV infection & AIDS are preventable. While it can be disturbing to think about AIDS and consider your risk, getting up-to-date information is the first step toward protecting your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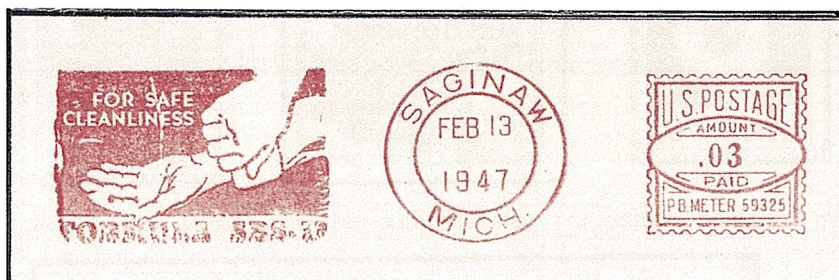


In the treatment of AIDS patients, special care should be given to sterilization to prevent infection.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Hepati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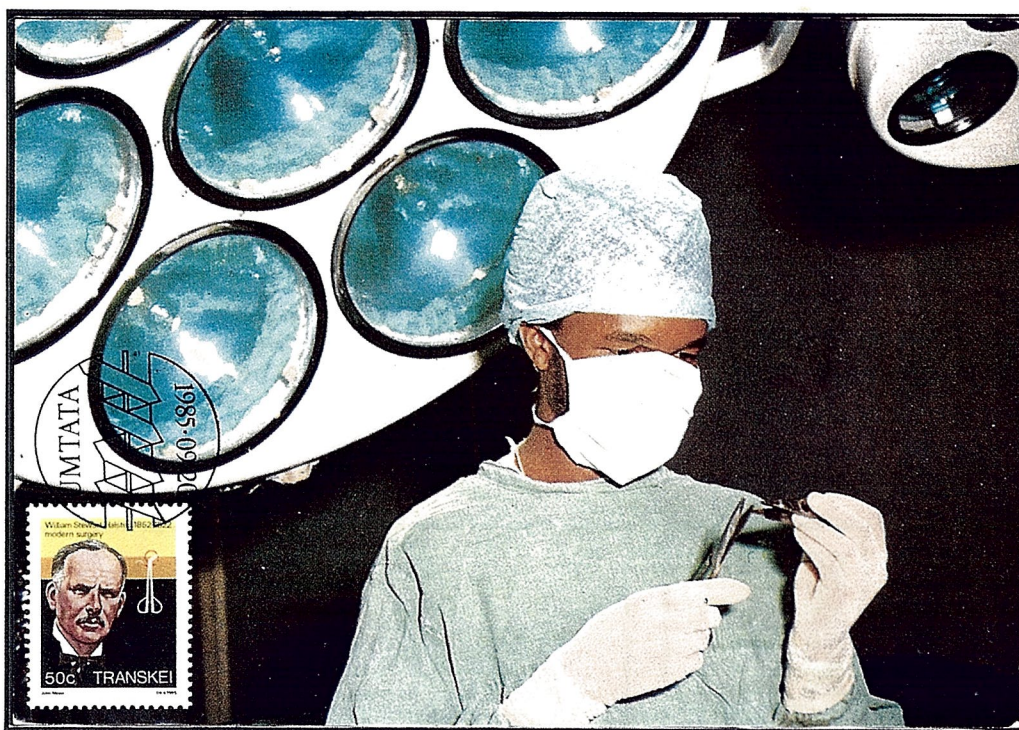
Hepatitis causes inflammation in the liver, and it also causes other symptoms in the bowels. Hepatitis, a general disease, is divided, depending on the speed of progress, in to two conditions; chronic and acute. Active hepatitis patients should avoid dental treatment, if possible.



Hepatitis and AIDS are transmitted by infected blood and syringe

Type-B Hepatitis

If it is required, patients should undergo treatment under antiseptic sterilization to prevent infection.



Gloving and masking with antiseptic

The most troublesome type is hepatitis B, which is preventable through the use of hygienic facilities such as clean cup, disposable towels, clean masks, and clean gloves, if used properly.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Venereal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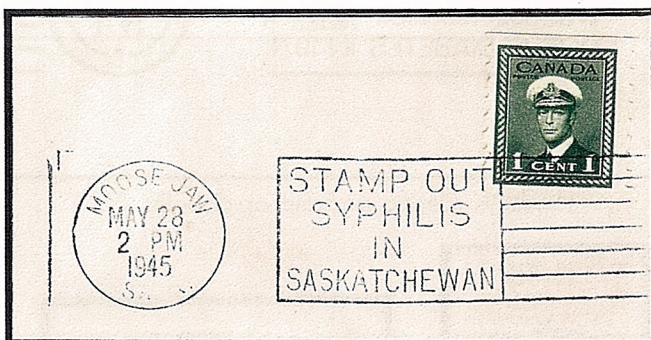
Venereal disease are various types, of which syphilis produces the most severe symptoms such as defective Moon's teeth inherited from parents or transmitted in the fetal period.



Nobel Prize in 1901

Emil v. Behring/1854–1917 and Paul Ehrlich/ 1854–1915 developed the first serum therapy to treat syphilis.

Perforation er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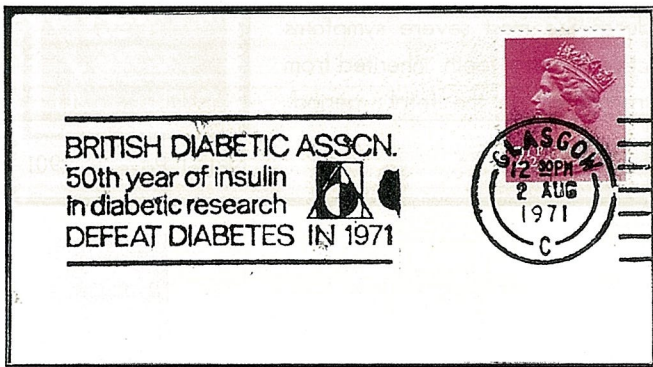
The syphilis pathogen, which was first found in 1905, should be carefully dealt with to prevent transmission in the process of dental treatment.

Paul Ehrlich found a chemical element called Salvarsan-606 which suppresses syphilis patho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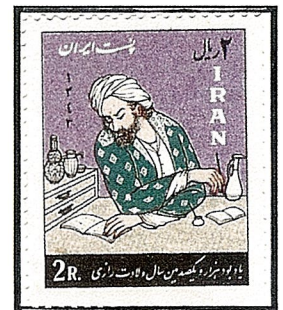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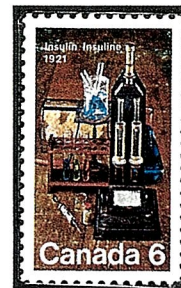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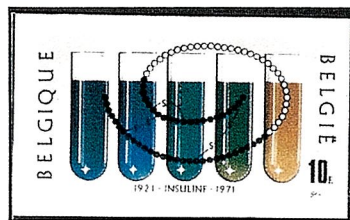
Emil v. Behring and Paul Ehrlich were given the Nobel Prize in 1901 and 1908 respectively for their contribution to serum therapy. Emil v. Behring & his signature, he was prof. at Marburg Univ..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Diabetic Mellitus



Diabetes weakens the gingiva, aggravates the symptom of periodontal disease, and accordingly it requires special care. Treatment should be given in the morning. If any infection takes place on the gum the amount of Insulin should be increased. postmark of diabete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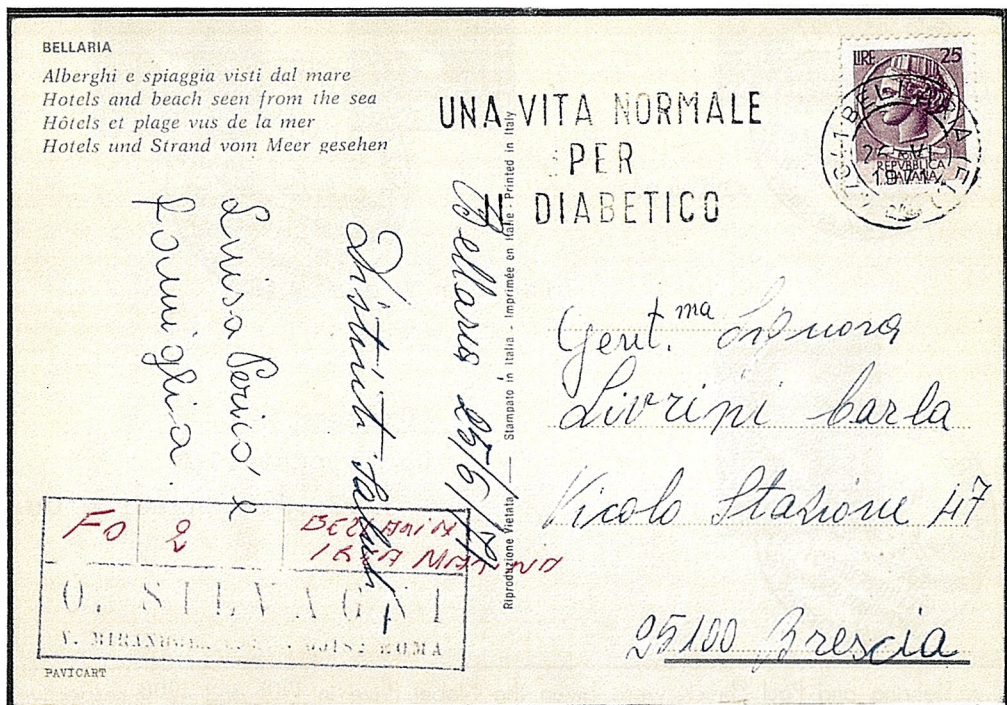
Insulin is specific medicine at diabetes



Aretaeus/130-200 was the first person to medically document diabe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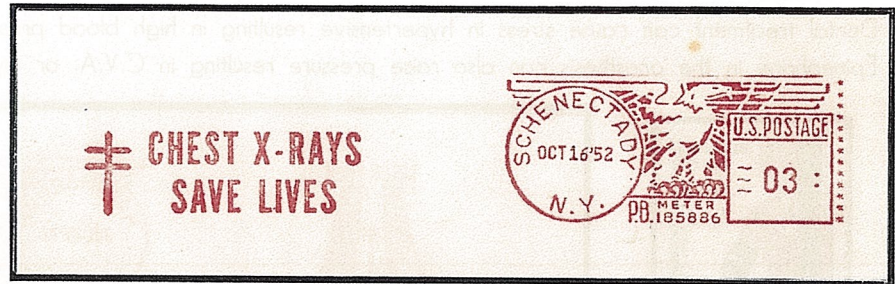
Analysis Urine

Diabetes is one of the oldest diseases with medical records, noticeable because of the large amount of food intake and urine production associated with a disease.



All general disease affecting the whole body require a regular diagnosis, including dental care.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Tubercul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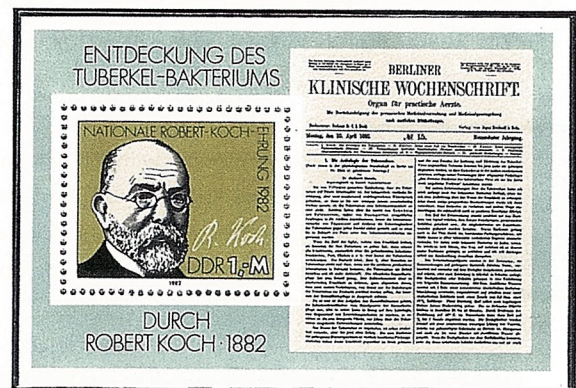


A patient with a general disease might have its symptoms aggravated by serious stress even during a minor dental treatment. Special care should be given to maintain physical stability..

This often requires the advice of physicians.

Medical examination for Tuberculosis control

The symptom of tuberculosis in the oral cavity are ulcers on the tongue surface accompanied by pain..which often spread to the palates, lips and even to gingiva, oral mucous membrane.



Robert Koch Finding & culture of tuberculosis bacteria

R. Koch and his art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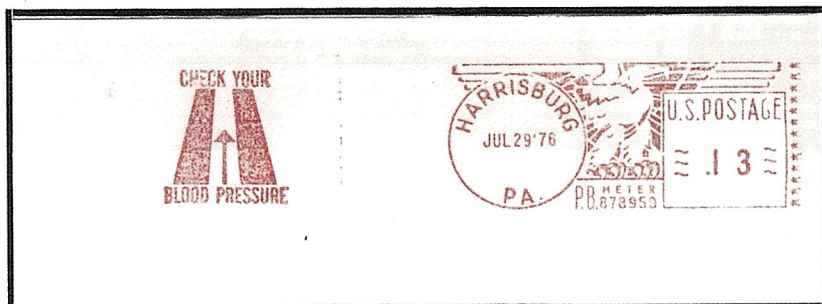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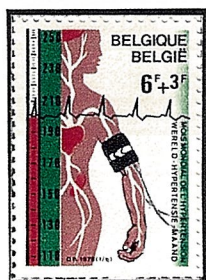
Postal card for eliminate tuberculosis

Tuberculosis is transmitted by bacteria emitted by coughing, which are taken into healthy persons through the respiratory tract. This transmission process is called *droplet infection*.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Hypertension

Dental treatment can cause stress in hypertensive resulting in high blood pressure.

Epinephrine in the anesthesia can also raise pressure resulting in C.V.A. or myocardial infarction.



The high blood pressure/hypertension is a chronic disease which comes after a long period of latency. Only regular physical checkups allow discovery of the symp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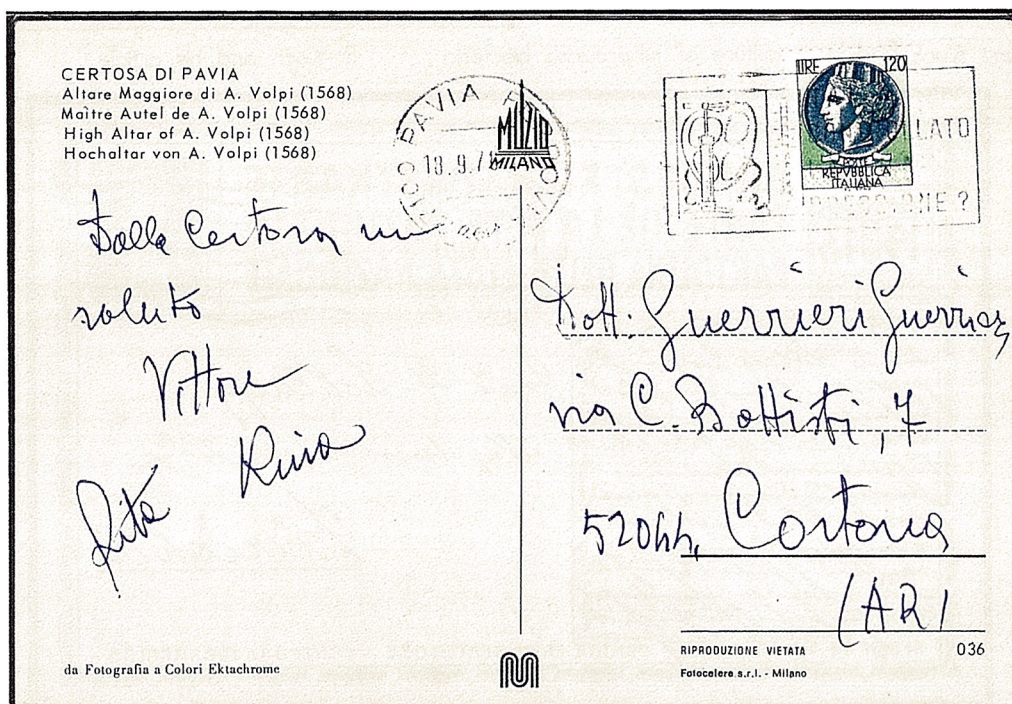


Hypertension with an uncontrollable high blood pressure should avoid customary dental treatment. Those treating them should use anesthesia with no epinephrine and stress should also be avoided.



Sphygmomanometry

Heart



Blood pressure gauge / tonometer

The average blood pressure by W.H.O. to avoid shock is 140/90mmHg, so any pressure beyond this range should be given special care.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Epilepsy

Epilepsy is recurrent attack caused by the over-reaction of neurons of the brain. It is dental treatment requires psychological report of between patients and dentist/It is Dr.-Pt. cooperation



Agas A. Moniz/1874-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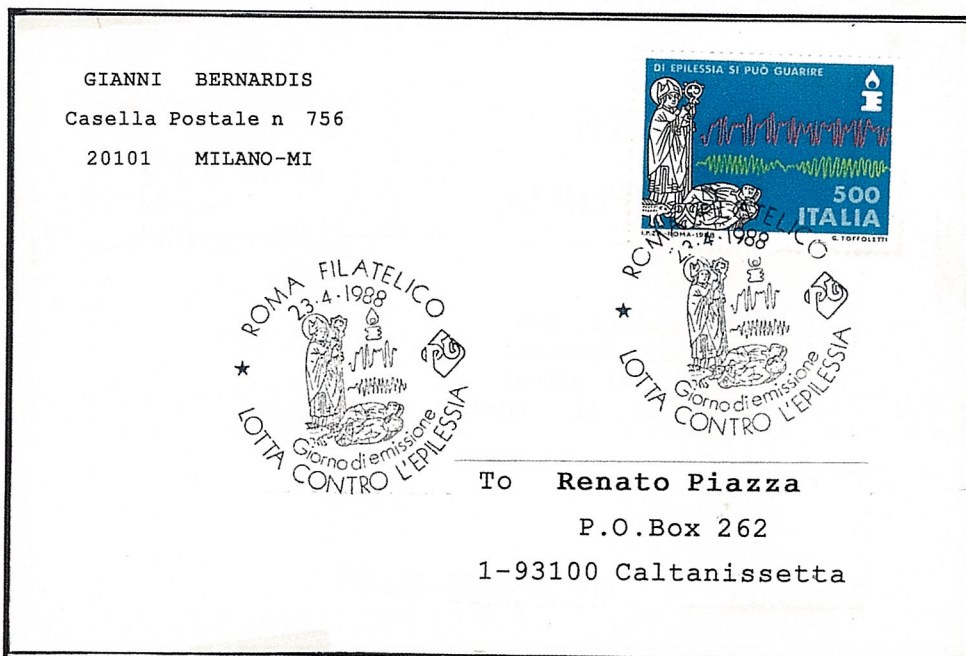
Agas A. Moniz was awards the Nobel Prize in 1949, for his contribution to the treatment mental disease



Abnormal brain wave

Mental patients including epilepsy patients have the danger of abnormal mechanisms in blood coagulation caused by the lack of Vit-K.

They may experience gingival hyperplasia from continuous use of *DILANTIN* is called dilantin hyperpl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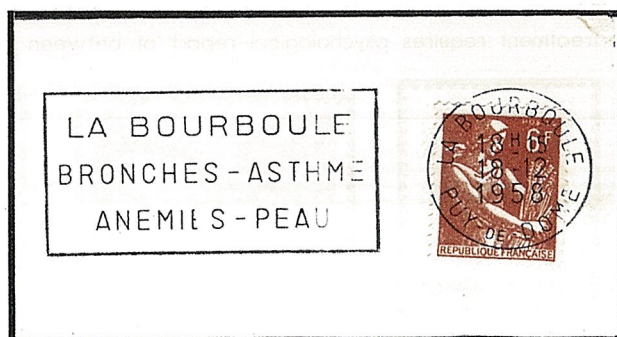


Normal and abnormal brain waves are shown on this stamp. We can see abnormal brain wave occurring in mental patients.

Brain wave at Epilepsy Patient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Blood dyscrasia

Anemia, hemophilia, such disease should be given special care to avoid complication, especially in sur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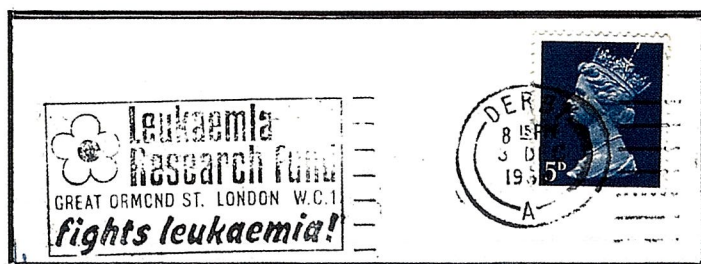
Blood giving is a method of expression humanity

Anem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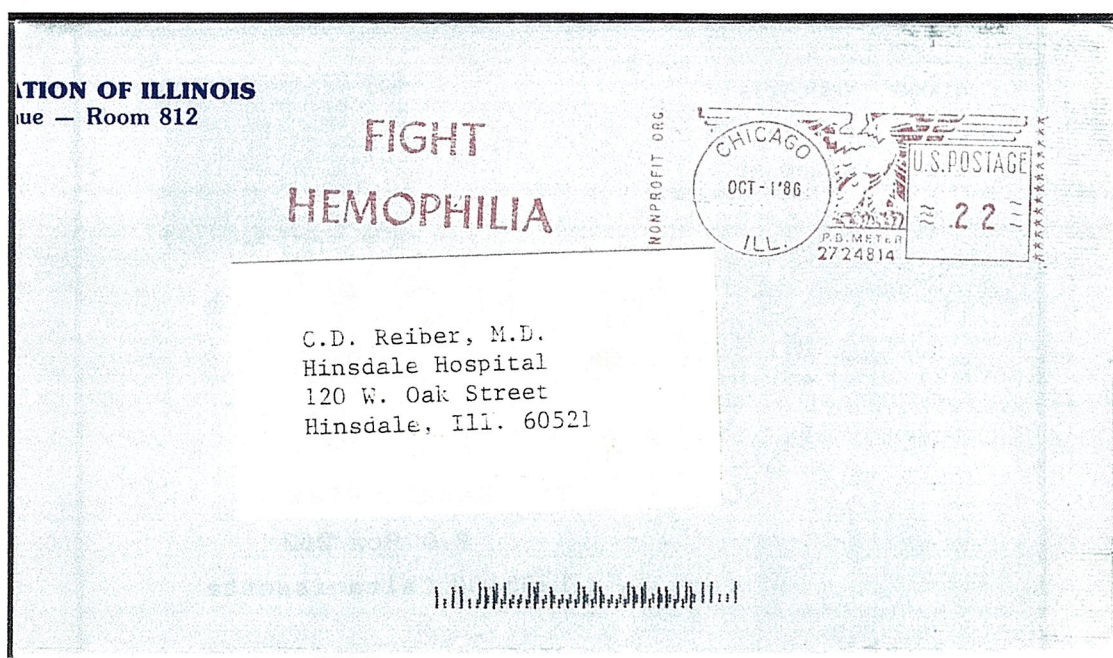
Since general diseases progress without many symptoms that can be recognized by patients, dental treatment should be preceded by basic laboratory test for diagnosis.



Fights Leukemia



To treat the blood dyscrasia and alleviation of the symptom is need the whole blood and/or the other blood derivations. Giving blood is behavior to help the blood dyscrasia pati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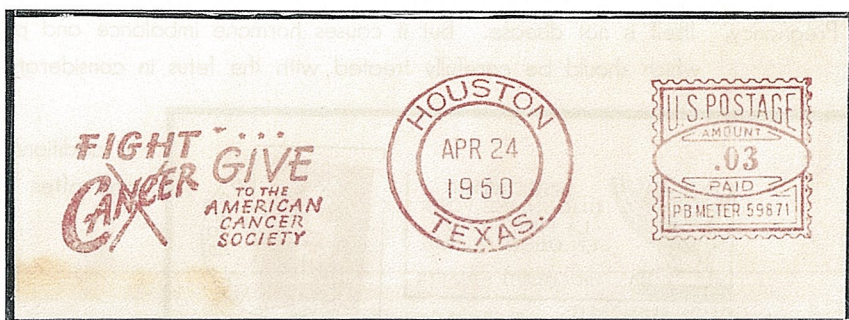
"fight hemophilia" campaign

Blood disease-leukemia, acute or chronic anemia, hemophilia—often cause excess bleeding tendency during dental treatment.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Cancer



Lip



"fight cancer" to the give American Cancer Society

Oral cancer constitutes 3-5% of all cancer. Cancer, which is a mutation of cells, begins with abnormal developpe of white lesion or with long-term ulcer



A diagnosis of cancer based on microscopic biopsy



Infra-red diagnosis



Radioactive treatment

Biopsy is the most useful method for early discovery of cancer, which is crucial for successful trea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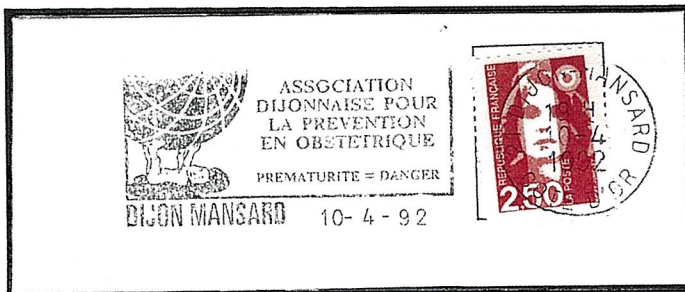
Cancer Association 1929 Denmark

First anticancer stamps

Early discovery of cancer is crucial for dental treatment, which should be accompanied by general treat

III-1 General Disease and the Relation to Dental Treatment – pregnancy

Pregnancy, Itself is not disease. but it causes hormone imbalance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which should be carefully treated with the fetus in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weaken the gingiva, and often cause dental caries.



Ovulation

Special dental care is necessary since the teeth of the an baby begin to come out from two months after birth and the permanent teeth began to from right after birth.



Pregnancy state



Embryo life



Working at pregnancy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
20th International Congress Sydney 1984



To: Reply Paid 9988 *
Australian Philatelic Bureau
Australia Post
GPO Box 9988
MELBOURNE VIC 3001
AUSTRALIA

The lack of proper nutrition during the nursing period often cause dental caries in baby teeth and the abnormal formation of permanent teeth.

Letter envelope of Australia

學會 活動 (2005. 3~2006. 2)

1. 정기총회 : 2005년 3월 25일(금) 오후 7:0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뷰
안건 : 2004년 회무 보고, 결산 보고, 감사 보고,
2005년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임원 선출 (변
영남 회장 유임, 차기 회장 김 평일 부회장)

2. 학술집담회

- 1) 2005년 3월 25일(금) 오후 7:00,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뷰
연제 : “齒科醫史學 및 학회의 발자취”
(연자 : 이 한수 종신명예회장)
- 2) 2005년 5월 20일(금) 오후 7:00,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뷰
연제 : “미술작품,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연자 : 김 규문 박사)
- 3) 2005년 9월 30일(금) 오후 7:00,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뷰
연제 : “광복 후 치과의사회 설립과 활동”
(연자 : 신 재의 직전회장)
- 4) 2005년 11월 25일(수) 오후 7:00,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뷰
연제 1. “불아사리 - 문헌을 통해 본 치아형
태학적 접근” (연자 : 신 덕재 원장)
2. “우리나라 근대 간행물에서 보이는
‘치과’: 1894-1950 (연자 : 조 영수
총무)

3. 원로 초청 간담회 : 2005년 6월 8일(수) 오후
6:3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뷰
초청 원로 : 김 주환 박사님, 지 헌택 박사님,
김 규식 교수님

주제 : “6.25 전후 1950년대 치과계”

(2차 간담회 : 2005년 11월 4일, 호정회
관. 김 규식 교수님)

4. 이사회

- 1) 2005년 6월 24일 오전 8:00, 프레스센터

마로니에

안건 : 원로초청간담회 보고, 치의학회 분과
학회장 workshop (5/19~20) 보고,
대한치의학회 인턴제 폐지안에 대한
학회 의견 수렴의 건, 하반기 학술집담
회 계획의 건, 학회지 발간의 건, 치의
학회사 편찬의 건, 기타 (치의학회 분
담금, 치의학회 치의학전문용어집 편
집위원 교체, 치협 용어개정 소위원회
위원 교체, 경성치전 학교림 확인)

- 2) 2005년 10월 20일 오전 8:00, 프레스센터

마로니에

안건 : 11월 학술집담회 개최의 건, 학회지 발
행의 건, 기타

- 3) 2006년 1월 13일 오후 7:0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가든뷰

안건 : 2006년 정기총회 준비의 건, 2006년
학술집담회 계획의 건 (3월, 5월 9월,
11월 3째 금요일), 이사회 일정의 건
(4월, 6월, 10월, 12월), 학회지 발간의
건,

기타 (치협 학술대상, 신인학술상, 치의학회
연송치의학상 후보의 건, 치의학회
SCI 영문학회지 발간 분담금 건, 기초
치의학협회의 회의 참석의 건)

會 員 動 靜

- 이한수(중신명예회장): 월간 치과연구에 칼럼 “이달의 휴게실”을 연재. .
- 김정균(명예회장):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16박 17일간 부부동반으로 칠레 파타고니를 등반하는 한편, 12월에는 뉴질랜드 밀포드에 트래킹을 다녀왔다.
- 이병태(명예회장 겸 편집위원장): 2005년 1학기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년 예치과의사학 출강. 9월 25일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금강산 온정인민병원치과진료소를 개소. 남북치의학 교류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 이병태·손홍규·정재규)에서 월2회 정기방문 진료중이다.
- 박승오(명예회장): 뉴라이트운동 전국연합 지역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임경빈(명예회장): 그간 개원 중이던 clinic을 새롭게 단장.
- 신재의(명예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외래교수로 임명되는 한편 대한치과임프란트학회 30년사 편찬위원으로 선임, 또한 최근에는 “한국근대치의학사”를 출판하였으며, 계속해서 교회관련 저서를 집필 중에 있다.
- 변영남(회장): 2005년 3월 치의학회 감사 및 대한치과임프란트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선임되는 한편, 성동의국인근로자센터 및 성가복지병원 무료진료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홍예표(이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으로 피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금강산온정인민병원치과진료소로 방북봉사진료에 참가.
- 신덕재(원장): 열린치과의사회 회장직을 맡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임기를 마쳤으며, 남북치의학교류협력위원회 금강산온정인민병원 치과진료소로 방북봉사진료에 참가.
- 이종찬(교수): 고구려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5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바드대학 예칭연구소에서 “민족의 근대적 형성에서 의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를 연구 하였으며, 또한 2006년 1월 8~9일 캄보디아 시엔럼에서 개최된 1차 동남아 의학사 심포지움에서 “Locating and Mapping Tropical Disease in Southeast Asia”를 발표, 그리고 2006년 2월 12~19일 사이에 동경 준텐도(順天堂) 의과대학 의사학교실에서 明治 일본의 위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 조영수(총무이사): 2005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2학년 1학기 ‘치의학의 역사’를 맡아 강의를 하였다.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終身名譽會長：李 德 一(이덕일치과의원) 監 查：許 正 圭(중앙치과의원)
" : 李 漢 水(齒科研究編輯指導委員) " : 李 時 雨(이시우치과의원)

名 譽 會 長：金 正 均(김정균치과의원)
" : 李 丙 台(이병태치과의원) 學術誌 編輯委員會
" : 朴 勝 五(박승오치과의원) 編輯委員長：李 丙 台(이병태치과의원)
" : 任 慶 彬(신라치과의원) 編輯委員：裴 珖 植(서울치대)

直 前 會 長：辛 在 義(신재의치과의원) " : 鄭 鎭 亨(단국치대)
" : 金 熙 眞(연세치대)
" : 李 周 妍(세브란스치과의원)

會 長：邊 榮 男(성신치과의원)
副 會 長：金 平 一(강남치과의원) 非常任理事：裴 珖 植(서울치대)
" 林 鎔 準(임용준치과의원) " : 金 熙 眞(연세치대)
" : 李 俊 奎(이준규치과의원) " : 李 興 洙(원광치대)
總 務 理 事：趙 英 秀(백상치과의원) " : 鄭 鎭 亨(단국치대)
學 術 理 事：李 周 妍(세브란스치과의원) " : 姜 信 益(강릉치대)
財 務 理 事：崔 暢 均(온누리치과의원) " : 金 景 哲(경북치대)
公 報 理 事：鄭 基 芳(성심치과의원) " : 洪 禮 杓(홍치과의원)
企 劃 理 事：洪 景 澤(홍경택치과의원)
國 際 理 事：朴 永 濬(박영준치과의원)

투 고 규 정

1. 본지는 치과의학사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 종설, 논문 등을 게재한다.
2.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되 제목, 저자, 본문, 참고문헌, 초록의 순으로 한다. 한글논문에는 영문초록을, 영문논문에는 한글초록을 첨부하고 6개 이내의 색인단어(key words)를 하단에 별도 표기한다.
4. 원고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작성하고, 원고가 저장된 컴퓨터 디스켓을 같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원저 및 종설의 경우 표(Table)와 그림(Figure)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 구분은 1, 1), (1)과 같이 한다.
6. 학술용어는 한글로 하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나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기금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예) 100cm (x) → 100 cm (o)
7. 도안이나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와 별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8. 참고문헌은 각주 처리한다. 본문에는 괄호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하고 다음 양식에 따른다.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 1) 잡지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연도:권(호):시작면-종료면
(한글) 최정봉, 치학 15년의 회고와 반성, 최신의학 1960:3(12)-31-34
(영문) Suddick RP, Harris NO. Historical Perspectives of Oral Biology: a series. Crit Rev Oral Biol 1990: 1(2):135-51
- 2) 단행본 : 저자명, 저서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발행연도 : 시작면-종료면
(한글)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 민음사, 1966:480-7
(영문) Hoffman-Axthelm W. History of Dentistry, Chicago : Quintessence Publishing Co., 1980: 16-8
- 3) 단행본 속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저자명, 문헌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발행연도 : 시작면-종료면
(한글) 조현영, 동서의학 비교 비판의 필요성, 박계조, 한의학은 부흥할 것인가, 1판, 서울 : 학민사, 1997: 71-88
(영문) Granshaw L. The Rise of the Modern Hospital in Britain, Wear A. ed. Medicine in Society: Historical Essay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197-218
9.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상의하여 원고의 자구와 체제등을 수정할 수 있다.
10.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第24卷 第1號 (通卷 26號) (Vol. 24. No. 1., Series 26) 2005

2005년 12월 15일 인쇄
2005년 12월 20일 발행

發行人: 邊 榮 男 (Publisher: Byun Yung-Nam)
編輯人: 李 丙 台 (Editor in Chief: Lee Byung-Tai)
發行所: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Associatio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所在地: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320-7 (우)130-090, Huy Kyung Dong Dongdaemun-gu 320-7, Seoul,
電 話: (02) 967-8854 Tel: (02) 967-8854
電 送: (02) 961-6470 Fax: 82-2-961-6470

〈비 매 품〉

마스타치과기공소

Master Dental Laboratory

임플란트 및 심미보철을 전문으로 보다 정확한 보철물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 김 명 배 · 김 진 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4동 358-14

TEL : (02) 477-2891 · (02) 478-2891



Dental Laboratories

" Home of Fine Dental Prosthesis "

대표전화 (02) 498-2828

金보다 귀한 정성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은은한 소리로 유명한 에밀레종-
그 신비한 소리의 탄생배경에는
현대 과학이 따라잡을 수 없는
선조들의 집념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순수 치과용 합금, 골드니안은
완벽한 품질을 얻기 위해
99.99%의 Pure Gold만을
엄선하고 또 엄선하였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금보다도 귀하게!
골드니안을 만드는 신흥의 정성입니다.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골드니안